

베트남 참전 동맹군

Allied Participation in Vietnam

저자 Stanley Robert Larsen • James Lawton Collins, Jr.
번역 이주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머 리 말 foreword

미 육군은 동남아시아에서 비정상적으로 조성되는 복잡한 도전을 받고 있다. 미 육군은 타 군과 관련하여 신흥국가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들의 정부를 수립하고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국의 정책에 따라 전쟁을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군사작전 뿐 아니라 현대화된 육군에게 부여되는 정밀한 임무를 동남아시아에서도 수행하도록 요구받는다. 이 정밀 임무는 이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진행중인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미 육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정서가 생기도록 적응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게릴라 소탕 작전을 수행할 때 지역 농민들이 그들의 기본적인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는 임무와, 대 게릴라 작전에 따르는 그들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규군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전통적인 캠페인을 수행하도록 요구받는다.

미 육군은 장차 전개될 수 있는 어떠한 도전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비록 역사는 그때 그대로 정확하게 반복되지 않으며 미 육군이 경험했던 방법이 새로 직면하게 될 도전에 적용할 때 얻

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고 해도, 미 육군은 과거의 경험을 연구하고 성공에 못지않은 결점들을 연구함으로써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동남아시아에서의 경험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공식적인 역사로 정립하기 전까지 수년의 세월이 지나야 되겠지만, 이 지역의 경험을 논할 수 있는 포럼을 우리는 당면하고 있다. 참모총장(the Chief of Staff)의 요청으로 베트남에서 중요 직위에 종사했으며, 현재도 매일 많은 책임과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장교들이 방대한 자료 논문집을 준비해 오고 있다. 본 연구서들의 가치는 미 육군의 장차전의 개념을 개발하도록 도울 수 있고, 역사 기록에 도움을 주며, 미국의 국민에게 베트남에 참전한 장병들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모든 논문자료들은 기본적으로 공식기록에 기초를 한다. 발행된 자료기록과 발행되지 않은 부차적인 기록물, 브리핑 보고서, 핵심 목격자들의 인터뷰, 저자의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온 기록에 기초를 한다. 안보상의 이유로 주석, 세부 색인은 발행용 논문에는 삭제되었다. 삭제되지 않은 원본은 전쟁 역사관에 보관되어 있다(the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독자가 기억해야 할 대부분의 기록은 베트남전쟁이 절정에 달했을 때 쓰여졌으며, 본 논문의 인물들은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과거의 사건들을 인용하여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다.

준장 제임스 노튼 콜린스 2세는 현재는 미 육군의 전쟁역사관 관장이며 베트남전쟁의 연합 참전국에 관한 이야기를 말해 줄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는 주한 1군단 예하 포병사령부 부사령관을 마친 후 연합국의 참전을 위한 연락장교의 임무를 띠고 베트남에 두 차례 파견되었다. 1964년 베트남 지역군 겸 정규군의 미군 수석

고문에 임명되었다. 1965년에는 베트남 주둔 미군지원사령부의 특별 보좌관에 임명되었다. 그는 이 직책으로 웨스트모랜드(Westmoreland) 대장과 베트남 합참의장과 함께 연합군 작전을 대표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그 공헌으로 베트남 정부로부터 2대 훈장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공훈장을 받았다.

워싱턴에서
1974년 5월 1일

버니 엘 보어스(VERNE L. BOWERS)
미 육군소장 겸 비서장(Major General, USA, The Adjutant
General)

서 문

Preface

북베트남에 대항하여 40개국 이상이 남베트남 정부를 도왔다. 이 지원에는 경제지원, 기술지원, 교육지원, 인권신장(humanitarian contributions) 등도 포함된다. 수백 명의 자유진영 시민들이 의사, 교사, 기술자로 참여했다. 8개국은 군사지원을 했다. 미국, 한국, 타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자유중국, 사이공의 자유진영 군사지원군의 본부에 근무하는 스페인계 베트남요원도 군사동맹국이다. 이들 군사동맹국들이 지원한 내용은 전투부대, 육군의료팀, 개인 정치향상 고문단이다. 동맹국들 간의 지원과 합동작전의 수준은 수년간의 참전 결과로 정해졌다. 비록 남베트남의 곤경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동정심을 나타냈지만, 이들 국가로부터 지원을 바라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지원이 항상 쉽게 빨리 되지 않았다. 많은 국가들은 그들 국내 경제적·정치적 문제들로 인하여 도움을 거의 줄 수 없었다. 기타 국가들은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여기에 기여한 국가들의 노력과 그들의 도움을 전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제이다.

1967년 8월 1일 이후의 한국인 활동에 관한 논문자료를 종합하도록

도움을 준 사람들은 제6군의 전사담당인 허버트 에버던(Herbert Avedon)의 지도하에 활동한 제6군 참모요원들이다.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한국인의 활동에 관한 자세한 연구를 완성하는데 더욱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본 논문 초안 중 한국 분야에 대한 개정판을 내는데는 사무엘 포스(Samuel Forcer; 미 육군 태평양사령부) 중장의 도움이 컸다.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을 완성함에 있어서는 특히 최종안을 확정짓도록 하는 데는 리처드 헌트(Richard A. Hunt) 박사의 도움이 컸으며, 전체 작업의 진행과 제1장에 크게 기여한 분은 미 육군 존 에셜만(John E. Eshelman) 중령이다. 교정을 담당한 분은 로레토 스티븐(Loretto C. Stevens)이다. 이들의 작업과 지원으로 본 저서 “베트남 참전 동맹군 연구서”를 세상에 훨씬 쉽게 알릴 수 있었다.

워싱턴 D.C.

1974. 5. 1

소장 스탠리 로버트 라슨
준장 제임스 로턴 콜린 2세
워싱턴 육군부에서

목 차

contents

제 1 장	배 경(1961~1966)	11
	<i>The Background</i>	
제 2 장	타일랜 드	43
	<i>Thailand</i>	
제 3 장	필리핀	79
	<i>The Philippines</i>	
제 4 장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123
	<i>Australia and New Zealand</i>	
제 5 장	자유중국(타이완)	157
	<i>The Republic of China</i>	
제 6 장	대한민국	163
	<i>The Republic of Korea</i>	
제 7 장	남베트남에 대한 비군사지원 제공국가	213
	<i>Non military Aid to Vietnam</i>	
부	록	225
	1. 필리핀이 남베트남에서 사용한 전단지 / 225	
	2. 용어해설 / 229	

제 1 장 배 경(1961~1966)

The Background

베트남전쟁에 대한 자유세계 연합국들의 공헌을 알리기 위해서는 첫째, 연합국의 경제 및 군사지원의 공약을 이끌어낸 협상내용을 알아야 하며 둘째, 왜 북합지원이 고려되어져야 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미국과 동남아시아 협상단의 군사개입 공약의 초기 토의내용들은 미국 정책입안자의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들은 베트남을 한국처럼 자유세계의 힘을 공산세력의 확장을 막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시험의 장으로 생각했다. 한국전쟁이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공격을 응징하는 노력이었던 것처럼 베트남전도 베트남과 북베트남을 응징하는 노력으로 여겼다. 그들은 러시아와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공약이 확고했던 60년대 초에 다각적 지원이 고려되어졌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1961년 초기부터 자유세계 군대는 미국 군대의 전개와 이들의 특수 임무계획과 연계되어 파병되었다. 따라서 남베트남을 돕는 안건은 자유세계와 미국의 군사지원과 얽혀져 있으며 특히 남베트남 부대에 파병하는 것과 관련된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더욱 그랬다. 자유세계의 참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미군의 파병에 대한 배경을 언급할 필

요가 있다.

1961년 한 해는 전 국가들이 군대전개 방식을 두고 많은 고려를 한 해였으며, 미군의 단독 개입부터 다각적인 동남아조약기구(SEATO, 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의 개입까지 고려되었다. 5월에 국방차관 로스웰 엘 길패트릭(Roswell L. Gilpatric)에 의해 임명된 특별임무팀(TF: ad hoc task force)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건의하기를, 미국은 동남아조약기구의 책임 하에 있는 의무를 충족할 준비를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미국 국무부는 독자적으로 동남아조약기구 군대를 참전시키는데 필요한 협정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는 것을 건의했다. 더 나아가 합참의장은 남베트남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충분한 미군부대를 전개할 것을 건의했다.

이 제안서들은 미군의 베트남 전개에 관한 규모와 구성을 검토하게 된 국방부의 국가안보조치 비망록 제52호(National Security Action Memorandum 52)를 이끌어내게 되는 전초가 되었다. 대통령의 결심을 얻기까지 비망록은 계속 진행되어 갔다. 대통령 보좌관 월트 로스토우(Walt W. Rostow)의 1961년 10월 제안에 따르면 25,000명 규모의 동남아조약기구 군대로 하여금 남베트남과 라오스 국경을 경계토록 하며, 합참의장은 이를 수정하여 이 군대들로 하여금 중앙고원지대를 지키는데 사용하도록 했다.

이 두 안을 종합한 비망록의 초안은 국무부 차관 알렉스 존슨(Alexis Johnson)이 작성했는데 그는 두 가지 측면을 주장하였다. 그의 제안은 “중앙고원지대의 통제권을 확보하면서 국경을 통제한다. 베트남에서 미군은 처음부터 이 양대 임무를 수행하여 미국의 목표를 완수한다. 그 다음 베트남을 섬멸하고 비공산 자유정부를 남베트남에 수립한다”는 것이었다.

베트남원조를 위한 초창기 협상

Early Negotiations for Aid to Vietnam

1961년 10월 미국의 원조 증대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주 남베트남 대사 놀팅 2세(Frederick C. Nolting, Jr.)에 의해 전달되었고, 동시에 타이완 정부군 1개 사단을 남베트남에 파견해 줄 것을 미국이 검토해 달라는 남베트남 대통령 응오딘지엠(Ngo Dinh Diem)의 요청서가 전달되었다.

1961년에는 확고한 결심이 서있지 않았다. 미국의 관심은 라오스였다. 응오딘지엠 남베트남 대통령은 점점 외부간섭을 받는 것에 대해 망설이고 있었으며, 내부적 안보상황도 그렇게 악화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964년에 이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1962년 제네바협정에 의해 라오스 전쟁은 종식되었고 응오딘지엠 대통령 정부가 전복되고 그도 살해되었으며, 베트콩의 폭동이 빈번해지면서 남베트남은 정치적으로 불안해져 갔다. 1963년부터 베트콩에 대항하면서 후에 북베트남군과 대항하게 되는 베트남전쟁은 잘 풀려나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미국과 연합국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이슈는 당시로서는 매우 긴급한 이슈로서 고위정책위원회에 제기되었다.

미국과 연합국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신호는 1964년 4월 23일 존슨 대통령의 공식 메시지(Lyndon B. Johnson's public call on 23 April 1964)에서 나타났다. “더 많은 깃발들(more flags)이 포위된 친구들을 돕기 위해 모여들어야 한다.” 4월에 비슷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다. 동남아의 안전과 협정에 조인한 회원국들은 그 의무를 충족시킨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베트콩에 대항하여 참전한다는 선언을 동남아조약

기구위원회의 공식성명으로 발표하게 되었다.

맥조지 번디(McGeorge Bundy) 국가안전국 대통령 보좌관은 5월 25일자 비망록을 통해 촉구하기를, 동남아 연합국 회의를 소집하여 고강도 동남아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에 참가한 국가들은 베트남에 구체적인 군사지원 공약을 발표하도록 했다. 이 회의는 개최되지 못했지만 동남아조약기구의 옹호 하에 자유세계의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마지막 공식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등 몇몇 회원국은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대해 점점 실망했다. 따라서 1964년 12월 베트남에 대한 자유세계 지원이 이슈로 표면화 되었을 때 이 문제는 동남아조약기구의 공약내용 범위 밖에서 토의되었다. 남베트남에 대한 군대 지원 공약에 관한 안건이 1964년 12월 1일 백악관 회의에서 토의되었을 때 미국의 목표들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 첫째, 남베트남에서 베트남 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의 지원을 받는 베트콩의 작전 종식. 둘째, 동남아 국가들 중 비공산국가의 안전 보장. 셋째, 남베트남의 독자적 안보체제 재확립이다.

이 회의에서 주요 연합국들로부터 협력을 얻는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타일랜드는 미국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타일랜드 내의 폭동진압 노력을 강화하도록 요청받았다. 영국 수상 헤롤드 윌슨(J. Harold Wilson)은 미국의 위치와 고려되고 있는 지원에 관해 브리핑했다. 국무부의 윌리엄 번디(William P. Bundy)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게 추가 지원을 요청하면서, 만약 미국이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는 제2단계 전략으로 접어들면 소형 전투 부대들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필리핀에게는 1,800명의 지원 공약을 요청했다. 회의참석자들은 외부의 도움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부드러우면서 강하게 압력을 행사하도록 합의했다.

이 합의 결과를 베트남 주둔 미군지원사령부(MACV)의 참모장에게 비망록으로 보냈으며, 내용은 12월 1일부터 합의된 내용을 시행하며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필리핀에게 전투고문단 파견을 즉시 요청하여 미군이 비무장지대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전투부대를 전개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이 비망록이 16개국에 작성되어 보내질 때 이미 약간의 군사고문단과 대규모의 경제기술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2월 말 필리핀, 한국, 자유중국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남베트남에 군사지원을 제공할 태세를 갖추라는 요청을 받았다.

12월 1일의 백악관 회의는 연합국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방식, 그리고 베트남과 연합국 관계의 본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였다. 존슨 대통령은 새로운 극적인 효과를 내는 지원형태가 필요함을 느꼈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필리핀으로부터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 국무장관 딘 러스크(Dean Rusk)는 영국 역시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느꼈다. 한국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이 회의에서는 한국의 지원에 대해서는 토의되지 않았다. 연합국들로부터 군사·정치적 협력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남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 맥스웰 테일러 대장(General Maxwell D. Taylor)에게 통보 서신을 보냈으며, 그로 하여금 미국의 정책을 설명하게 하고, 베트남 정부 관리들과 협의한 후 바람직한 지원 방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백악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베트남 정부와 테일러 대사가 토의할 기본사항은 2월 1일 백악관 회의에 상정되었다. 따라서 베트남을 위한 연합국의 지원을 모색하는 발상은 미국으로부터 처음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도 연합국 지원의 본질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체 목소리를 내었다.

1964년 11월 테일러 대사가 미국으로 일시 귀국하기 전 남베트남 국가 의장 응우옌 칸 중장(Nguyen Khanh)과 만났을 때 칸 중장은 말하기를 남베트남은 군사 및 정책에 관한 추가인력만을 지원받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테일러는 남베트남으로 출국 즉시 존슨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12월 7일 남베트남 정부 관리들과의 회의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자유세계의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한국전쟁의 양상과 같은 국제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말했다. 이 회의의 이슈는 자유세계의 지원이 확고함을 명백히 밝히는 것에 있었다. 이 원칙에 응우옌 칸 중장과 까오 반 비엔(Cao Van Vien) 준장이 동의했다. 이 시점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정부의 입장과 태도를 염두에 두어야 했다. 이 나라들의 입장과 태도는 외국의 전투부대들이 파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만 경제지원, 군사고문, 민사활동, 인권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1964년부터 국무부로부터 나온 메시지들은 외국의 전투부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대파병이 고려되었던 초창기부터 미국은 다각적인 면에서 광범위한 군사지원의 필요성을 인지해오고 있었다. 베트남에 미군이 단독으로 개입할 것인가 아니면 연합국들과 함께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연합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미국에 의해서 해결되었다. 연합군의 지원요청은 미국에 의해 주도되었다. 남베트남 정부는 공식 지원요청서를 전달하는 단순한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듯 했다.

체스터 쿠퍼 백악관 아시아 담당국장은 그의 저서 “잃어버린 십자군(The Lost Crusade)”에서 미국의 문제점들을 적절하게 표현했다.

“더 많은 깃발(more flags)”의 기치는 1964년 후반에 느린 출발(slow start)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 이 기치는 워싱턴 당국으로 하여금 상당

한 공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압력을 행사하도록 강요했다. 더 성가시게 하는 것들 중의 하나는 더 많은 깃발의 기치는 사이공 정부의 무관심과 나태함으로 잘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일부 남베트남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책략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이 기치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미국에 의해 추진되는 광고 캠페인에 불과하다고 믿는 것 같았다. 따라서 미국은 자유세계지원을 구걸하는 애원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으며, 이를 위한 액션은 워싱턴에 떠넘겨져야 했다. 또한 경험이 부족하고 함량이 미달인 베트남 정부의 외교능력은 연합국의 지원을 주도적으로 요청하고 수행할 수 없었다. 베트남 정부는 정치적인 혼란, 국내 전쟁 및 외국 주재 베트남 대표부를 몇 개의 국가에만 설치하고 있다는 등의 제한 때문에 연합국들로부터 지원을 받아낼 수 없었으며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주재 외국 대사관들을 통해 남베트남을 지원하는 문제를 다루도록 했으며, 주월 미군지원사령부와 미국 작전임무단에게 요구되는 지원항목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게 하였다. 미국의 주재 외국 대사가 이 리스트를 가지고 해당 국가와 지원 의사를 의논하여 지원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베트남 정부에 통보하고, 베트남 정부는 공식적으로 그 국가에게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파병 연합군을 구성했다.

미국은 베트남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1965년 1월부터 더 많은 연합국을 참여시키는 것과 더 많은 전투부대를 파병시키는 것을 모색하게 되었다.

베트남전쟁이 비아시아계에 의해 지원받는 미국 주도의 전쟁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가 자국의 국민에게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설득시킨 방법으로 비아시아계 국가들도 자국의 국민들을 설득시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게 만들도록 노력했다. 이 결과, 남

베트남의 지원을 촉구하는 미국 외교활동의 초점은 라틴 아메리카로 옮겨갔다.

1965년 이전에도 미국 정부는 남미 국가들의 지원을 얻기 위해 관심을 보여 왔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관리들은 남베트남에 대한 기본원조보다는 공산주의자들과 대항하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활동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계속 시사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특별히 남베트남만 지원하지는 않았다.

남미 국가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관들은 주재 국가에 대한 탐색을 거친 후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남베트남 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에 관해서 이들 정부를 설득시키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이들 국가들에게 각자 남베트남을 지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도록 명확하게 촉구하였으며, 의료진, 기술진, 식량 및 의약품 공급도 환영한다고 제안했다.

베트남 정부를 대신하는 미국의 역할에 대해 남미 국가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온두라스와 니과라과는 합동 의료근무팀을, 브라질은 식량과 의약품 공급을 고려했다. 에콰도르와 페루는 그들 내부의 정치적 문제로 지원을 거절했다. 다른 남미국가들은 1965년 1월 말까지 결심을 유보했다.

최초 접촉 후 미국이 해야 할 임무는 이들 국가들이 제시한 남베트남에 대한 지원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남미 국가들이 제시하는 지원에 대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제시된 지원을 보장받기 위해 미국은 이들 남미국가들에게 재정지원을 제안했다. 남베트남을 대신하는 미국의 외교주도권이 남미에서 제한을 받게 된 것은 남미 국가들의 언론 때문이었다. “미국은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남미 국가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불리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로 인해 남미 국가에 대한 외교활동은 중단되었다.

자금 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 지원국가들은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자국이 부담하도록 권장되었으며 특히,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수송비용은 지원하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비용부담으로 지원을 약속한 국가들이 지원을 철회하지 않도록 하는 만큼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워싱턴 당국은 비용 분담의 문제를 정리하여 해외수당표준표와 유지비용표준표를 만들어 전 자유세계군인에게 적용하도록 했다. 지원국가에서 운영비용을 부담하지 못할 경우, 국제개발기관의 기금을 할당하여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국가에게 또한 보급품과 장비를 공급하도록 요청하였다. 지원 프로젝트의 본질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원국가들은 각자 일정한 기준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의 기준은 세 가지로 명확하게 정의되었다. 첫째, 지원 프로젝트는 자국의 능력으로 통제 가능할 것. 둘째, 파병국가에 직접 공헌될 것. 셋째, 우선순위가 높은 타 프로그램에 공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남베트남에서 사건들이 빠르게 진행될 뿐 아니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짐에 따라 미국은 연합국들로부터 비전투부대를 지원받는 것 이상의 비상계획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1965년 2월 7일자 로 맥조지 번디가 대통령에게 보내는 비망록에서, 그는 미국의 도움과 조치가 없다면 베트남은 1966년까지 붕괴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북베트남에 대항하여 군사적 압력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또 2월 초 합참의장은 해병 원정여단을 다낭에 파병할 것을 건의했다.

1965년 2월, 합참의장이 웨스트모랜드 대장에게 통보한 내용은, 미국은 최고위층에서 주요정책을 결정했으며, 남베트남에서 현재의 불

리한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취할 군사적인 노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기초로 미국과 연합국들은 베트남에 안정적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었다.

미국 합참은 2월 20일, 위 내용을 확대하여 한국의 육군사단을 파병시켜 폭동진압과 기지 안전작전을 수행시킨다는 것을 건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예상 병력은 21,000명으로 이 숫자는 미국이 추가로 전개시킬 병력수에 해당된다. 이 메시지에서 군사력을 전개할 경우 따르는 두개의 걸림돌을 해결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건의되었다. 이 걸림돌은 첫째, 원활한 군수보급지원과 둘째, 연합지휘체계의 확립이었다. 연합지휘체계는 미군지원사령부와 베트남군, 미국사령부와 연합과병국 군대의 관계를 정립하여 베트남에서 전투작전을 적절하게 협조시키는 것이었다. 합참의장은 태평양사령관과 미군지원사령관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는데 그 내용은 남베트남의 군사적 상황으로 볼 때 직접적인 군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합참의 건의서에 관한 의견과, 여기에 제시된 군수 및 지휘축선에 관한 의견 및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에 관한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테일러 대사는 합참의장의 제안서에서 다낭에 해병대를 파견하는 것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보이면서 다낭의 안전 보장을 위해 1개 대대 착륙팀을 건의한 웨스트모랜드 대장을 지지했다. 미국이 베트남에 전투부대를 전개하는 것을 승인한 후 베트남 정부도 이에 대해서 곧 동의했다.

베트남의 북남쪽에 다국적 전투부대를 배치하는 것에 대한 미국 대사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오스트레일리아 대사도 테일러 미국 대사처

럼 그런 식의 부대 배치는 외국인에 대한 베트남 국민의 혐오감정을 자극할 것이며 베트남 정부로 하여금 미국 정부가 더 큰 부담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테일러 대사가 승인하지 않은 다국적군 전개에 대한 아이디어는 육국 참모총장 헤롤드 케이 존슨 대장에 의해 다시 제기되었다. 존슨 대장의 의견은 1965년 베트남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시찰을 마치고 작성한 귀국보고서에 나타나 있다. 보고서 14번째 항목에서 그가 건의한 것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로 하여금 지역군 훈련센터를 운영하게 하며, 이를 통해 베트남전쟁은 단순한 베트남 민족 내부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과 공산주의자들에 대항하는 세력이 공산주의자들에게 대항하는 전쟁이라는 이 전쟁의 본질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킬 책임을 부여하자고 건의했다. 국방장관은 이에 동의했지만 그도 역시 한국 사단의 전개를 제안했다. 그는 존슨 대장의 건의에 동의하면서 언급하기를 미국은 베트남 정부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어떤 것이라도 보내야 한다고 했다. 존슨 대장은 또 동남아조약기구에서 청원하는 내용, 즉 라오스를 통하는 남중국해와 메콩강에 이르는 비무장지대에 침투하는 적을 저지하기 위해 4개 사단을 전개한다는 것을 수락하게 하려 했다.

1965년 4월은 2월처럼 자유세계의 전투부대를 전개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달이었다. 미국은 1964년 12월부터 1965년 3월까지 파병 전투군, 미국과 자유진영, 남베트남 모두를 위할 수 있는 능동적 지원 정책에 관한 공약을 끝까지 추진해 나갔다. 그 해 4월, 미국은 원칙적으로 신중한 자세로 베트남에 전투부대를 파병할 것이며,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며, 남베트남 방어에 관한 열린 동반자임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4월 1일 자유세계 군대 참여국들은 고

강도 정책토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로부터 군대를 지원받는 것을 포함하여 존슨 대장의 “21·포인트” 제안서가 승인되었다. 자유세계 전투군의 필요성은 4월 3일까지 계속 토의되었다. 당시 테일러 대사는 미국에 있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모두 존슨 대장의 제안서에 나타난 아이디어를 선호했지만, 유일하게 준비된 군대를 가지고 있는 한국군을 파병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다. 베트남 정부 또한 한국군의 파병을 꺼리는 것처럼 보였다. 또 다른 관리들은 오스트레일리아로 하여금 구축함 한 척을 미국 제7함대와 함께 작전하도록 요청해 주기를 원했다. 베트남으로 복귀하는 테일러 대사에게 미국의 최종정책결정을 설명하게 하여 베트남 정부와 타 파병 지원국가들이 이 정책에 협력하도록 했다. 자유세계전투부대를 모색하는 실질적인 결정은 4월 6일 확정되었으며 국가안전보장조치비밀록 제328호(National Security Action Memorandum 328)로 발표되었다. 국무부는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정부와 협의하여 파병국의 군대와 미군부대를 파병하여 신속하게 전개시킬 수 있도록 전투단위 편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한국은 1965년 4월 3일 이미 비공식적으로 전투부대 파병 의지를 천명했다.

다음날 4월 7일, 존스 홉킨스 대학 연설에서 존슨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평화를 원하며, 미국인은 베트남전에 개입하는 것을 망설인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미국이 북베트남에 군사력을 사용하여 압력을 가하려는 것은 평화와 전쟁 반대라는 미국의 목적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 목적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것일 것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베트남에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이 해야 할 역할이 바뀌

고 있다. 비록 여론조사는 남베트남의 인력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양과 질 양 측면에서 이곳에서의 목적을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더 많은 군사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웨스트모랜드 장군은 4월 3일, 남베트남에 북베트남군 제325사단 예하 부대들이 출현하고 있다는 보고를 했다. 이 보고 내용과 제1군단 및 제2군단 전술지대에서 발생하는 위험한 안보상황은 자유세계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외교적 검토를 할 것과, 미국이 2~3개 사단을 파병하도록 하는 합참 계획서를 준비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었다.

자유세계 군대를 파병한다는 결정과 함께, 이를 위한 정책과 계획이 입안되었으며, 부대전개와 지휘관계 확립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자유세계 군대의 부대전개와 지휘관계를 위한 제안서를 합참의장과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에게 메시지로 요약하여 보고했다. 웨스트모랜드 대장의 건의에 따르면, 한국 사단은 미 해병군단의 파병부대에 배속되지 않고, 비무장 지대로 침투하는 적 차단 임무를 수행할 다국적보안군의 기동부대로서 편성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한국군이 항구에 도착할 때와 기지에 배치될 때의 안전을 고려하여 쩡응아이(Qunag Ngai) 지역에 도착시키기를 원했다. 태평양사령관 그랜트 샤프(Grant Sharp) 제독은 이것을 4월 10일 구체화했다. 자유세계의 부대들은 연합참모대표부를 구성하는 미국 여단에 예속 혹은 배속시키며, 이들 부대의 본국 정부에게는 파병과 귀국에 따른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며 미국에게는 다국적 부대들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한을 갖도록 하였다.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다국적군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메커니즘을 제안했다. 이 메커니즘은 연합지휘통솔 훈련을 포함하고 있

으며, 다음의 지휘관들에 의해 지휘통제 되었다. 베트남군 최고사령관, 미군지원사령관, 미군 장군에 의해 지휘되는 베트남의 소형 단독 혼성 참모부장, 연합사의 베트남 부의장, 다국적참모부 사령관이 이 메커니즘의 지휘훈련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 사람들은 전략 지도를 위한 패러미터(매개변수), 개전규칙, 지휘관계를 개발하게 된다. 웨스트모랜드 대장이 창설하기를 원했던 소형 연합사령부는 다국적군이 남베트남에 배속될 경우 다국적군을 지휘하며 감독하게 된다. 각 국가별 참모본부는 단위부대장과 베트남 미군지원사령부 및 베트남군 총사령부 내부에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남베트남 정부 관리들은 이후 4월에 별도회담을 갖고 연합참모부의 이슈를 다시 토의했다. 4월 28일, 웨스트모랜드 대장(General Westmoreland), 응우옌반티에우 대장(General Nguyen Van Thieu), 즈영반민 중장(Major General Duong Van Minh)이 모여 회의를 한 결과, 자유세계군(Free World forces)의 첫 임무는 남베트남군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기지안전을 확보하며, 남베트남 지휘관들과 협력하여 기지외곽 지역의 순찰을 담당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즈영반민 중장(Major General Duong Van Minh)은 처음에는 연합참모부의 개념을 선호했지만, 지금은 MACV 다국적군지원사무(International Military Assistance Office)에서 요구되는 참모부 메커니즘을 제공해 주는 것을 더 원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더 검토된다. 남베트남 주재 오스트레일리아 대사와 다음날 가진 회담에서 웨스트모랜드 대장(General Westmoreland)은 사령부 배치에 관한 문제를 다시 끄집어냈다. 오스트레일리아 대사는 자국의 군이 자유세계군(Free World forces)에 합류되어 다국적 군사안전 특별임무팀(international military security task force)으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확신이 서 있지 않았다. 그러나 본국에서는 파병되는 자국의 대

대를 독립 운용토록 하는 것보다 미군부대와 함께 여단으로 편성되어 운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대사는 베트남 미군 지원사령부(MACV)의 다국적군지원사무소(International Military Assistance Office)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대대를 포함하는 자유세계군(Free World forces) 부대와 남베트남군 부대의 지휘통제와 관련되는 참모부 메커니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국 정부는 한국군이 남베트남에 주둔하는 미군부대에 편입되는 것을 원했으며, 자유세계군에 편입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미군에 편입된다면 한국의 파병이 한국의 독자적 자유의지에 의한 결정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한국군은 미국에 종속된 의무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 우려에 대해서 미국은 남베트남 정부가 한국 전투부대를 다시 요청하기 전에 다시 이에 대한 장단점을 평가하기로 했다.

4월 15일, 워싱턴은 남베트남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을 더 많이 파병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며 결국 파병을 확대하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언급했다. 테일러 대사는 미군의 파병 확대결정에 대해서 한발 물러섰다. 그가 워싱턴을 방문(3월 28일~4월 5일)하여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은 미군의 증원 파병 가능성에 관한 토론을 주의하며 자제하려고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4월 7일 존슨 대통령의 연설이 있는 후 워싱턴으로부터 타전되어 온 전신에서 미군의 증원파병을 추진시키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뜻을 알아차렸다. 이에 대한 테일러 대사의 반응은 2가지였다: 첫째, 그는 미군 여단을 비엔호아(Bien Hoa) 혹은 붕따우(Vung Tau)에 파견하는 것을 중지하고 이 문제를 4월 이후로 이미 계획되어 있는 호놀룰루 회의에서 다시 다룰 것을 요청하였다. 둘째, 그는 별도의 메시지를 통해 미국의 훈령과

워싱턴의 합리적 의도를 남베트남 정부에 전달하여 미국의 새로운 정책과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자유세계군의 실체를 지상전투부대로 발전시키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테일러 대사는 비록 미국과 남베트남이 성공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을 지원하여 남베트남을 내전으로 몰아가면서 이 지역의 공산화를 획책하는 북베트남을 저지시켜야 하는 것은 미국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군사적인 무력을 행사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타당하지만 현재까지 사용해 오고 있는 방법들로서는 미국과 베트남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스케줄 안에서 달성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합참의장은 남베트남의 인력 상황을 평가한 후, 남베트남 육군의 인력 자원은 바로 닥칠 상황에 대처하여 작전 기동을 실시할 수도 없을 만큼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 전쟁이 1966년 이후로 연장되어 질질 끌려 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20개 대대 이상의 신식병력에 해당하는 군사력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미국 정부는 이 주장을 타당하게 받아들이고 남베트남 정부로 하여금 이 군사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남베트남 정부가 이 군사력을 양성해 낼 수 있다면 미국은 동맹국들이 참전을 하도록 주선하며 노력하겠다고 테일러 대사를 통해 발표했다. 이 경우 한국 1개 전투연대, 오스트레일리아 1개 보병대대, 뉴질랜드 1개 포병중대 및 1개 탱크중대, 필리핀 1개 대대를 파병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이 경우 미국은 이들에게 필요한 군수 및 전투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테일러 대사는 이 내용이 남베트남에 전달되면, 남베트남 정부는 과연 자유세계지원(Free World support)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의구심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테일러 대사가 제시한 내용은 1966년 4월 20일 호놀룰루 회의에서

해결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군 1개 대대를 붕따우(Vung Tau)에, 한국 군 1개 연대 전투단(3개 대대)을 꽝응아이(Quang Ngai)에 전개시키도록 승인되었다. 테일러 대사가 자유세계군(Free World forces)을 참전시키기 위해 기초한 제안서와 호놀룰루 회의결과 나온 훈령 내용을 남베트남 정부는 받아들였다. 이 훈령의 끝맺음 부분에서 “당신 테일러는 남베트남 정부와 외국군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합의를 완전하게 이루어 낼 것이며, 지휘관계, 부대배치 개념, 부대배치 지역에 대하여 제기될 문제점들을 한 가지씩 해결하면서 최종합의를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호놀룰루 회의에서 결정된 것에 대한 수정은 6월 중순 경에 남베트남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한국군 1개 연대 전투단 대신 1개 사단을 파병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었다.

또한 호놀룰루 회의에서는 미국군과 연합지상전투군의 작전에 관한 일반개념을 설정하여 남베트남군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 회의에서 많은 가정과 가상현실을 이용하여 토론을 뒷받침 했는데 그 내용은 각국군은 자국지휘부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군대를 타 연합국의 군대처럼 남베트남군의 작전통제 하에 두지 않으며, 특별한 경우 남베트남군은 미군의 작전통제 하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미국군은 남베트남군의 작전통제 하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전투단위 부대들은 미군 여단급 이상 지휘관의 작전통제 하에 둔다. 미군과 연합군의 임무는 남베트남군에게 조언을 제공하며 전투수행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5월 초순에 미 지상군의 공약에 포함된 지휘관계와 절차를 추가했다. 4월에 처음으로 토의된 다국적 군사안전특별임무팀(international military security task force)의 중요한 개념들을 정립

했다. 이 개념에 따라 파병 동맹국의 연합군은 미군 지휘관의 작전통제와 연합참모부 예하의 여단으로 편성되었다. 미국 여단은 다국적군사안전특별임무팀의 핵심이 되었다. 베트남의 미국 여단은 본토의 여단편성과 유사한 방식으로 편성 운용되었다. 파병국의 연합군 임무는 3단계로 설정되었다. 제1단계-기지의 안전확보, 제2단계-기지안전 확보 후 적진 깊숙이 순찰 및 공세 작전을 감행하며 베트남 기지지역으로 이동하여 정찰 실시, 제3단계-남베트남군과 협력하여 원거리 야전에 있는 적부대 정찰이었다. 미군지원사령부(US Military Assistance Command)는 미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며, 남베트남에 도착하는 각국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도착하는 즉시 장악하였다.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미군의 작전통제권은 파병동맹국의 연합군 지휘관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되풀이해서 강조했다. 베트남이 비무장지대를 통해 침투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기된 다국적 군사안전군(international military security force)의 개념과 파병국의 연합군과 미군을 여단으로 편성하려 했던 시도들은 나중에 모두 무산되어 없던 것이 되었다.

지금까지 언급된 국가 이외의 국가들과 남베트남은 호놀룰루 회의 내용에 대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들 국가들은 정치적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남베트남의 경우, 가장 심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그것은 비무장지대 주변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적과, 라오스를 통해 침투해 오는 적 때문이었다. 그러나 3단계 임무의 개념은 포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 자유세계 동맹군의 지휘와 통제에 관한 협정을 위한 계획이 1965년 5월에 논의되었다. 1964년 6월부터 10월까지 기간동안, 자유세계(Free World) 활동에 대한 지휘 및 통제를 맡은 부서는 베트남군지원사령부의 J-5(계획 및 정책국) 예하의 작은 참

모부였다. 자유세계의 활동이 많아짐과 동시에 이들의 공헌과 군사기술 지원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이들을 위한 독립 참모부서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이에 대한 제1단계 조치로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1964년 12월 다국적군 지원 사무소(International Military Assistance Office)를 설립하여 미군지원사 부사령관 J-5의 참모감독을 받도록 했다. 1965년 5월 자유세계전투군 구성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진 후부터 이들에 관한 차후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원활한 지휘관계가 유지되기 시작했다. 웨스트모랜드 대장과 즈엉반민(Duong Van Minh) 중장은 4월 초에 제안된 동맹국연합참모부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다. 이 그림은 미국과 베트남 야전사령부들을 통합하는 한 개로 구성되는 연합참모부서가 아니었다. 각국의 독자 지휘계통을 통해 연구와 분석과 지침을 준비하는, 즉 1개 파병국에 각자의 참모부서를 유지하는 지휘체계를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다.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1개의 연합협력참모부 창설을 제안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느꼈다.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콜린스 2세(James L. Collins, jr.) 준장을 자기의 특별 대표로 임명하여 남베트남군, 자유세계군(Free World forces)의 작전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것은 웨스트모랜드 대장에게는 지휘협정을 맺는 것만큼 힘겨운 것이었다.

자유세계군(1965~1966)

Free World forces

1965년 5월 자유세계의 공약은 존중되기 시작했다. 이는 파병 동맹국 정부들이 공식적으로 군대를 보내고 전개할 준비를 하기로 동의했기 때문이었다. 제일 먼저 지원한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였다. 오스트

레일리아는 5월에 특별군을 보내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본부, 왕실 오스트레일리아 연대, 제79통신부대, 1개 군수지원 중대의 파병이었다. 이 분견대(contingent)는 6월 초에 도착하여 미 제173공정여단에 배속되어 비엔호아(Bien Hoa)에서 작전했다. 군사운용협정도 이미 체결되었는데 이에 서명한 사람들은 오스트레일리아군 사령관, 남베트남군 사령관,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웨스트모랜드 대장, 미군지원사령관 및 미 행정 및 군수지원 사령관이었다. 9월에 자금운용 협정이 완료되었는데 이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훗날 상환하는 방식(reimbursable basis)을 택했다. 9월 말에 오스트레일리아는 그들의 보병대대에 105미리 곡사포 대대와 1개의 야전공병부대와 1개의 공중정찰기를 증강시켰다. 추가된 통신부대와 함께 1965년 말 오스트레일리아의 전투병은 1,557명에 이르렀다.

뉴질랜드 정부는 공병과견대를 전투부대로 교체하기로 결정하였다. 105미리 곡사포 포대의 파병을 결정한 것은 1965년 3월이었다. 7월 21일 이 포대는 남베트남에 도착하여 미군 제173공정여단에 배속되었다. 이 포대의 주 임무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대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행정 및 군수 지원은 오스트레일리아처럼 미국이 우선 제공하며 차후 뉴질랜드 정부가 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으며, 웨스트모랜드 대장의 작전통제 하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1965년 말 오스트레일리아와 나란히 싸운 뉴질랜드 장병은 119명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 대한 웨스트모랜드 대장의 다음 목표는 다음 해에 1개 완편여단으로 전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음해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미국 다음으로 1965년에 최대지원을 한 국가는 한국이다. 1월에 한국 정부는 공식요청을 받고 민사활동분야에서 근무하게 될 1개 공병대를 TF로 편성하여 파병했다. 이 부대는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자체경비부대를 보유했다. 비둘기부대의 주력은 3월 16일 도착하여 지안(Di An) 지역에 기지를 잡았다. 군사운용협정은 웨스트모랜드 대장과 채명신 중장 간에 체결되었다. 한국 부대는 자유세계군사지원정책위원회에 의해 설정된 기준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위원회의 구성은 미군지원사 참모장 리처드 스틸웰(Richard G. Stilwell) 소장(훗날 이 위원회의 지휘관으로 대체됨), 수석한국지휘관, 위원회 의장 겸 연합일반참모장 까오반비엔(Cao Van Vien) 준장으로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자유세계군(Free World forces)에게 작전통제가 아닌 작전지침을 제공했다. 운용협정서에서 한국군 부대는 주어진 지역에서 전반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과 남베트남 양측의 요청을 수락한 한국 정부는 8월 12일 육군 보병 감편 1개 사단, 1개 해병연대, 일반지원부대들을 동반한 해병단 위부대들, 육군으로 구성된 1개 야전지원사령부를 파병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신 군사지원정책위원회는 작전지침을 계속 하달하였으며 미국은 군수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1965년 11월 까지 한국 수도보병사단(감편)과 제2해병여단이 깜란만과 꾸년(Carm Ranh Bay & Qui Nhon)에 전개를 완료하였으며 이들은 안전임무를 수행했다. 한국군 지휘관과 웨스트모랜드 대장의 회담 후, 미국 장군급 지휘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며 필요시 사실상의 명령도 하달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하였다(한국부대에 대한 지휘와 통제 협정서는 다른 국가의 그것과는 다르게 별도로 세부적으로 취급되었다). 이때의 한국 군사력은 20,620명이었고 향후 증원에 관하여 많은 토의가 있었다.

필리핀, 타일랜드, 자유중국도 베트남을 지원했지만 고문, 민사활동

을 수행할 비전투지원이었다. 1965년, 필리핀 대표단을 추가로 파견하기 위한 노력이 행해졌으며, 특히 2,000명의 민사활동팀을 파견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국내 정치문제로 결심을 내리지 못했다.

1965년 말 워싱턴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 자유세계국가들에게 남베트남에 대한 지원에 참여하거나 이미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지원을 확대하도록 촉구하며 협상했다. 이 노력의 결과 1966년에 자유세계의 지원은 상당히 증대되었다.

대부분의 국가는 민사활동과 의료지원을 원했으며 직접적인 군사지원은 꺼렸다. 비자유세계의 여론 때문에 독일과 자유중국은 지원의 폭과 방식에서 제한을 받았다. 독일은 베를린에 가해질 소련의 새로운 압력 행사를 우려했고, 자유중국은 포모사 해협의 중국공산당 반응을 우려했다. 인도와 캐나다도 역시 지원의 종류에서 제한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국제통제위원회의 회원국이었기 때문이었다. 한국과 타이완은 국회의 반대 때문에 제한을 받았다. 1966년 3월부터 6월까지 베트남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였으며 남베트남의 장래는 불확실하고 위험하게 보였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지원하기를 망설였다.

베트남 파병에 관한 정치적 논쟁은 한국 정부 내에서 분분했지만 공개적인 노력이 부족하여 한국군 파병 부대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부진했다. 1966년 1월 8일 한국 주재 미국대사는 국무장관의 지시로 한국과 협상을 시작했다. 4월까지 한국군 1개 연대를, 7월까지 1개 사단을 파병하는 것과 파병되는 부대의 필요한 전투지원 부대와 전투근무지원 부대들을 동반하도록 합의되었다.

협상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3개의 현안들이 제기되었으며, 미국은 이에 동의했다. 첫째, 한국의 방어능력이 위협해지지 않아야 한다. 둘

째, 파병부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지 말아야 한다. 셋째, 한국은 참전으로 경제적 이득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유리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1월 29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1개 연대와 사단을 추가 파병하도록 승인을 받았다. 이 발표에 부응하여 미국은 한국군의 전개에 소요되는 모든 추가 비용과 장비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동의했다; 합의된 규모의 해외수당 비용 지급, 사상 및 질병 사례금 지급, 한국군 병력과 장비 수송비용 일체를 미국이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수주 동안 토의와 비공개 정치회의를 거듭한 후 한국 국회는 추가 파병법안을 통과시켰다.

1966년 2월 17일 타이군 지원단이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타이 공군 부대가 이 지원단에 예속되었다. 3월, 미군지원사, 베트남 및 타이군 지원단 사이의 군사운용협정이 체결되었다.

3월까지 연합일반참모부는 임시 한국군 군구조를 편성하여 한국 군사지원단장에게 제시했다. 군구조는 1개 보병사단과 연대, 증강된 한국군본부, 군수부대들, 1개 공병대대, 1개 이동외과병원 및 부수의료부대, 직접지원 병기 및 탄약부대, 병참근무단, 통신부대들 및 수송부대들 총 23,488명의 장병이었다.

더 많은 지원부대가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3월 8일 1개 대대를 증강하여 본부와 특수항공근무소대, 장갑차, 포병, 통신, 보급 및 수송, 야전 앰블런스, 병기 및 정비부대들을 갖춘 2개 대대급의 특수군을 편성한다고 발표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965년 12월부터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주요 토론을 계속하였지만 비난이 일 것을 우려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여기서 이루어진 공약은 오스트레일리아의 군사력을 4,500명 이상으로 증강시킨다는 내용이었다.

동시에 베트남 군사지원참모부(MACV)와 오스트레일리아 연합근무 계획팀은 신 군사운용협정을 체결하고 추가로 증강되는 부대를 프억 띠이(Phuoc Tuy) 지역에 배치하기로 확정했다. 선발부대는 4월 12일, 주력부대는 선발부대를 후속하여 베트남으로 향했다.

오스트레일리아 군의 증강 조치 이후 뉴질랜드 정부도 남베트남에 주둔하는 자국군을 소폭 증강하기로 결정했다. 선거철에 따르는 부담을 무릅쓰면서 뉴질랜드는 오스트레일리아 군을 지원하는 자국의 파병 포병부대에 2문 이상의 105mm 곡사포와 27명의 장병을 증강시켰다. 또한 궤년(Qui Nhon)의 의료수술팀을 7명에서 13명으로 증가시켰다.

자유세계군의 투입을 준비하기 위해 존슨 대통령은 1966년 3월 5일 국방부 추가경정 세출예산 법안에 서명하였으며, 국방장관실에서 맡고 있던 군사지원프로그램 자금의 공급책임을 남베트남 주둔 육·해·공군 책임으로 전환했다. 예산과 자금지원의 변경은 남베트남 지원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자유세계군(Free World forces)으로 하여금 해당 육·해·공군의 군종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군사지원프로그램 채널을 통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것은 계획 수립을 쉽게 만들어 주었고, 남베트남의 군수체계를 간소화시켜 예산과 자금이 해당 부대로 수령·지원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결했다.

4월 초 합참의장은 태평양사령관에게 질문하여 자유세계의 지원가능성을 타진했다.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합참 차원의 검토를 위해서였는데 미국이 이들 국가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하며 이들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제공받기를 원하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검토 배경은 그 해 초 열린 호놀룰루 회의에서 결정된 미군부대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자유세계 국가들로부터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함

이었다. 이들 국가에게 요청하기 전 문제가 되는 분야에 대해 협의했다. 첫째로 협조되어야 할 사항은 전쟁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가시적 효과를 즉각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부대를 구성하려면 그 부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다. 기타 협조해야 할 것들은 지휘 통제, 안전, 작전지역, 언어장벽, 국적에 따른 특수상황, 종교 관습, 남베트남의 수용수준, 항공부대를 입주시킬 지원국의 능력 등이었다. 결론적으로 자유세계군의 부대 임무는 작전, 군수, 행정면에서 미국의 지원, 남베트남의 지원, 지원국 자체의 능력.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되어야 했다.

군지원사령부는 태평양사령관 샤프 제독(Admiral Sharp)에게 파병부대 목록을 전달했는데 이 목록은 자유세계 군사지원군이 실질적으로 파병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대들이다. 육군목록은 보병대대, 방공대대, 야전포병대대, 공병건설중대, 경장비중대, 기타공병지원과견대, 의료후송부대, 유류저장부대, 수송부대, 예인선 부대들이었다. 공군은 F-100, F-104, F-5, B-57 항공대와 비엔 호아(Bien Hoa)에 F-5 비행대를 배치시킬 수 있는 자유세계부대들, 탐조등 관측부대들과 항공통제에 운용될 요원, 항공연락장교와 지휘소와 수송단과 비행단에서 근무할 장교들이었다. 그러나 추가 항공력이 투입된다면 설비를 늘려야 한다는 것도 인식되었다. 해군은 해안선 작전을 위한 지상초계함(surface patrol craft), 해상사격을 위한 구축함급의 선박, 정찰항공기, 해상지도 탐사를 위한 조사선과 군수지원선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지원능력과의사를 검토함에 있어서 태평양사령관의 언급은 타일랜드와 말레이시아는 그들은 특수지역에 전념하기 때문에 여력이 약했다. 그리고 한국에게는 미국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모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지원을 더 증강시키기 위해 미국이 더 이상 투자한다고

해도 이득 볼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과 자유중국은 전 분야에서 더 지원할 수 있지만 정치적 문제와 중국공산당의 전쟁 위협 때문에 제한이 있다고 언급했다.

1966년 4월 사이공에서 미국이 수행해야 할 임무중의 하나였던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선정하여 군 옵서버팀을 초청한다”는 개념은 무기한 중지되었다. 이 옵서버들은 폭동진압 작전을 지원하고 자문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이 아이디어는 1965년 8월 초에 진행되었지만 시작조차 해보지 못했다. 그러나 타 국가로부터 군사 옵서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그리스와 네덜란드의 군사장교단은 관심을 보였지만 본국 정부에 보고할 수 없었다. 아테네 주재 미 대사는 나토국에서 1개 이상의 국가가 옵서버로 참관하기 위한 첫 조치를 취하면 그리스 정부는 아마 옵서버를 참관시킬 것이라는 암시를 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 아이디어를 좋아했다. 만약 네덜란드 국방장관 앞으로 미국과 남베트남의 공동 이름으로 초청장을 보내주면 옵서버를 참관시키겠다는 의향을 밝혔지만 무산되었다. 9월 말에 일본자위대의 옵서버 참관단이 남베트남을 방문하여 여러 부대를 관람했다. 이 방문은 일본대사관과 미군지원사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미국 측은 남베트남 내에서의 교통을 지원했다.

베트남의 군사적 상황은 안정되어 가는 것 같았지만 정치적으로는 더 혼란스러웠다. 베트남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은 한국 정부가 군대를 증파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언론과 영향력 있는 정부 고위관리들은 군대를 추가 파병하여 전개시키는 것을 연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 이러한 제안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적이 나온 후, 5월 25일 한국 국방장관은 남베트남에 대한 지원공약을 재천명했다.

필리핀의 지원은 6월 베트남지원 법안이 통과되면서 현실화되었다. 이 법안은 예상하지 못했던 반대와 새 대통령 선거 때문에 수개월 지연된 후 통과되었다. 또한 필리핀 전투부대를 보내기로 원했던 대통령 후보 디오다다 메카파갈(Diosdada Macapagal)의 최초계획은 변경되어 민사활동단(Civid Action Mission)을 파견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이 민사활동단은 1개 공병건설대대, 의료 및 지역개발팀, 1개 보안대대, 1개 야전포병 포대, 군수 및 본부부서로 조직되었으며 총 2,068명의 인원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이 민사활동단이 떠이닝 시(Tay Ninh City)의 외곽에 주둔 캠프를 완성한 때는 1966년 8월 중순이었다.

적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자유세계군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검토되었다. 1966년 8월 1일 임무위원회 회의에서,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제 324-B 북베트남군 사단이 비무장지대를 통해 대규모로 침투했으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한다는 의제를 상정하여 회의를 주재했다. 제시된 대안 중 하나는,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비무장지대 남쪽에 운용하는 것이었다. 1개 여단급 부대의 한국군, 오스트레일리아군, 뉴질랜드군 및 미군을 연합한 캔자스(KANZUS) 여단을 편조하여 베트남군 제1사단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캔자스 여단은 미 해병군단의 장군이 지휘하며 2개의 미해병 대대, 1개의 한국군 보병대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군의 본부로 편조하여 작전과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지휘관은 베트남군에 대해서도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베트남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작전협력이라는 명칭으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했다. 새로 편조되는 캔자스여단의 가치는 북쪽에서 침투하는 적을 막는 다국적군이라는 점이 었다.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국제통제단(International Control Commission)의 옵서버들이 이 다국적군과 함께 위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 이유는

다국적부대 내의 각국 부대는 국제통제단의 자국요원들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캔자스 부대의 주둔 위치도 이 국제통제단 요원이 쉽게 방문 및 접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했다.

임무위원회는 이 개념을 좋게 보았다. 그 이유는 만약 다국적군이 전개될 때 국제통제단의 지지를 이끌어내면 평화협상 시 미국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합참의장은 이 제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미국 정부는 국제통제단의 건의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군사임무수행을 하면서 얻어낸 추가적 이득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남베트남 주재 미국대사 로지(Henry Cabot Lodge)는 미국 국무장관에게 자기의 결론도 긍정적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의 재외 대사들은 모두 이 프로젝트를 좋게 여기며 동의했다.

8월 21일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캔자스(Kanzus) 프로젝트의 지침과 승인을 서둘러 줄 것을 국무부와 국방부에 요청했다. 북쪽 광찌(Quang Tri) 지방에 적정규모의 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10월 1일까지 수행되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북동의 몬순(monsoon) 우기가 시작되어 기지캠프 건설에 심각하게 방해받으며, 보급소의 설치와 보급품의 저장, 통신선로 개선, 적절한 군수행정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부대 편조에 소요되는 시간 면에서 단위부대를 새로 결합하여 주둔지로 설정하는데 할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 그가 서둘러 승인해 주기를 요청한 이유였다.

다른 어려움도 나타났다. 캔자스(KANZUS)라는 이름은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머리말을 결합한 부대 이름인데 이를 개정하여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름으로 다시 바꾸도록 요구되었다. 비무장지대 안에서 시행할 작전 기본 규칙도 새로 고려하도록 요

구되었다. 남베트남군의 작전책임지역으로 캔자스 부대가 기동해 들어가는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작전 기본규칙을 변경하라는 것이었다.

11월이 끝나면서 캔자스군은 북베트남의 제1군단으로부터의 위협을 저지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의 군단은 3개 사단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적 군단은 주변의 지원군으로부터 무제한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캔자스의 능력과 군사력을 능가했다. 한국군지원사령부의 검토결과 다국적군을 운용하는 개념은 타당하지만 실행하는 시기는 문순 우기가 끝날 때까지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1966년 10월 초 웨스트모랜드 대장에게 영국 구르카 여단(British Gurkha Brigade)의 남베트남 전개 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청되었다. 구르카는 네팔 출신 용병인데 1815년 이후부터 영국 육군의 일부가 되어 왔다. 이들이 참여한 모든 전투에서 탁월한 전공을 세웠기 때문에 “탁월한 군인(Excellent Soldiers)”이란 호칭을 얻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르카는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전체 14,500명 중에서 500명이 특정지역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들을 영국군 용병에서 뺄다는 것을 확정된 것은 런던 주둔 미국 육군 대표와 영국 육군의 부관감(Adjutant General)이 가진 회의에서였다. 부관감은 구르카 부대를 철수시키는 것은 당장은 안되고 1년 후에 시작하여 3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르카 부대를 베트남에 파병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구르카 부대는 영국 시스템으로 조직되고 훈련되었고 소대급 이상 부대는 영국 장교에 의해 지휘되고 있었다. 구르카 여단은 8개 보병대대, 1개 공병대대, 1개 통신대대, 기타 지원부대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모두를 연합군에게 합류시키는 것을 환영했다. 그러나 구르카 부대를 투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했다. 용병 투입에 대한 미국인의 반감이 심할 뿐 아니라 그들이 영국군 이외의 지휘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있었으며, 남베트남에 구르카 용병을 파병시킬 경우 공산주의자의 새로운 선전물이 될 소지는 없겠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있었다.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만약 구르카부대를 투입할 수 있다면 이 부대는 지금까지 수행했던 작전과 유사한 작전을 수행하는 지역에 투입하기를 희망했다. 이 여단을 투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점은 고도로 훈련되어 있으며, 대개릴라 작전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영국이 1969년 이전에는 구르카 여단을 철수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논의는 중단되었다. 이때 영국은 1969년 이후 영국 국방정책과 군사력 요구서를 재검토하고 있었다.

구르카 군의 투입 계획이 무산되자 대신 한국군대를 증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한국군 제9사단은 9월 5일부터 10월 8일 사이에 투입되어 닌호아(Ninh Hoa)에 위치했다. 이곳은 국도 1번과 21번의 교차지역이다. 백마사단으로 알려진 한국군 9사단 제28연대는 뚜이호아(Tuy Hoa) 지역에 위치했으며, 제30연대는 캄란(Cam Ranh)만을 방어하기 위해 본토 쪽에 위치했다.

자유세계 군사지원군은 1965년 말 이후부터 증강되면서 많은 공헌을 하였다. 최대증강은 1966년도에 이루어졌다(표 1). 1966년 후반 자유세계군이 도착하기 시작하면서 국가별 공헌에 관한 이야기는 국가별 차원에서 잘 다루어질 것이다.

<표 1> 자유세계 군사지원군 군사력(1964~1970)

국 가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계	병 력	467	22,404	52,566	59,450	65,802	68,889	67,444
	기동대대	0	11	24	25	28	31	31
오스트레일리아	병 력	200	1,557	4,525	6,818	7,661	7,672	6,763
	기동대대		1	2	2	3	3	3
한국	병 력	200	20,620	45,566	47,829	50,003	48,869	48,537
	기동대대		10	22	22	22	22	22
타일랜드	병 력	0	16	244	2,205	6,005	11,568	11,586
	기동대대		0	0	1	3	6	6
뉴질랜드	병 력	30	119	155	534	516	552	441
필리핀	병 력	17	72	2,061	2,020	1,576	189	74
타이완	병 력	20	20	23	31	29	29	31
스페인	병 력	0	0	13	13	12	10	7

제 2 장 타일랜드

Thailand

“남베트남의 방어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타일랜드의 결정은 비간섭정책(policy of nonintervention)을 전통으로 고수하는 이 나라의 기존 관례를 크게 이탈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참여의 폭을 최소로 하였지만 남베트남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타일랜드는 이곳의 사태가 동남아시아에 미치는 영향과 자국의 역할을 재평가했다.

남베트남에서 타일랜드의 기여를 증대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국가 이익은 동남아시아 지역방어에서 더 비중이 높은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타이 군대의 현대화를 가속화시킬 기회가 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타일랜드는 현대화된 항공방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므로 국내 정치적 이득을 얻을 뿐 아니라, 국제전투에 타이군이 참여하기 때문에 국제평화회담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국제적 이득도 기대할 수 있었다. 미국 입장에서, 증강된 군사력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타이군이 합류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로 하여금 남베트남의 방어에 더 큰 역할을 수락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워싱턴 관리들은 향후 미군을 다시 증강시키고자 할

때에도 만약 타이군이 참전하면 여론의 지지를 받기 유리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었다.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Robert S. McNamara)는 타이군의 참전은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거의 절대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었다.

타이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미국이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는 존슨 대통령이 타이 수상 키티카촌 타놈(Kittikachorn Thanom)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

... 이 상황에서 나는 나의 깊은 개인적 신념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베트남의 평화전망은 더 밝아질 것입니다. 베트남에 대한 목적과 관심을 긍정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미국이 취해야 할 노력을 다함은 물론 우리와 함께 하는 우방국가들이 참여와 역할 분담을 해 준다면 이 전망은 더 밝아질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지속적인 지원과 당신 정부의 지원에 대해 깊이 알고 있으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공산주의자의 침략에 대항하고 있는 공군조종사들과 포병부대원들, 미국 항공부대 주변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타이군 기지 배치 ... 동남아시아에서 애쓰고 있는 미국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발표하고 있는 확고한 당신의 성명서들은 저의 마음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저희의 희망입니다. 타이랜드는 베트남에 대한 지원의 규모와 범위를 증대시켜 주기 바랍니다. 이로써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타이랜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확책하고 있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당신의 중요 프로그램을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추가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계산하고 결심해야 하는 사람은 당신 자신임을 알고 본 서신을 보내는 바입니다.

타이랜드 지원의 시작

Beginnings of Thai Assistance

첫 번째 타이랜드의 공헌은 1964년 9월 29일 시작되었다. 이때 16명으로 구성된 타이 공군부대가 도착하여 남베트남 공군이 작전하는 화물수송기를 운행하고 유지하는 것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의 부속 프로그램으로서, 타이 공군조종사들은 베트남 조종사들에게 제트항공기 전환 훈련을 시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1966년 2월 17일 타이 군사지원단이 활동하기 시작하고 타이 공군중령이 지휘관으로 임명되기 이전까지 약간 변경되었다. 당시 타이 공군부대는 타이 군사지원단의 예속부대가 되었다.

3월 타이 부대지휘관은 미군지원사에 T-33 제트 훈련기를 전용하여 베트남 조종사들의 훈련용으로 사용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훈련 프로그램은 타이공군의 훈련기 부족으로 한 달 전부터 훈련이 중단되어 오고 있었다. 2대의 C-123 항공기(타이 공군으로 표시되어 있음)를 타이 부대에서 통합 운영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남베트남에서 타이의 깃발을 달고 다닐 수 있도록 요청했다.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대답하기를 베트남 조종사에 대한 제트기 전환훈련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T-33 비행기를 미군지원사의 자산에서 빼낼 수 없다고 답변했다. 타이랜드의 군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 비행기를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미군지원사는 C-123을 무상으로 넘겨주었다. 태평양공군사령관에게 그 비행기를 건네주도록 지시되었다. 공군사령관이 말하기를 이 비행기는 미국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종이며 타이 조종사들로 하여금 남베트남에서 이 비행기를 소유하여 비행하게 하고, 반면 유지 및 관리는 미국이 담

당하게 하며, 타이 국적기를 달고 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했다. 7월 15일 이전에 조종사들이 베트남에 도착하도록 준비되었고, 이때까지 타이 승무원들은 최저 숙달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승무원들은 2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966년 7월 22일 미 제315공군사령부에 배속되어 작전임무수행에 들어갔다. 5명은 베트남 공군에 잔류하여 C-47기를 조종하는 임무를 배정받았다. 당시 타이 공군력은 27명이었다.

1966년 12월 30일 방콕 4개 신문사 1면 기사에서 타이 정부는 700~800명 수준의 전투부대팀을 남베트남에 파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타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기대보다 훨씬 다르게 나타났다. 5,000명 이상의 지원자가 방콕에서만 지원했으며 지원자 중에는 20여 명의 승려와 수상의 아들까지 포함되었다. 31세 된 한 승려에게 왜 군사 의무에 자원했느냐는 질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집 가까이 오고 있다. 나는 그들과 싸우기 위해 누런 승복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나의 조국과 나의 종교를 구할 수 있다고 했다.

1967년 1월 3일 오전 타이 정부는 수 일 전에 언론에 나타난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했다.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타이 정부는 증강된 1개 대대를 베트남에 파견한다. 명분은 타이는 베트남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다음 표적이 될 것이며 타이 정부는 이에 대해 오래 전부터 염려해 오고 있다. 이 걱정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

“이 전투부대의 편성은 보병, 중포병대, 장갑차량, 그리고 본부로 조직되며 병력 수는 약 1,000명으로, 타국의 지원을 받지 않고 독자

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게 된다. 이 결정은 은밀하면서 완전한 방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된다. 파병 시기는 타이에 대한 북베트남의 국경에 대한 공격이 임박하다는 것이 확실해 질 때가 될 것이다. 이것은 위험을 최소로 줄이는 길이며 적의 공격을 당하기 전에 이를 봉쇄하는, 즉 수문을 설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수문은 붉은 공산주의자들의 물결이 우리나라로 범람하여 들어오는 문을 의미한다.”

“다가오는 적의 공격을 차단하는 것은 우리 국가가 전장으로 변하는 것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된다. 국가 전체가 초토화되는 것을 막고 우리의 농작물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지키게 된다. 우리 국민이 일상의 평화와 행복을 즐길 수 있고 고통의 두려움을 멀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전쟁터로 변하는 것을 멀리 떨쳐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침략자들이 모국의 수문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의 가정에 대재앙이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다. 대재앙의 불길을 끄기 위해 우리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어떠한 위험도 감수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없으며 국민들로 하여금 정든 고향을 버리고 피난을 가게 할 수 없다.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을 막아야 하며, 먹을 것이 없어지고 물가가 치솟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이것이 타 동맹국들과 어깨를 맞대고 싸우기 위해 전투부대를 파병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형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적을 공격하여 침략의지를 꺾는 것은 우리의 국토와 재산이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결정은 정치·군사·경제의 모든 측면에서 고려할 때 적절한 것이다.”



프역토에서 수색 및 소탕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타이왕실 코브라 부대 장병들

이 결정은 미국에 많은 부담을 주었다. 첫째, 타일랜드에 지원해야 할 군수지원의 규모였다. 미국은 타일랜드가 1,000명의 증강된 1개 전투대대로 독자적인 전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편성과 병력 장비, 독자적 전투수행능력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떠맡기로 했다. 미국은 타일랜드 수상에게 이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 부담 비용은 이미 베트남에 배치된 타이군에 대한 지원금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었다. 타이군을 추가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이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수요소였다. 따라서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한 예산을 승인하였다. 이 예산에는 해외파병수당을 포함하였으며, 예산집행 가이드라인은 한국군 지원에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했다. 사망 보상금은 미국이 지원하며 합의되지 않은 경제적인 부담은 타일랜드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타일랜드군 추가 파병에 대한 미국의 제안에 관하여 태평양사령관이 느낀 것은 다음과 같았다. 베트남의 미군지원사령부와 타이의 미군지원사령부는 타이군의 추가 파병에 대해 토의를 할 필요가 있다. 협의해야 할 내용은 편성, 훈련, 장비 및 기타 지원문제들이라는 것이었다. 방콕 주재 미국 대사는 이와 다른 견해를 가졌다. 그에 의하면,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1개 연대전투단의 파병을 요청하였지만 태평양사령관, 국무장관 및 국방장관에 의해 거절되었다.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다시 연대급의 타일랜드군 파병을 원하며 이 문제에 대해 태평양사령관이 다시 협의하기를 제안했지만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이 제안대로 협의를 이루어졌다고 믿지 않는다는 점을 주타일랜드 대사는 지적했다. 동시에 베트남 대표와 타일랜드군 지원사 대표가 1967년 1월 27~30일 4일 동안 추가 파병병력 전개에 관한 여러 가지 의제를 토의했다. 2월에 타일랜드군은 파병을 확정하여 발표했고 3월 13일 파병될

부대에 대한 훈련을 시작했다. 최종 확정된 과병 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타이군은 미 제9보병사단의 작전통제 하에 운용된다. 3월 15일 타이군 대표와 타이 주둔 미군지원사령부의 대표는 베트남의 미군지원사령부의 참모진들과 회담을 하여 부대 및 장비 및 수당 지급을 위한 부대편성표(TOE)의 최종확정을 협의했다. 또한 훈련과 무장, 전개 문제에 대해서 협의했다. 협의된 편성표에 나타난 과병부대 규모는 감편된 연대급으로 계획보다 5% 초과한 3,307명이었다. 과병부대의 편성은 1개 통신소대를 포함하는 1개 본부중대, 항공소대, M-113 소대, 심리전 소대, 1개의 기관총 반을 포함한 1개 중화기 소대, 4관식 81mm 박격포 반, 인사, 특수군무소대, 보급 및 수송, 군사정책 소대로 구성되는 1개의 근무중대, 4개의 소총 중대, 1개의 증강된 공병전투중대, 1개의 의무중대, 1개 기갑정찰단, 2개의 정찰소대와 M-113 소대, 1개의 6관 105mm 곡사포 대대로 구성된다. 3월 18일 승인된 편성표는 미군지원사령부의 대표와 타이 육군 대표에 의해 서명되었다.

이 협의 내용 중에는 타이 육군본부는 위의 M-113 2개 소대에 대해서 군사지원 프로그램 자금으로 16대의 병력탑승장갑차량(APC)을 제공해 주도록 합의했다. 나머지 소대에 필요한 APC는 미국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이 이렇게 한 것은 1967년 4/4분기에 계획된 미국의 “APC 장갑차량 전투손실 보충 및 정기 미군 재편성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타이 육군은 이 제안을 재검토하여 미군 재편성계획에 의해 재고로 분류되는 APC 장갑차량으로 본부중대 이하의 소대만을 무장시키기로 결정했다. 타이가 보유하고 있는 장갑차량은 APC 정찰단 소대에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타이는 16대의 장갑차량을 운영할 소대를 편성하여 훈련은 시키겠지만 이들이 사용할 16대의 장갑차량은 그들이 베트남에 도착함과 동시에 미국이 지급해 주기를 고집했

다. 만약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타이군은 앞서 합의된 편성표에 있는 정찰소대를 과병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베트남의 군지원사령부는 추가로 M-113 장갑차량 16대를 잉여물자에서 지급하도록 건의 했으며, 타이 연대를 훈련시키고 전선에 배치시킬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타이 해군의 과병도 고려되었다. 5월 말에 베트남군지원사령부는 자신들이 7월에 완성하도록 계획된 박격포기관함정 PGM-107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 함정을 타이 해군에 전환시켜 자유세계군을 위해 사용하도록 건의했다. 타이군지원사령부는 이와는 다르게 이 함정을 타이의 소유로 넘기고 그 대금은 다음 연도에 타이에 지급해 줄 군사지원 프로그램 자금에서 차감하기를 원했다. 미국은 이 요구를 들어 주기가 곤란했다. 타이 해군 소속의 선박 2척이 이미 작전 중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더 이상의 타이 해군이 이 해역에서 작전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특히, 타이 해군이 겪는 선상 폭동 사건에 비추어 볼 때 병력 관리의 문제점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타이 해군을 증강 운용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반면, 타이는 자국의 해군을 증강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타 국적의 선박에 자국의 병력을 탑승시키는 것은 자국 해군력 증강에 도움이 될 수 없었다. 타이 주둔 미 해군 고문단의 의견은 미국 측 견해보다 타이 측의 견해를 지지했다. 그는 타이 해군 현대화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오고 있었다. 타이 해군을 증강시키지 않고 베트남의 자유세계 선박에 해군병력을 탑승시키는 것은 이윤배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PGM-107을 1년 후 무상으로 건네주는 대신 타이로 하여금 해안 군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미 해군은 이 제안을 더 구체화하여 무상으로 건네주는 시기와 방법을 정했다. 정비와 병력 교대를 위해 이 선박이 타이로 귀환할

때를 선박 이양시기로 정하여 타고 온 PGM-107은 타이에 남겨두고 다른 PGM으로 교체해 주기로 했다. 이 방식은 타이 해군병사의 해안전투 체험 훈련을 강화시키고, 해군의 위상을 높이며, 타이의 베트남 참전에 대한 국제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좋은 방식이었다. 타이 정부는 예비교섭에서 미 해군의 제안이 실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상호 합의하여 확정지었다. 이로서 타이 정부는 그들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베트남전에 기여하는, 즉 자국의 해군을 타 국적 소속의 신형 PGM-107 함정에 승선시키는 것은 하지 않게 되었다.

장비와 관련한 문제는 APC와 PGM에 한정되지 않았다. 미 합참의 최초계획에는 1966~1967년 동안 M-16 소총 지원 보급량은 4,000정이었다. 매월 1,000정씩 단계별 인도하기로 하고 최초 인도는 3월에 시작되었다. 1967년 2월 태평양사령관은 미군을 제외한 타 국가의 군대에 M-16 소총을 인도하는 것을 연기시켰다. 이 결정으로 복잡하게 된 것은 타이군지원사령부가 이미 타이 육군본부에 최초 인도일자를 통보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최초 인도받은 무기를 타이 연대에 지급하여 무장시키기 위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 타이군이 베트남에 배치된 후 타이군에게 M-16을 지급하게 될 계획을 대신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은 타이 내에 있는 다른 무기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타이에 있는 모든 M-16 소총은 보병과 타이 북방의 폭동 진압에 투입된 특수부대에게 지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파병시킬 타이 연대에 지급해 줄 소총을 타이는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 4월 이전에 소총을 지급하지 않으면 반발을 사게 될 것이라고 타이군지원사령관은 판단했다. 그래서 타이군지원사령관은 자유세계군이 M-16으로 무장한 다음 한국군이 무장하기로 되어 있는데, 타이군을 무장시켜 주지 않으면 한국군도 무장시켜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라는 한국인의 감정

도 고려하여, 태평양사령부가 지시한 소총 인도 잠정 중단 결정을 취소시킬 것과, 타이 연대와 이미 베트남에 파견되어 있는 타이 병사에게 900정의 소총을 지급할 것을 건의했다.

M-16의 특별지급과 함께 다른 무기들도 장비시켜 줄 필요가 있었다. M-14와 그 부품을 지급하는 것이 좋은 대안으로 선택되었다. 이 경우 두개의 선결문제가 제시되었다. 첫째, 미국 본토에 무기 숙달 군사훈련 기지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한국군에게는 M-1 소총으로 무장시킨다는 것이었다. 타이군에게 M-14를 지급하는 것은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래서 중재안으로서 타이군에게 M-2 칼빈 소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7월 연락사무소 개설과 타이군 배치에 대한 기초 작업이 완료되었다. 미 제9보병사단 관계자들의 방문에 이어, 타이 육군연대에서 연락장교와 읍서버들을 9보병사단에 파견했다. 9월에 파병하기로 예정된 부대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타이 연대의 5개 핵심 그룹 관계자들이 1967년 7월 6일부터 21일까지 보병 제9사단을 방문했다. 1개 그룹은 34~3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소대장, 분대 하사관, 분대장, 중대 수석 장교, 중대장, 선발된 참모장교들로 편성되었다. 각 그룹은 그들의 파트너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6일 동안 체류했다. 7월 12~14일 기간 동안 타이 연대 연대장이 3명의 참모장교들을 대동하고 미 9보병사단 본부를 방문했다.

타이 연대의 파병 일자에 대한 토의는 7월 5일 이루어졌다. 이 날은 타이 정부가 북방의 소요사태에 타이 연대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날이었다. 타이 연대를 베트남 파병 전에 북방 소요지역에 투입한 목적은 사기와 도덕심을 고취시키고 베트남 전장에 투입되기 전 전투경험을 체험하게 해 주기 위함이었다. 베트남군지원사령부는 이 계획을 여

러 가지 이유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 이유들은 첫째, 타이 북방에 연대를 배치함으로써 베트남에 배치시키는 시기가 최소 1주에서 2개월까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둘째, 지급해 준 장비를 최초 목적했던 베트남 전장이 아닌 북방에 추가적으로 사용하면 베트남전에 파병될 때는 이미 사용한 장비를 교체해 주거나 정비시켜 주어야 한다. 셋째, 타이군에게 지급할 상당수의 장비들은 잉여물자에서 공급되어 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잉여물자 자금 중 타 자유세계 군대와 미군에 배정된 자금을 빼돌려 타이에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새로운 부담이 생긴다. 넷째, 타이 연대는 보병 제9사단의 군수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9사단의 보급물자 저장과 기지안전을 담당하는 베어캐츠(Bearcat) 지역에 8월 15일까지 계획된 보급품과 장비들이 도착되도록 명령되어 있다. 다섯째, 타이 연대의 파병지연은 파병이 지연되지 않을 경우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일정과 이를 추진하는 관계자들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여섯째, 많은 작전들이 타이군이 배치될 지역 주변에 계획되어 있는데 파병지연으로 인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군수, 훈련, 작전은 최초 합의된 대로 타이군을 배치시키기 위해 아주 세부적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파병이 지연된다는 것은 엄청난 자원과 노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타이군의 파병 지연을 반대하는 이유였다.

이러한 반대 논쟁들은 효력이 나타났다. 7월 27일 타이군지원사령부는 파병연대를 타이 북부지역에 배치하는 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타이 파병연대(the Queen's Coboras)의 베트남 배치는 4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타이 연대의 숙영시설 준비요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공병

중대가 1967년 7월 11일 타이 해군 LST에 승선하여 7월 15일 뉴포트 육군 터미널(Newport Army Terminal)에 도착했다. 공병중대는 장비를 하역하고 난 다음 경호를 받으면서 기지를 건설할 베어캐츠(Bear Cat) 지역을 순찰했다. 8월 20일 이 중대는 항공 순찰을 실시했다. 타이군 연대의 주력부대는 1967년 11월 19~23일 기간에 도착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부대는 11월 25일 훈련을 마치고 11월 28일 항공기로 베트남에 도착했다.

소부대 독립 군사작전과 베트남군과 연합해 대부대 군사작전을 수행한 타이군은 1967년 10월에 나라슈안 작전(Operation NARASUAN)을 시작했다. 1967년 11월에 타이 연대 병사들은 프억토(Phuoc Tho)에서 수색 및 소탕 임무를 수행했다. 타이군은 비엔 호아(Bien Hoa Province) 지역의 년트락 지구(Nhon Trach District)를 평정하였으며 적 145명을 사살했다. 타이군은 자부심을 보일 수 있을 만큼 자랑스럽고 소중하며 강한 전투부대로 밝혀졌다. 타이군은 전투작전뿐 아니라 그들의 책임 지역 내에서 민정활동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타이군은 나라슈안 작전(Operation NARASUAN)을 실시하였으며, 병원 건설, 48km의 도로 건설 및 49,000명의 민간인 환자를 치료했다. 타이군이 베트남에 도착하기 전에도 타이는 베트남에서 점점 더 많은 기여와 활동을 하고 있었다. 1967년 중반기까지 타이 정부는 일방적으로 베트남에 추가병력을 파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 11월 8일 타이 정부는 방콕 주재 미국 대사에게 광범위한 군사 지원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제안서에 포함된 특별 제안 내용은 추가파병과 관련된 것이었다. 타이 수상은 10,800명 규모의 1개 여단을 제안했다. 이 여단의 편성은 3개의 보병대대, 1개 포병대대, 1개 공병대대, 기타 지원부대들로 구분되었다.

합참의장은 이와 관련하여 합참 일반참모부로 하여금 타이 군사 상

황을 평가하도록 요청했다. 이 평가는 타이의 안보상황, 군사조직, 베트남에 파병할 수 있는 추가능력 등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합참 일반참모부는 타이의 미군지원사령부로 하여금 1967년 11월 20일까지 타이의 추가 파병능력을 검토하도록 했다. 합참은 타이 정부가 파병부대를 베트남에 도착시키는데 얼마의 시일이 소요될 지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베트남에 도착시키기를 원하는 타이 부대는 군수지원부대를 포함하여 약 5,000명의 병력(증강된 2개 대대); 15,000명의 병력(증강된 약 4개 보병대대); 20,000명 이상의 (증강된 약 8개 보병대대) 병력을 베트남에 도착시키는데 소요되는 시일을 알고 싶어 했다. 합참 일반참모부는 또한 이들 병력규모별로 부대를 파병할 경우 이것이 타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를 원했다.

타이군지원사령관 맥콘(Hal D. McCown) 중장은 5,000명 규모의 파병은 타이의 안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10,000명 규모의 파병도 가능하지만 편성, 훈련 및 배치시 1개 여단을 배치하는 수준으로 증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15,000명 이상을 파병할 경우 훈련 기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타이 연대의 편성은 지원자를 최대로 차출하라는 목소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역 병력에서 97%를 차출하고 향후 파병할 때에도 이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는, 즉 현역에서 대부분의 병력을 차출해 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했다.

맥콘 중장의 판단을 기초로 샤프 제독(Admiral Sharp)은 합참에 건의했다. 타이와의 현 협상은 10,000명의 병력을 파병하는 것으로 요약되었다. 이 규모는 타이 육군의 전력을 약화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의 타이 국내의 소요상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타이의 안보상황과 국방능력 및 파병능력을 판단함과 동시에 미국의 상황과 능력을 검토하기를 원했다. 그는 현재 고려되고 있는 병력규모별로 미국이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미국의 지원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베트남 미군지원사령부는 타이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장비와 여단급 이상의 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보급물량(backup support)을 제외한 모든 신형장비에 대해서 그 정비지원을 미국이 담당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직접지원부대들에 대한 정비지원도 미국이 담당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신형장비와 직접지원부대 장비지원을 제외한 정비, 즉 보급품 분배, 수송 및 서비스 근무 등 기본적인 지원은 타이 정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규모별 파병수준을 고려함에 있어서 여단급 규모(5,000명)를 미군의 사단에 예속시키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경우 모체 사단이 되는 미군 사단사령부에서는 최소 50명 이상의 정비 병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10,000명 이상의 병력을 미군 사단에 예속시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1만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군 1개 지원대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원대대의 규모는 약 600명으로 1개 본부중대, 1개 정비 및 지원중대, 1개 증강된 의무중대, 1개 수송 트럭중대로 구분되었다.

타이 병력이 15,000명부터 20,000명이 파견될 경우 1개 특별 지원사령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사령부의 편성은 1개 본부중대, 1개 의무중대, 1개 지원 및 수송중대, 1개 정비대대로서 1,000~1,200명의 병력이 요구되었다.

당시 베트남에는 이런 정비지원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미군 전투근무지원 부대들이 없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이미 승인된 군 인

가병력을 재조정하거나 현역 직위를 문관으로 대체하거나 미군의 실링을 늘리는 것이었다. 현재 인가병력 내에서 타이군에 대한 군수 지원을 제공하려는 어떠한 방법들도 미 전투부대의 비용으로 감당해야 했다. 따라서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현실성이 있는 방법에 한하여 미군의 인가병력을 늘리는 것을 생각했다. 1967년 11월 3일 타이 추가병력 파병에 관한 상호 협의가 시작되었다. 이 회담은 타이 육군 작전참모 히룬시리 초랄드(Hirunsiri Cholard) 중장의 요청에 의하여 타이 주재 미 대사 그라함 마틴(Graham Martin)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웨스트모랜드 대장이 하달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추가 파병되는 타이군에 배정되는 임무는 타이 파병연대(Royal Thai Army Volunteer Regiment)에 배정된 임무와 동일하다. 보직되는 분야는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경찰 부대들은 장거리 경찰을 위해 중무장해야 한다. 지역적인 제한으로 부대는 탱크를 운용할 수 없다. APC 장갑차는 4개의 소총중대를 지원하는 숫자로 제한하며 48대를 초과할 수 없다. 완편된 중량급 포병대(4.2인치 박격포는 고려되지 않았음), 1개의 편제된 통신중대, 4개 중대로 구성되는 6개의 보병대대들이 파병부대에 포함된다. 편제에 들어있는 항공기동중대는 필요하지 않다. 공중지원은 미 항공부대가 제공한다. 각 여단에는 1개의 공병중대가 편성된다. 이상이 웨스트모랜드 대장의 지침에 포함된 부대들이었다.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2개 독립여단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1개 단독부대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이 점에 대해서 초랄드 장군은 상급자로부터 온 지침은 명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추가로 파병되는 타이군은 1개의 단독 지휘관에게 지휘되는 독자능력 보유군(self-sufficient force)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답변했다.

타이 주재 미국대사 마틴은 추가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1967년 11월

9일 행동지침에 관한 서신을 통해 타이 정부는 미국이 타이군의 추가 파병 준비를 하여 주도록 요청함과 동시에, 타이의 정규 육군의 능력을 증강시켜 줄 것을 건의하도록 조언했다. 미국은 실질적으로 이 건의를 받아들였다. 미국은 타이군이 베트남에 배치될 때까지 장비의 완전 편성을 완료하고 필요한 군수지원을 담당하기로 했다. 지급되는 장비는 베트남에서 타이군이 최종 철수하는 시점에서 타이 정부로 이양되게 했다.

해외파병수당은 미국 정부가 이미 배치된 타이 파병연대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합의서에 명시된 규정에 의해 타이군 배치와 관련되는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장비와 소모품 및 부대 교대에 관련되는 훈련에 필요한 장비와 보급품은 미국이 제공한다. 부대교대 훈련에 요구되는 시설의 수리와 복구비용도 미국이 부담한다. 이 장비는 베트남으로부터 타이군이 최종 철수하는 시점에서 타이 정부로 이양된다.

베트남에 파병할 병력을 소집, 준비, 훈련, 관리, 장비 및 보급품 수송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

타이군의 능력 유지와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미국이 부담한다. 여기에는 헬리콥터와 핵심 장비들을 포함한다. 또한 1968년과 1969년 2년 동안의 군사지원프로그램(Military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7,500만 달러를 지급한다.

미군 인력으로 운영되는 1개의 호크포대(Hawk battery)를 타이에 배치시킨다. 이 목적은 호크포대를 운영하는 병력을 타이군으로 대체하기 전까지 타이군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타이 정부는 이 포대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며 이 포대를 배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미국이 부담한다.

베트남 미군지원사령부 대표와 타이 대표 간에 이루어진 토의결과 병력규모는 10,598~12,200명으로 결정되었다. 타이 미군지원사령관의 제안에 따라 맥콘(McCown) 장군, 웨스트모랜드 대장, 그리고 타이 대표는 1개 사단에 해당하는 군대의 증강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타이 육군본부는 파병할 사단의 조직에 대한 미국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를 요청했다; 사단 포병본부 1개 추가, 3개의 기계화소대로 구성되는 정찰기병대와 1개 장거리 정찰소대 추가(미국의 개념은 1개의 기계화 부대와 2개의 정찰소대임), 지상 안전을 위해 M-42 방공포 18문으로 구성되는 1개 방공대대 추가, 사단 병력의 5%에 해당하는 병력으로 구성되는 독립보충중대 추가, 1개 의무중대를 1개 의무대대로 증강, 1개 대대 규모의 지원부대를 1개 그룹 규모의 지원부대로 증강.

마지막으로 요청한 2개는 계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다.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이 제안서에 대해 2가지 예외를 적용했다. 첫째, 3개의 기계화부대를 수락하지만 APC 장갑차량의 총 대수는 48대를 초과하지 않는다. 둘째, 베트남군지원사령부는 미 야전군사령부가 방공지상안전 책임을 담당하도록 한다. 따라서 M-42 방공포는 제공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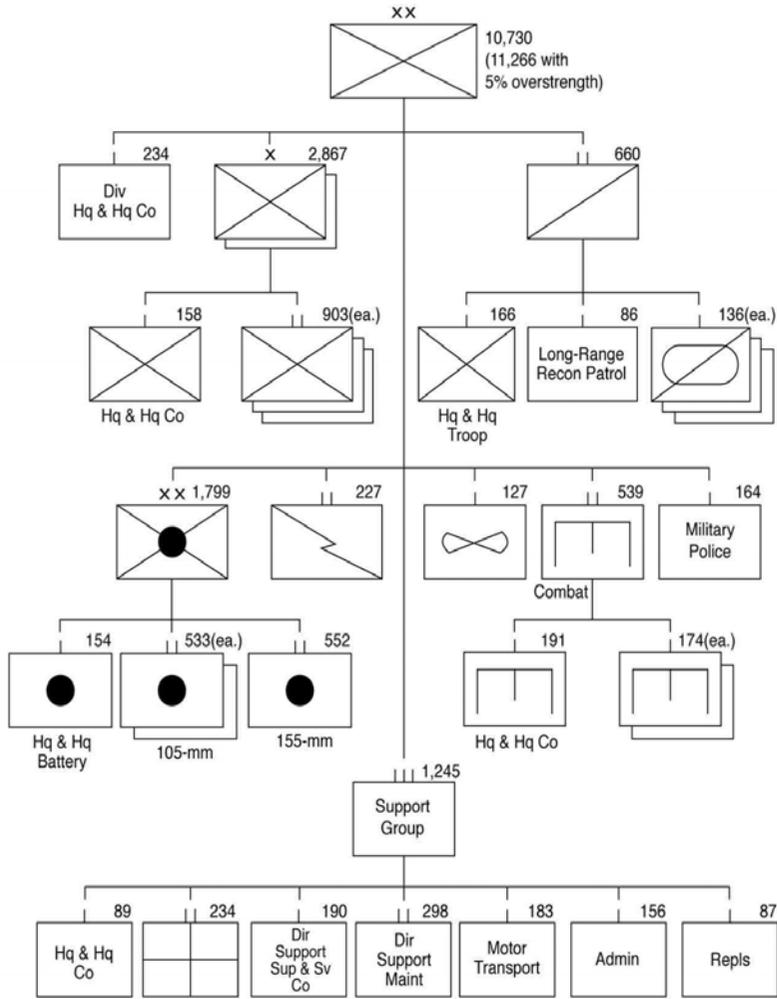
방콕 회의가 계속되면서 타이군의 훈련과 배치에 관한 협정이 마무리 되어갔다. 증강 계획상의 제1차 증강은 사단 규모의 59%에 해당하는 부대를 1차로 배치하는 계획으로서 1개 여단본부, 3개 보병대대, 1개 중대가 감편된 공병대대, 1개 기계화 부대가 감편된 정찰기병대, 사단 포병본부, 1개 105mm 곡사포대대, 1개 155mm 곡사포 대대가 해당되었다. 핵심 보급지원사항으로서 사단본부급의 보급 슬라이스를 지급하도록 했다. 기간요원 훈련은 임시적으로 1968년 1월 22일 시작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들은 1968년 7월 15일 베트남에 배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로 훈련되었다. 증강계획에 포함된 제2차 증강은 1차 증강 후 남은 41%를 증강하는 안으로서 2차 여단본부, 3개 보병대대, 1개 공병중대, 1개 기계화부대, 2차 105mm 곡사포대대, 1개 포대가 감편된 155mm 곡사포대대, 잔류되어 있는 사단본부를 포함하는 2차 부대에 필요한 보급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1차 증강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제2차 증강은 1968년 8월 5일 훈련을 시작하여 1969년 1월 27일 배치되도록 했다.

증강될 타이군의 군구조를 포함한 기타 계획을 추진시키는 것은 타이의 미군지원사령부에서 실시한 1967년 11월 28일 브리핑에서 구체화되었다. 이 브리핑은 베트남 미군지원사령부 부사령관 아브라함(Creighton B. Abrams)과 증강될 타이 군부대 관계자들과 이 계획의 고문역을 맡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브리핑에서 발표된 기본골격이 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베트남의 미군지원사와 미 육군본부에서 나온 대표들은 브리핑팀과 함께 타이로 돌아가 새로운 편제표(TOE)를 작성하도록 했다. 동시에 새 편제표와 합의된 일자에 훈련과 배치를 마칠 수 있게 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파병부대의 명칭은 타이 흑표범사단(the Black Panther Division)으로 정했으며 이 부대의 편제표는 1968년 1월 10일 최종적으로 승인되었다. 총병력 규모는 11,266명으로서 이 병력에는 5%의 보충소요를 포함하고 있었다(도표 1).

타이군 훈련의 마지막 단계를 위해 타이군지원사령부는 베트남군지원사령부에 120명의 고문단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고문단은 왕실 타이 육군파병단과 함께 배치되어야 하며 타이군이 베트남에 파병되어 있는 동안에 대부분의 고문단 요원들은 타이군과 함께 주둔하도록 요청되었다. 아브람(Abrams) 장군은 고문단의 규모가 너무

<도표 1> 타일랜드 파병군 조직도(1968. 1. 25)



많다고 판단하고 81명으로 줄이고 첫 배치는 48명으로 할 것을 결심했다. 48명의 고문단은 1968년 5월에 배속되었다. 미국과 타이 정부 양국

모두 베트남에 추가병력을 파견하는 속도가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염려를 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는 타이 주재 미국대사에게 질문하기를, 타이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타이왕실 육군파병사단 예하에 대대들이 실재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들을 1968년 초에 베트남에 파병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했다. 같은 맥락에서 해결되어야 할 다른 의문사항은, 미국은 525,000명 수준의 보병을 베트남에 전개시킬 것인가? 이 부대들을 베트남에 배치할 경우 이들을 베트남에서 최종적으로 훈련을 마무리시켜 줄 수 있는 훈련부대들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었다.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증강될 타이군이 훈련을 줄이고 조기에 베트남에 파병하여 전개하는 개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베트남에 배치되는 부대는 작전지역에 도착하는 즉시 부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훈련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믿었다. 몇몇 미군부대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타이 군대뿐 아니라 모든 자유세계의 군대들이 훈련을 거치지 않고 파견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다. 완전한 훈련을 거치지 않은 부대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 기본임무에 참여할 수 없게 하였다. 불충분하게 훈련된 부대에 대해서 적의 공격이 성공했을 때 입게 될 불리한 정치적 결과를 그는 염두에 두어야 했기 때문이다. 반대를 한 다른 이유는 타이 주재 미국대사와 타이군지원사령관도 미 국무부의 제안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타이 주재 미국대사가 지적하기를 타이는 파병일을 기준으로 1개월의 적응기간을 가지고 파병되기를 원하지만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통보했다. 타이 정부는 반복하여 발표하기를 파병될 사단은 지원병으로 편성될 것이며, 파병 때문에 타이 국내의 안전이 위협해 지는 일은

없을 것이며, 추가로 파병되는 사단은 신규 창설부대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기존 전투대대를 파병하는 것은 타이 정부가 국가안 전보장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공약해왔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창설부대를 파병시킨다는 개념은 미국뿐 아니라 타이에게도 타당한 것이었다.

타이군지원사도 1개 보병전투대대를 조기에 전개시키는 것에 대해서, 신규사단의 창설과 관련되는 모집 훈련 및 전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했다. 최대 난제 중의 하나는 훈련교관과 전문가들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타이왕실 육군부대로부터 900명의 보병을 차출하여 활용한다는 것도 사단이 창설되는 기간 중의 타이의 안보를 해치는 헨디캡이 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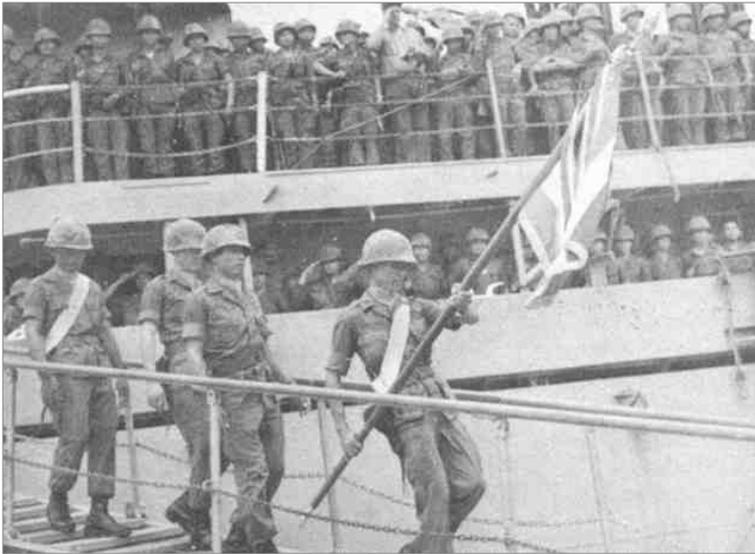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전개를 서두르는 분위기는 계속되었다.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미군의 고위층 관점에서 최초 보병대대를 6주 이전에 전개할 수 있는 조건으로 다음 사항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타이왕실 육군사단의 최초 증원부대에서 훈련되어진 최고수준의 3개 대대를 선발하여 대대 이하의 전 중대를 훈련시키며 훈련이 완료되는 즉시 베어캐탈(Bearcat)에 보낸다. 이들이 베어캐탈에 도착하면 타이왕실 육군연대(Royal Thai Army Volunteer Regiment)에 배속시켜 부분적인 전투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이 연대에게 대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훈련을 완료시키는 임무를 부여한다. 기타 훈련은 전 부대의 증원이 완료된 후에 실시한다. 이 요청은 다음의 두 가지를 가정하였을 때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첫째, 파병될 대대는 이미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무장되고 훈련되어야 한다. 둘째, 이 요청은 타이 정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이 개념이 승인된다면 대대의 파병과 전개는 6주 이

전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시기는 1968년 6월 3일경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이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최초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일정표가 확정되어 진행되었다.

타이에 대하여 미 지원부대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은 더 구체적으로 토의되었다. 베트남 주둔 미군지원사령부와 베트남 주둔 미육군사령부는 미군부대가 타이군의 훈련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했다. 미국은 이미 타이군이 요구한 동원, 훈련 및 전개에 필요한 것을 모두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이군지원사령부 마저 파병부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영구기지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샤프 제독(Admiral Sharp)은 타이군의 추가 파병과 관련하여 협의된 모든 요청에 동의한 후 이를 함참에 보냈다. 이에 대하여 육군부는 베트남 주둔 미 육군사에서 추가부대를 지원하며 1968년 1월과 3월에 파병되어질 수 있도록 부대구조를 완성하게 한다는 제안을 했다. 육군부가 실제로 타이군을 지원할 부대로 선정한 부대는 베트남 주둔 미 육군사 소속 부대가 아닌 미국 본토 훈련기지에서 1968년 9월에 도착한 부대들이었다. 함참은 육군부의 제안과 샤프 제독의 제안에 대하여 그리고 육군부의 제안에 대한 샤프 제독의 견해에 대하여 웨스트모랜드 대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한 웨스트모랜드 대장의 답변은 요청되어진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임시기지 제공이든 영구기지 제공이든 불문하고 베트남 주둔 미군지원사령부의 자산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태평양 지역 미국 육군은 육군부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타협적인 제안을 내 놓았다. 육군부의 제안에서 요구한 776명 중 335명은 베트남 주둔 미 육군에서 나머지 요구 병력은 미국 본토 육군과 태평양 지역 육군에서 충원시켜 준다는 것이었다. 샤프 제독은 이 제안을 건의했으며 함참은 이 계획을 채택하여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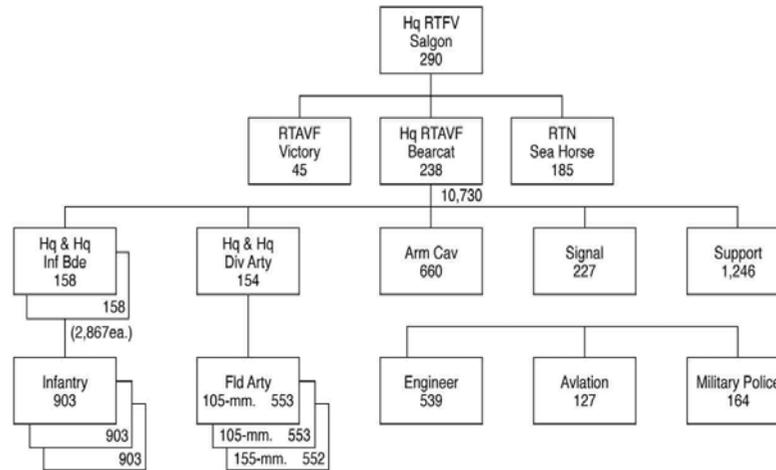
1968년 7월 베트남 사이공 항구에 도착한 타이 특포범사단 장병들



미 수송선 '오키나곤'에서 하선하고 있는 타이 장병들

타이군의 파병과 관련하여 1968년 4월 타이 최고사령부는 베트남 타이군 본부의 규모를 35명에서 228명으로 늘리겠다는 제안을 했다(도표 2). 그 주 이유는 대부대를 행정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최고사령부는 베트남 주둔 타이왕실부대의 본부 기능을 “한정된 연락임무 수행”에서 “전통적인 합참 참모지휘구조(J-staff lines)를 따르는 본부 구조”로 변경할 것을 희망했다. 이것은 베트남 본부의 경험과 건의에 기초로 제안한 것으로서 안전, 정보공유, 법 및 의료적 측면의 여러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의를 제기했다. 타이군지원사령부가 최종 계획된 추가 파병 안을 계획대로 승인했는지 그 내용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타이 주재 미국 대사관과 미국 정부가 타이군의 추가 파병이 필요한 것이며 승인할 것이 명확한 지를 결정하여야 했다. 베트남의 타이군사령부와 타이 대사관은 최종 증강계획을 승인했지만 타이의

<도표 2> 타일랜드 파병군(특포범사단) 편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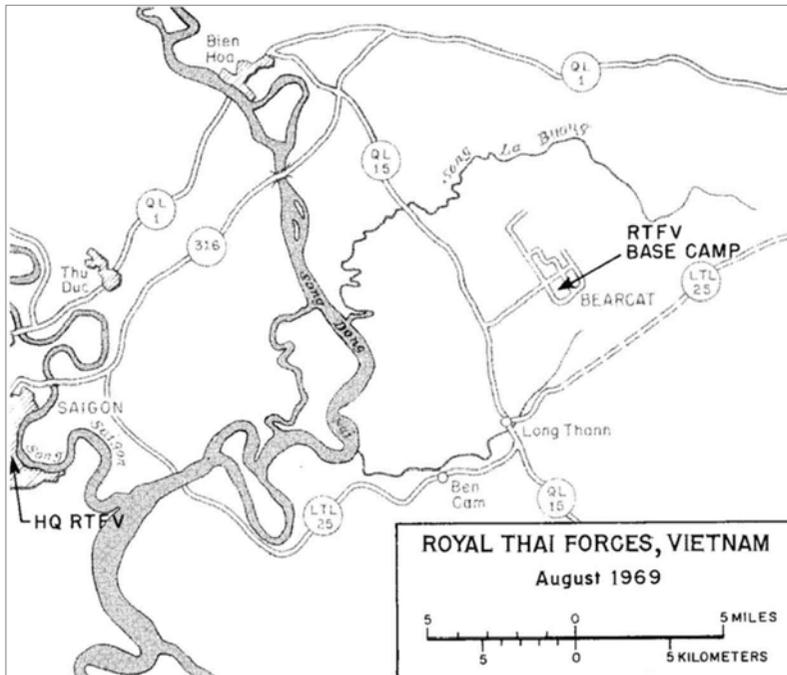


외교 관계자에게는 이를 결정하고 승인할 수 있는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권한도 없었다. 타이군지원사령부는 제독 샤프에게 건의하기를 증강될 타이군 본부에 대한 보급 및 수당 테이블(table of distribution and allowances)의 승인권을 웨스트모랜드 대장에게 부여하도록 건의했다. 건의한대로 승인권이 부여되었으며 1968년 6월 19일 보급 및 수당 테이블도 승인되었다. 본부의 배치는 1968년 7월 1일 최초요원의 도착과 함께 시작되어 7월 15일 완료되었다. 타이군은 급속하게 전개되었다. 흑표범사단의 1차 병력(5,700명)은 1968년 7월 하순에 도착하여 배어캄 지역에 전개되었다. 2차 병력(5,704명)은 1969년 1월에

전개하여 2월 25일에 이동을 완료했다. 부대 구성은 사단본부와 본부 중대(후방), 3개 보병대대급의 제2보병여단, 2개의 포병대대, 사단의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부대들로 편성되었다. 이 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베트남 제2야전군 사령부에 부여됐다.

제3차 증원은 7월과 8월에 제1증원부대를 대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제3차 증원군 투입은 1969년 8월 12일에 완료되었다. 대체된 여단은 제1여단의 임무를 인수했다. 본부의 교대는 1년 단위로 교대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활한 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전작전에서 전투손실은 매우 적었다(요도 1).

<요도 1> 타일랜드군 배치도(1969. 8)



타일랜드군의 작전

Thai Operations

타이군의 작전지역은 베트남이 식량과 피복을 조달하는 근거지였기 때문에 적들은 농민의 농사를 가능한 방해하지 않으려고 자주 나타나지 않았으며 활동도 가급적 자제했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적들은 지속적으로 이동해야 하고 새로운 베이스캠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공격활동을 펼칠 시간과 여유가 거의 없었다. 이 결과 타이군 작전지역에서 행해지는 적의 작전은 타 지역에서 수행하는 작전만큼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이러한 좋은 여건뿐 아니라 타이 군대도 이 지역에서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많은 손실과 희생 없이 과병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잘 계획되고 성공한 타이군의 작전은 제2여단 예하의 제2대대와 4대대에 의해 수행된 정찰 및 소탕임무였다. 이는 1969년 11월 24일부터 12월 4일 사이의 비엔 호아

지방의 낭뜨락의 벤깜 근교에서 수행된 전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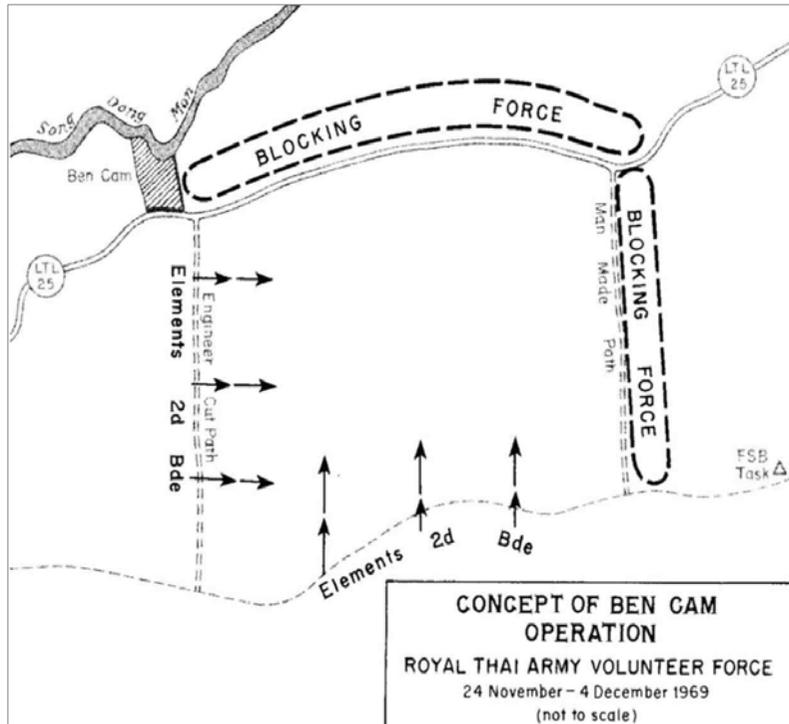
당시 타이군의 임무는 이 지역 게릴라를 차단하고 소탕하는 것이었다. 6개 소총 중대로 25번 국도의 북쪽을 차단하고, 서쪽으로는 벤깜 마을 근교로 통하는 도로와 동쪽으로는 폭 40m의 도로를 연하는 선상의 지점을 책임지며, 남쪽으로는 화력지원기지가 있는 택(Tak)지역의 서쪽으로 연하는 소로의 경계를 점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책임을 부여받았다(요도 2). 차단 임무를 부여받은 부대가 작전 지역을 차단시키면 소탕 부대원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500m 폭을 형성하여 소탕해 들어

갔다. 이 부대가 500m 동쪽지점까지 이동하면 남쪽의 차단부대원들이 약 500m 폭으로 북쪽을 향하여 이동했다. 이 작전은 작전 목표지역이 1km로 줄어들 때까지 반복되었다. 차단과 소탕을 실시하기 전에 정찰대원들과 정보원으로 전향한 민간인 1명이 병커단지를 통하여 정찰을 실시하여 적 정보와 위험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 작전에서 당한 손실은 부비트랩에 의한 전상자 2명이 전부였다.

공병 불도저 2대와 공병 2개 소대가 차단작전에 투입되었다. 이들의 임무는 차단 부대와 소탕 부대들에 의해 소탕된 지역에 있는 북동 소로와 동서 소로를 차단하는 것이었다. 이들 공병들은 적 예상 침투로 한 개를 차단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폭약통으로 적을 소탕한 후 불도저를 투입시켜 차단 폭을 40m까지 확장시키면서 침투로를 장악했다. 공병이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의 안전과 경비는 보병 부대원들이 맡았다. 공병이 기동하는 동안 소탕부대원들은 적을 중앙으로 몰아붙이고 보병부대는 이들과 함께 전진했다. 타이군의 야간 안전과 경계는 뛰어났다. 공병 기동부대와 소탕소대와 보병 경비부대가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속작전을 당한 베트콩은 함정에서 빠져나가려고 애썼지만 결국 격퇴되었다. 이 작전에 관한 첩보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베트콩 7명 사상이라는 전과를 올렸다.

전술작전과 관련하여, 미군과 타이군은 팀을 이루어 심리전을 수행했다. 쩌에우 호이 귀순 계획에 의해 귀순한 인원 전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였으며 4시간 이내에 인터뷰한 내용의 60%를 테이프로 만들어 베트콩에게 보여주었다. 이 테이프의 주제는 베트콩들에게 아직 귀순할 기회가 있을 때 정부에 투항할 것, 그들의 지도자와 잔당들을 제거하여 줄 것, 의료와 진료를 받을 것과 무기를 반납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심리전으로 귀순하기로 결심한 베트콩은 그 장소에

<요도 2> 벤깜작전(1969. 11. 21~12. 4)



무기를 남겨두고 비무장으로 걸어 나오도록 하였다. 귀순한 베트남을 심문하여 그들이 남기고 온 무기가 파악이 되면 이번에는 남겨 둔 무기에 관한 전단지를 만들어 뿌렸다. 이 이후에 귀순하는 베트남은 먼저 귀순한 동료가 남긴 무기를 가지고 나오도록 심리전을 펼쳤다. 적들이 귀순하여 나오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타이군은 소구경 기관총을 장착한 C-47 항공기로 봉쇄된 지역 깊숙한 곳으로 수 km를 침투하는 항공작전을 수행했다. 이 작전의 결과는 적 14명 사살, 포로 6명, 투항 12명, 21개의 소형무기와 2대의 유인무기를 포획하는 전과를 올린 것이었다.

이 작전의 최종단계에서 공중지원이 실시되었다. 타이군 장군은 항공력을 제한적으로 사용했다. 타이군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미 공군 연락장교에 의하면 타이군 사령관들은 근접전술항공지원보다 계획된 공중강습을 더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다. 타이 사단본부는 1일 1회의 계획된 공중강습을 요청했으며 전술공군통제단 소속의 미군에게 비친 모습은 타이군의 공중강습 요청은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정기적으로, 자동적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비쳐졌다.

타이군은 헬기와 고정익(固定翼) 무장헬기에 의한 근접전투지원을 선호했다. 폭격기는 거의 요청하지 않았다. 한 공군연락장교에 의하면 타이 지상군 지휘관들은 부대를 전개하는 과정에서는 근접항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이들이 근접항공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접촉이 두절되었거나 혹은 아군 공습이 실시될 때 자기들의 부대와 병력이 공습으로부터 충분히 안전한 거리에 있을 때에만 요청했다. 지상지휘관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숙지시키는 것은 연락장교들의

임무 중 하나가 되었다. 과병되어 있는 타이 여단 2개 중 1개 여단은 6개월마다 교대시키기 때문에 이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했다. 이 숙지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미국 육군과 공군은 타이 참관인들을 대상으로 3km 멀리 떨어진 곳에 폭탄투하와 네이팜투하 시범을 실시하여 안전거리 개념을 숙지시켰다. 이러한 시범을 통한 체험 교육의 결과, 타이 지휘관들은 공중강습을 요청하기 전에 목표로부터 3km 후방으로 부대를 철수시키게 되었다.

타이군의 철군(지원의 최종 연도들)

Last Years of Assistance

1969년 12월, 타이와 기타 과병국가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되었다. 필리핀 민사활동단이 철수하게 됨으로써 받은 영향과 싸이밍턴 소위원회(Symington Subcommittee)의 발표 내용이 발단이 되어 철군 기류가 형성되었다. 싸이밍턴 소위원회의 발표는 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이다. 미국은 타이 정부의 베트남 과병에 관한 결정을 환영한다. 타이군이 부담해 오던 군수지원과 수당을 미국이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였다. 이 발표는 타이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을 미국과 타이 양국이 서로 분담하도록 유도했다. 12월 19일자 방콕 언론은 타이 의회의 약 20명의 의원들이 타이군의 베트남 철수를 촉구하는 서신에 서명하여 수상에게 제출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철수를 요구한 이유는, 베트남의 상황이 호전되었으며, 미군이 철수를 결정할 정도로 베트남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지원계획들이 이행되었으며, 타이 국내의 경제와 안보와 관련한 문제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타

이군이 용병처럼 운영된다는 주장과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에 관한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12월 21일 타이의 코먼 장관(Thanat Khoman)은 기자 회견에서 타이 군대의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유는 미국이 최근 추가 철수에 관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 문제를 베트남 외교부장관 탄(Tran Chan Thanh)과 토의하였으며 철수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경고하기를 “타이는 철군 조치를 취해지기 전에 모든 각도에서 전체적으로 신중하게 철수를 고려할 것이다. 성급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나라가 철수한다고 타이도 덩달아 철수하는 결정, 즉 장님이 다른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식의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 발표가 있는 지 2일 후에 반대정책이 발표되었다. 타이는 내각 회의를 개최하여 철군 문제에 관한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여 부수상이 발표하였다. 타이는 베트남으로부터 전투병을 철수시키지 않을 것이다. 타이는 그런 움직임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베트남에서 타이군이 작전을 계속하는 것이 철수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득이 된다. 만약 타이군이 철수를 계획한다면 타이군의 파병을 요청한 베트남과 미국과 함께 의논하게 될 것이다. 다른 국가들이 베트남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타이의 상황은 그들이 철수하는 상황과 다르다는 것을 발표했다.

타이는 지상군뿐 아니라 공군 파견단을 베트남에 주둔시키고 있었다. 대규모는 아니었지만 타이 공군은 1970년 후반에 강한 힘을 발휘했다. 타이의 베트남 수송작전 임무가 부여되었을 때 빅토리 비행단(Victory Flight)에 근무하는 총병력은 최초 16명에서 45명으로 증가되었다. 3명의 조종사, 5명의 비행기술자들이 베트남의 공군 C-47 수송기로

베트남인들과 함께 비행했다. 9명의 조종사, 7명의 비행기술자, 3명의 기상수송담당관(loadmaster)은 C-123기를 타고 미 공군 제19전술 강습비행단과 함께 비행했다. 이 강습비행단은 베트남 제415소대처럼 C-47 수송기를 편제하여 떤선넛(Tan Son Nhut)에 주둔했다. 이 비행의 나머지 요원들은 지상에서 첩보 통신, 비행기 정비, 하역 및 일반 행정을 담당했다. 통상적인 장교와 비장교의 균형 관계를 유지했다.

타이군 철수에 관한 논란은 1969년 12월에 대두되어 해결되는 듯하다가 3개월 후 다시 대두되었다. 3월 미국 대사와 만난 타이 수상은 미국과 연합국이 철군 혹은 감군을 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하여 타이 의회는 정부에 철수 압력을 가하고 있음을 토론했다. 그는 “국민이 이 철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느끼게 되면 정부는 심각한 상황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부터 1972년까지 철군과 관련한 조치와 논란은 없었다. 1972년 타이 정부는 베트남에서 철군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였다. 이 결정은 타이 내부의 혼란 가중과 라오스와 캄보디아 국경지역에서 안보상황이 점점 위험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었으며, 미국이 철군을 서두르는 상황과 맞물려 이루어진 것이었다.

타이 정부의 철군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로테이션 철수(rotational phase-out) 개념을 적용한다. 1971년 8월에 귀환하는 부대를 대체하기 위해 계획된 제5차 증원부대 파병은 중단한다. 1971년 1월에 계획된 제6차 증원은 계획대로 전개하여 1년 후 파병임무 기간이 완료되면 철수시킨다. 타이 해군과 공군은 1972년 1월 이전의 적절한 시기에 철수시킨다. 베트남에 잔류할 부대는 타이와 베트남 정부가 서로 협의한 후 결정하기로 한다. 비전투부대를 철수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더 고려한 후 결정한다는 내용이었다.



롱탄에서 C-130 수송기로 철군하는 타이군

타이 정부는 철수계획을 미국과 베트남에게 통지한 후 심사숙고 기간을 거친 다음 1971년 3월 26일 확정되었다. 타이는 1971년 7월에 팬더 사단의 절반을 철수시켰으며 나머지 절반은 1972년 2월에 철수시켰다. 해군 소속의 3대의 LST 수륙 선박과 탱크 부대는 1972년 4월에 철수했다. 빅토리 비행단은 1971년 4~12월 사이 증원군이 도착하는 대로 철수했다. 1971년 7월 타이왕실군 본부는 204명으로 감축되었으며, 이 수준은 1972년 대체부대가 도착하여 잔류부대로 남았을 때까지 유지되었다.



타이 팬더 사단에 우수부대 표창장 수여하고 있는 로슨 중장

제 3 장 필리핀

The Philippines

필리핀은 수년 동안 베트남을 지원했다. 1953년 초 필리핀 의사 및 간호원으로 구성된 지원단이 베트남 전역의 정착촌과 마을들에 의료 지원을 하기 위해 도착했다. 이 프로젝트는 ‘형제정신 작전(Operation Brotherhood)’으로 명명되어 필리핀 개인 조직기구들에 의해 자금지원과 후원을 받았다. 수년 후 필리핀 정부는 UN과 동남아시아조약기구(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의 일원으로서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베트남을 돕는 국제적 의무를 수행한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1964년 7월 21일 필리핀 의회는 대통령에게 베트남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의거 34명의 외과 의사, 수술 의사, 간호사, 정신과 의사와 지역개발노동자들을 군에서 차출하여 파견하였다. 1964년부터 1966년까지 4개의 지원단이 차례로 파견되어 근무했다.

추가적으로 자유세계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6명의 필리핀 육군 장교가 1964년 8월에 도착하여 제3군단 고문단으로서 심리전과 민사 작전에 관한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베트남 주둔 미군지원사령

부와 협조하여 활동했다. 장교들은 빈드엉(Binh Duong), 자딘(Gia Dinh), 롱안(Long An) 지역에 있는 3개의 민사지원소대와 3개의 심리전중대에 팀을 이루어 배치되었다. 4개의 지원단들 중 1개는 미군지원단 본부에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나머지 지원단들은 각각 심리전본부, 제3군단 심리작전센터, 제1심리전 대대에 소속되어 임무 수행을 했다.

16명의 필리핀 장교들은 미국 동맹국들보다도 하위급 관청의 지시를 받으면서 활동했다. 베트남인 카운터 파트너와 함께 여행하고 일하면서 심리전과 민사지원을 전개하여 평화계획이 이행되도록 지원활동을 계속 했다. 이들의 활동은 베트남의 심리전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이 성공함으로써 베트남이 16명의 장교 그룹을 다시 요청하게 되었다.

필리핀 지원의 역사

History of Philippine Aid

베트남에서 필리핀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한 미국과 필리핀 정부의 토의는 1964년 중반에 시작되었다. 대통령 디오스다다 맥커패갈(Diosdada Macapagal)을 미국으로 방문하도록 주선한 워싱턴 주재 필리핀 관리들은 “베트남에서 특정 조건이 조성된다면 더 큰 역할을 담당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추가적인 지원의 본질과 규모에 대해서 광범위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미 군사관계자들은 필리핀이 지원해야 할 부분은 베트남 공군을 지원하게 될 항공승무원 특수임무 중대, 공병소대, 의무소대, 야전통신 분야의 기술인력, 병기, 수송, 정비, 대게릴라 작전을 지원할 해병 및 해군 인력, 선박

훈련을 지원할 해병 및 해군병력임을 밝혔다. 반면 미국의 비군사 관계자들은 필리핀이 의료, 비군사 부문 종사자, 농업전문가 및 비료를 공급해 줄 것을 주장했다.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필리핀의 군사지원’에 대해 존슨 대통령과 맥나마라 국방장관과 함께 토의했다. 필리핀 대통령의 지원을 증가시키겠다는 제안에 대해 맥나마라 장관은 “미국은 필리핀 정부와 함께 대게릴라 작전을 수행하기 원하며, 필리핀 국방비를 보조해 줄 미국의 예산 규모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필리핀 대통령 맥커패갈의 의도는 남쪽 인도네시아의 국경에 잠복되어 있는 위협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군사력을 갖추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필리핀 대통령은 군사 지원 프로그램(Military Assistance Program)을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맥나마라 장관은 필리핀의 국방예산이 매우 부족하며 만약 미국이 지원을 증가하면 필리핀 국방예산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맥커패갈 대통령은 회담기간 동안 베트남에 대해서 필리핀이 지원하는 준비태세를 갖춘다면 다른 아시아 우방국가들을 베트남 지원노력에 동참시킬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맥커패갈 대통령의 미국 방문 후 미국 국무부는 사이공과 마닐라 대사에게 필리핀 주둔 미 군지원단장 고메즈(Lloyd H. Gomes) 대장과 베트남의 웨스트모랜드 대장을 만나 베트남의 ‘요구사항’과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필리핀의 능력을 비교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특수부대의 전개와 그 시기, 단계, 우선순위 및 예산항목들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미국 국무부는 필리핀의 병력이 1,000명일 경우를 가정하여 그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워싱턴 당국은 제3국의 지원을 베트남에 투입시키는 것을 항상 고려하던 중에 필리핀을 제2의 협력자로 간주했다. 그러나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군수지원 계통이

복잡하게 된다는 점을 경고하면서 만약 적절한 보급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자유세계 군대는 그들 국가가 자체적으로 군수지원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그 동안의 경험에서 알 수 있었으며, 만약 필리핀 군대의 전개를 계획하고 투입하는 단계에서 추가적인 자원 할당과 충분한 보급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베트남 주둔 미국 군지원사령부의 조직과 자원으로는 필리핀 군대의 보급 소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1964년 12월 14일 필리핀 주둔 미 군지원단과 필리핀 육군본부의 참모회의에서 필리핀 군대의 베트남 파병에 관해 토의했다. 필리핀 대표는 다음 사항을 요구했다. 필리핀이 부담하는 전액을 미국이 지원하며, 미국이 파병되는 필리핀 지상군 전원에게 미군과 동일한 장비로 무장시키며, 비엔호아(Bien Hoa) 지역에서 철저한 방어적 비군사활동에 종사할 필리핀인을 고용할 것을 요구했다. 특수부대와 의무 종사자들은 캄보디아 국경에서 가까운 거리가 아닌 떠이닌(Tay Ninh)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게 하며, 필리핀이 파병하기로 고려하고 있는 특수군의 규모와 구성을 밝혔다. 맥커패갈 대통령은 최초로 전투부대를 파병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마르코스(Ferdinand E. Marcos) 당시 자유당 당수는 어떤 부대도 파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필리핀은 방어적 비군사활동 임무와 이 임무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최소 군사력만 파병한다는 방향으로 제한되어 토의가 진행되었다. 건의된 특별임무부대의 군사력은 약 2,480명으로, 증강된 1개 보병대대, 증강된 1개 공병대대, 1개 지원중대, 비군사활동인력, 1개 해군부대와 1개 공군부대였다.

1965년, 베트남 정부는 필리핀 정부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요청을 협의하기 위해 토의에 참여하는 참가자 인원수도

증가되었다. 베트남의 요청이 이루어질 지는 수개월 동안 불확실했다. 그해 가을, 대통령에 당선된 마르코스 대통령은 베트남 지원에 대해서 이전 몇 개월 동안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해 왔지만 당선 후 상황을 검토한 후 그가 내린 결론은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변했다. “반대! 나는 파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떤 전투부대의 파병도 허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군사활동을 하는 부대의 파병은 허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파병시킬 특수임무부대의 개념도 수정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1개 건설공병대대와 의무 및 비군사활동 팀으로 구성되는 혼성부대를 파병하여 자체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비군사활동을 수행하도록 결정하였다.

1966년 전반기에 마르코스 대통령은 파병시킬 특수임무부대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법안을 발표했다. 의회에서는 이 법안에 3,500만 파소(\$8,950,000)의 예산 및 자금 할당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필리핀 하원을 쉽게 통과하였지만 상원에서 반대에 부딪혔다. 많은 토론과 휴회 및 추가 회의를 거듭한 후, 6월 4일 상원은 15:8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당시 6월 9일까지 존속되었던 상·하원 연석위원회의 회람을 거친 후 6월 18일 마르코스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다. 이 법안은 2,000명의 비군사활동단을 파병하는 것을 허용했다. 1개 공병건설대대, 의무 및 정착촌마을개발팀, 1개 안전대대, 1개 야전포병대, 1개 군수지원중대, 1개 본부단으로 구성되었다. 이 부대는 필리핀과 베트남 양국이 합의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기로 되었다.

이 법안의 전문(preamble)에서 필리핀 의회의 결정에 관한 취지가 설명되었다. “베트남에 대한 필리핀 국민의 공약을 확대하여 이행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 전문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은 그의 감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나는 반복한다. 만약 우리가 베트남에 기술자들을

보낸다면 오래 지속되어온 필리핀 국민의 신념을 행동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자유의 선택은 모든 국가에 의해 지속되어야 한다. 우리의 국가안전보장은 세계의 일부로서 자유롭게 성공적으로 민주주의가 보장되어질 때 주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필리핀의 파병결정은 세계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취지였지만,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으려는 목적도 있었다. 필리핀 지원단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정한 지역에서 필리핀인들이 활동해야 하며, 미국은 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국 군사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지원할 내용에 포함된 것은 다음과 같다. 대잠입작전용 강안 순찰함정 4척, 1개 치안대대급 전투부대를 무장할 M-14 자동소총과 기관총, 3개 공병대대를 무장시킬 장비들이었다. 이 지원은 이전에 공약되었던 1대의 구축함 에스코트와 여러 척의 순찰선 지원에 추가되어 지원되는 것이었다. 여기에 1대의 F-5 비행기와 헬리콥터로 편조되는 혼성부대가 지원하게 되었다. 6월 1일 650명의 장교와 사병들은 포트 막사이사이(Fort Magsaysay) 기지에서 훈련을 시작했으며 다른 군사 기지에서 모집된 인원들은 막사이사이 기지로 수송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초계획에서 필리핀 민사활동단이 배치되는 시기는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킨 후 60일이었다. 이 기간은 공병장비가 필리핀에 수송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 15일은 훈련지역으로 이동 및 하역, 45일은 장비훈련에 필요한 기간이었다. 부대를 베트남에 수송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5일로 계산하였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파병부대의 출발에 소요되는 시기와 기간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했다. 파병부대들이 필리핀에 남아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파병법안에 반대한 집단의 반대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베트남 주둔 미군지원사령부는 만약 지금은 가능하지 않지만 훈련장비가 계획된 대로 45일 이내에 준비된다면 과병일은 상당히 앞당겨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과병일자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합참의장은 필리핀 민사활동단의 개인훈련과 부대훈련을 베트남군지원사령부에서 실시한다는 제안을 했지만 이 제안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만약 훈련을 받지 않은 부대가 베트남에 배치되어 미국과 자유세계의 전술부대들과 함께 전술작전을 수행한다면, 이들에 대한 안전과 경비도 이들 부대들이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합참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첫째 이유였다. 둘째 이유는, 만약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필리핀 민사활동단이 공격을 받는다면 그리고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된다면, 필리핀과 미국 정부는 모두 정치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태평양사령관의 제안은 법안이 통과되면 30일 이내에 선발계획단을 먼저 과병시키고, 60일 이내에 선발부대를 도착시키며, 90일 이내에 주력을 도착시킨다는 것이었다. 이 제안은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지만 계획보다 일찍 필리핀 그룹을 배치시켜야 할 절대적인 필요가 있을 때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과병부대의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과병 준비기간 4개월(120일)의 타임테이블을 받아들였다.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리핀은 미국 기동훈련팀 2명의 지원을 받았다. 베트남 주둔 미 육군 소속의 이 팀은 베트남 작전에서 특별하게 사용되는 전술에 대한 교육과 M-16 소총 훈련을 지원했다. 한국 주둔 미 8군 소속의 팀은 M-113 운전과 정비훈련을 시켰다. 필리핀에서의 훈련기간 동안 자금과 장비의 부족과 각종 퍼레이드와 의장행사에 훈련부대들이 동원되어 훈련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훈

련일정은 계획된 것에서 변경이 있었다고 해도 훈련 결과는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훗날 민사활동단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성공시키는데 기여했다.

베트남 과병 필리핀 민사활동단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현실화 되었으며 총 지원 규모는 3천6백만 달러였다. 대부분 도자와 트럭 같은 중장비의 운영 유지비용이었다. 필리핀 정부는 민사활동단에게 정규 급여를 지급하고, 미국은 해외수당과 일당(개인당 1일 \$1)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외수당은 1인 1일을 기준으로 계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었다(표 2).

미국은 추가로 과전되는 필리핀인에게 보급물자, 수송, 기타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 1종 보급품은 미군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1종 지원은 미 군수지원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여기서 제외되는 품목은 베트남 군 보급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1일 1인에게 지급되는 쌀 800g과 소금 15g이었다. 미국 1종 분배표에 포함되지 않은 필리핀 음식물과 기타 품목들은 필리핀 민사활동단이 구매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이 품목을 필리핀 항에서 베트남까지 수송을 하는 것은 미국이 담당했다.

2종 보급품과 4종 보급품은 미 군수시스템을 통해 공급되었다. 그중 필리핀 활동단 요원과 베트남군 요원에게 필요한 품목으로서 미군이

<표 2> 필리핀군의 해외근무수당

계급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주임 상사	상사	상병	이병
1일 수당	\$6.00	\$5.00	\$5.00	\$4.50	\$4.00	\$3.50	\$3.00	\$1.50	\$0.50	\$0.20	\$0.10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베트남 군수시스템을 통해서 공급되었다. 필리핀 활동단 요원에게만 필요한 보급품은 필리핀 군수시스템을 통해 공급되었다. 베트남 군수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된 장비품목에 대한 제3차 정비수리부품은 45일분 재고량을 베트남 군수시스템을 통하여 유지되도록 인가되었다.

3종 보급품인 석유, 오일, 윤활유와 4종 보급품인 탄약은 모든 탄종과 조명탄을 포함하여 미 군수시스템을 통해 공급되었다.

제3차 정비는 가능한 것에 한하여 필리핀 활동단이 실시하도록 했다. 필리핀 활동단의 능력 혹은 베트남군의 능력을 초과하는 장비의 정비와 유지는 베트남 주둔 미군지원사령부가 담당하기로 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장비와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 중 그 원인이 전투사용, 정상적 마모,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인한 장비의 수리비는 미국과 베트남이 담당하기로 했다.

여행 및 수송에 관한 지원책임도 결정되었다. 필리핀 활동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베트남과 필리핀을 여행하는 필리핀 단원의 여행 및 수송비용은 베트남의 미군지원사에서 제공했다. 인력과 장비의 이동은 미군부대에 적용하는 장비 이동기준과 우선순위를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 기준에 의해 적용되는 수송과 여행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된 내용을 포함했다. 필리핀 활동단의 병력교체, 필리핀으로 소환되는 인력, 사망자의 유해귀환, 필리핀 활동단의 활동과 관계되는 조사팀의 이동, 필리핀 활동단의 수용시설 사용에 대한 비용은 미국이 담당하기로 했다.

기타 지원으로서 필리핀 민사활동단 요원에게는 미국 식당, 막사, 클럽, 종교시설, 군매점, 군식품점, 우편시설, 미군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

되었다.

지원에 따른 문제와 훈련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져 가고 있을 즈음 필리핀 군 참모총장 마타(General Ernestos Mata) 대장과 9명의 수행 장교들이 1966년 7월 20일 3일간 회담 및 시찰을 목적으로 사이공에 도착했다. 비공식 방문에서 마타 대장은 웨스트모랜드 대장에게 필리핀 민사활동단의 군사력에 대하여 마르코스 대통령의 심경을 전달했다. “시스템적인 화력이 부족하다. 특히 자동화 무기, 대형 박격포, 포병 분야의 화력이 부적절하다. 필리핀 경비대대는 장갑차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군부대처럼 표준화된 장갑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만약 필리핀 기지가 대규모 공격을 받을 때는 인접해 있는 미국과 베트남의 전투부대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마르코스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이러한 토론의 대부분은 탁상공론으로 끝났다. 그 이유는 베트남군 지원사령부가 3일전에 필리핀 활동단에게 17대의 APC 장갑차, 6문의 105mm 박격포, 8문의 4.2인치 박격포, 2대의 M41 탱크, 그리고 630정의 M16 소총을 인가했기 때문이었다.

필리핀과 미국의 군사운용협정(마타-웨스트모랜드 협정, 1966년 7월 20일)과 필리핀과 베트남의 군사운용협정(마타-땀 협정, 1966년 8월 3일)이 조인됨으로써 필리핀 파병 법안의 세부조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되어 갔다.

군사운용협정서에 ‘베트남의 필리핀 민사활동단의 임무는 자유세계 군사지원정책위원회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는 것이 명기되었다. 이 협정에 의한 필리핀 활동단의 기본임무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 지역에서 건설, 복구, 공공업무, 전기·수도 등 편의시설, 그리고 기타 사회경제적 활동에 관한 기술적 조언을 행한다. 지휘통제는 베트남의 필리핀

민사활동단 단장에게 주어진다. 필리핀 정착촌건강팀과 지방병원에서 근무할 의료수술팀은 베트남 정부의 공중보건청과 미국의 국제개발 에이전시와 협조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임무로 명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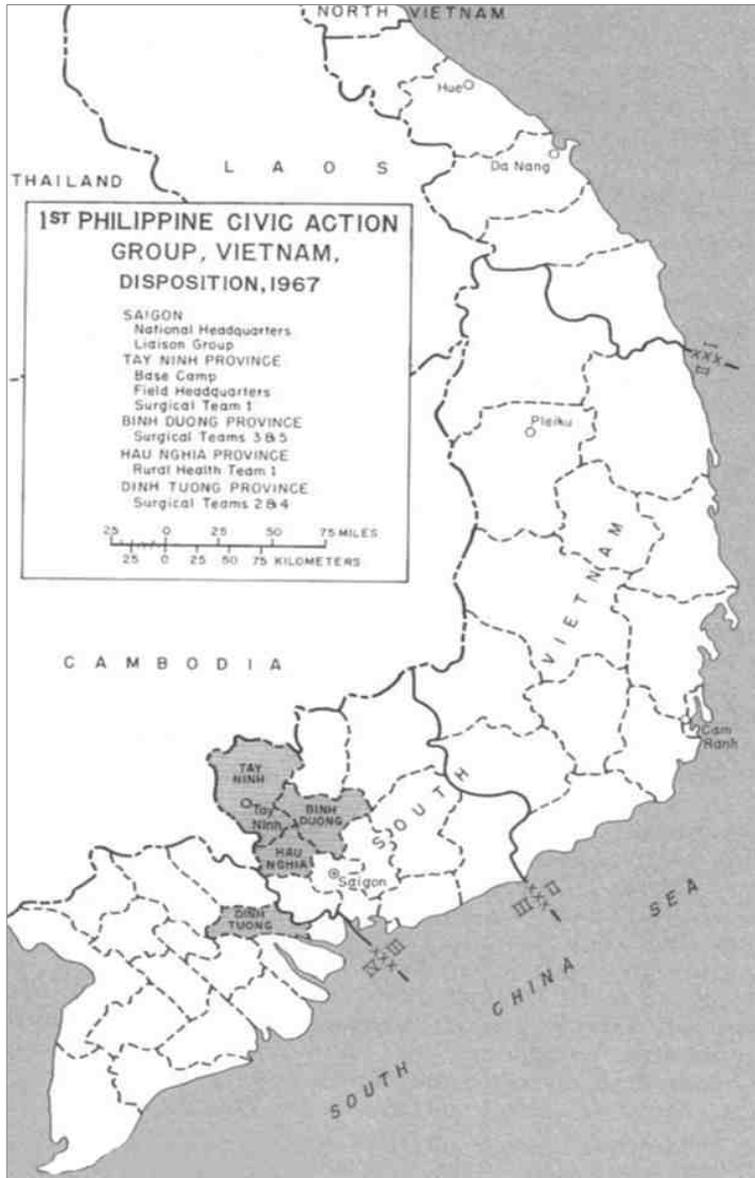
필리핀 민사활동단의 운용과 관련하여, 베트남지원사령부는 롱안 지방(Long An Province)에서 필리핀 민사활동단이 활동하는 것을 원했지만, 이 지역은 구획이 잘 정리된 지형이기 때문에 필리핀 활동단을 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판단했다. 다음으로 허우응히야(Hau Nghia) 지역이 검토되었지만 이 지역은 부분적으로 필리핀 군대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바오짜이(Bao Trai) 도시 주변 지역이 선정되었다. 최종적으로 6월 1일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떠이닌(Tay Ninh) 지역에 필리핀 활동단의 배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참모에게 지시했다. 바오짜이 지역을 원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바오짜이 주변에는 미 제25보병사단의 작전이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필리핀 활동단의 운용은 불필요했다. 또 캄보디아와 필리핀은 역사적인 우호관계가 있으므로 캄보디아 국경 가까이의 지역에 필리핀 활동단을 새롭게 위치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베트남 정부로서는 이 제안에 대해 불만이었다. 베트남 국방장관 응우옌후코(Nguyen Huu Co) 중장은 베트남의 불만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전쟁지역 “C”에 근접한 곳에 부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한다. 그러나 만약 필리핀 활동단이 떠이닌에 배치된다면, 이곳에 거주하는 정치성향이 강한 종교집단, 일명 까오다이(Cao Dai) 집단 주민 10만명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유로 필리핀 민사활동단의 활동 지역은 바오짜이에서 떠이닌으로 다시 검토되었다.

처음부터 위치 변경을 반대한 필리핀 정부는 베트남의 필리핀군 지휘관 가덴시오 토비스(Gaudencio V. Tobias) 준장을 파견하여 상황을 파악하도록 했다. 그는 허우응히야 지방 성장과 떠이닌 지방 성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브리핑을 받은 후 각 지방에 대한 지상 및 공중정찰을 실시했다. 제25 미 보병사단 요원 및 베트남 제2군의 요원들이 필리핀 활동단에게 제공하게 될 지원 내용과 안전에 관하여 브리핑을 했다. 떠이닌 지역을 선정한 주 이유는 베트남의 출몰이 심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떠이닌 지역이 최종 활동지역으로 승인되었다(요도 3).

필리핀 민사활동단은 베트남에 도착과 함께 지역안전을 자체적으로 담당하기로 합의하였고 반면 미군은 필리핀 경비대대가 지역안전을 인수할 때까지 이 지역 안전을 담당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필리핀 활동단은 떠이닌 시내와 외곽 지역에서 모든 필요한 안전 보호를 이들로부터 받게 되며, 105mm와 155mm 부대의 지원과 인접해 있는 175mm 기관총 부대의 비상지원을 받게 되었다. 안전상황은 떠이닌 지방에 제196정보병 여단이 이동해 오게 됨으로써 더 좋아졌다.

필리핀 민사활동단의 제1제대는 1966년 7월 28일 도착하여 떠이닌에 위치할 기지를 조사하여 부대배치를 검토했다. 8월 16일 제1제대에 이어 100명의 장교와 인력으로 구성된 선발계획단이 도착했다. 이들의 임무는 베트남과 미국의 군사 에이전시와 협조하는 것으로서 리셉션, 수송, 미도착 활동단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주로 협조하는 것이었다. 선발계획단 중에는 3개의 민사활동팀이 있었다. 이들은 의료행위와 치과진료를 주변 정착촌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첫 7주 동안 이들 팀은 1주일당 2,000명의 환자에게 의료지원과 치과치료를 했다. 제3제대는 1966년 9월 9일에 도착했다. 60명의 운전사, 정비기술자, 요리사

<요도 3> 제1차 필리핀 민사활동단 배치도(1967)



캠프벙커를 재구축하고 있는 필리핀 부대

들이었다. 1966년 9월 14일 토비스 장군과 참모들이 도착함으로써 필리핀의 민사활동단은 완전하게 편성되었다. 2일 후 필리핀에서 최근에 도착한 741명의 남자들이 캄란만(Cam Ranh Bay)으로부터 떠이닌(Tay Ninh) 기지로 수송되었다. 이때 떠이닌 기지는 대규모 집단을 수용할 준비가 충분하게 되어 있었다.

그 다음으로 떠이닌에 도착한 그룹은 의사, 간호원, 포병 그룹이었다. 이들은 9월 26일 도착하였는데 비행기로 마닐라에서 사이공을 거쳐 떠이닌으로 여행하면서 도착한 첫 번째 집단들이었다. 2개의 수술 팀은 미토(My Tho) 지역의 딘뜨엉(Dinh Tuong) 지방병원으로 1개의 지역의무팀은 허우응히야 지방의 수도 바오짜이(Bao Trai) 지역으로 배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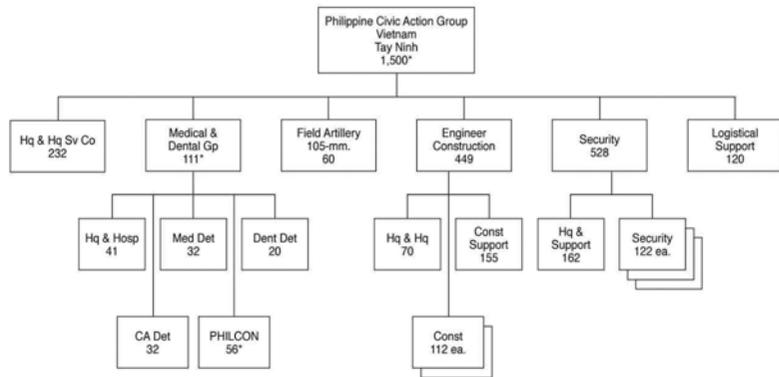
제1필리핀 민사활동단에 추가보급품이 전달되었다. 이때는 10월 1일 20명의 의사, 간호사 그리고 필리핀 부대의 의무기술자에 관한 작

전 및 행정 통제권이 토비스 장군에게 인계될 때였다. 10월 중반에 필리핀 민사활동단은 완편되었다(도표 3).

1966년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군은 그들 역사상 최대의 항공이동을 했다. 이 기간동안 필리핀 민사활동단의 주력부대는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필리핀 민사활동단 기지에 인접한 떠이닌 웨스트 공항(Tay Ninh West airport)으로 직접 수송되었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지시로 부대는 아침 이른 시간에 출발했다. 그는 탑승장에 많은 인파가 모일 기회를 주지 않고 언론에서 시끄럽게 떠들어 댈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가능한 조용한 시간에 파병되도록 했다. 이들이 도착함으로써 베트남의 파견된 총인원은 2,068명이 되었다.

초창기에 필리핀 민사활동단이 수행한 주요 활동은 기지캠프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 기지는 활동단이 주둔하는 안전지역으로서 지어졌지만 훗날 떠이닌 주민에게 넘겨줄 모범마을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설하였다. 이 마을은 200개 이상의 조립식 건물이 들어선 최초의 필리핀 민사활동단 마을이 되었다.

<도표 3> 필리핀 민사활동단, 베트남



11월 말, 탄디엔(Thanh Dien) 숲의 동쪽을 연하는 정착촌 도로를 보수하면서 제한된 공병작업을 시작했다. 한때 베트남의 요새였던 숲 지역은 필리핀 민사활동단이 두 번째로 정착촌 정리작업을 수행하는 지역이 되었다. 도로 보수가 됨으로써 숲은 정리되었으며, 보수된 도로와 교량은 모두 4개였다. 500ha의 농지를 정리하여 떠이닌(Tay Ninh) 지방에서 피난 온 피난가족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다.

필리핀 민사활동단은 83,000장의 베트남 언어로 된 전단지를 만들어 살포했다. 전단지는 공화국 법률 4664호(베트남 지원법) 내용, 필리핀의 참여, 앞으로 수행할 인도주의적 임무를 명기하여 주민들에게 배부되었다.

첫 번째 사상자가 11월에 발생했다. 사이공에 호송임무를 띤 7명의 사병이 떠이닌의 짜보(Tra Vo)에 매설된 크레모아 지뢰를 건드려 부상을 당했다.

9월과 10월 초 사이에 내리는 몬순계절 비 때문에 건설 중장비의 사용이 제한을 받았지만 열악한 기상조건에도 불구하고 몇몇 공병 작업은 계속 수행되었다.

1966년 12월 1일 탄디엔(Thanh Dien) 숲 지역의 정착촌 정리 작업이 시작되었다. 베이아니안(Bayanihan)으로 지정된 특별임무팀이 편성되어 임무를 수행했다. 이 팀의 구성은 1개 증강된 공병건설중대, 1개 증강된 경비중대, 1개 폭발물처리반, 1개 포병전방관측반, 2개 민사활동팀이었다. 이 팀의 경비는 4개의 베트남 지방군 혹은 민병대가 담당했다. 폭발물처리팀은 거의 전 지역에 매설된 지뢰 부비트랩의 불발탄을 제거하기에 매우 바빴다. 특별임무팀 베이아니안은 12월 한 달 동안 적으로부터 박격포, 수류탄, 저격병의 공격을 4차례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12월에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필리핀 대통령 마르코스의 요청으로 마닐라를 방문하였다. 그는 이 방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필리핀 민사활동단의 업적을 높이 평가한다. 만약 필리핀 정부가 베트남에 더 많은 기여를 원한다면 UH-1D 헬리콥터 소대를 제공하겠다. 필리핀 경찰이 받는 교육훈련과 비슷한 교육훈련을 베트남 경찰에게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를 위해 약간의 필리핀 고문단을 베트남으로 파견하고 동시에 베트남의 경찰 후보생들을 필리핀으로 파견하여 필리핀 경찰과 함께 근무하게 하도록 요청한다고 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헬리콥터 소대를 구성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관심이 많다. 특히 베트남에서 임무를 종료한 후 이 헬리콥터를 필리핀에 이양할 것인가? 헬리콥터 조종사들을 훈련하여 베트남에 종사시키는 미국의 제안에 찬성한다. 제안된 헬리콥터 중에서 10대는 베트남에서 6대는 훈련을 위해 필리핀에 주둔시키는 것을 찬성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마르코스 대통령은 전체 프로젝트를 승인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다. 비록 마닐라 주재 미국대사와 필리핀 주재 미군사지원단의 고메즈(Gomes) 대장이 프로젝트에 동의하여 그대로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몇 가지 제한사항들이 있음을 깨닫고 있었다. 첫째, 미국은 현재의 필리핀 군사지원 프로그램에 반영된 지원 규모를 삭감하지 않고 헬리콥터 소대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필리핀은 조종사 훈련시설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훈련을 시키지 못하고 미국에서 훈련을 시켜야 하는 제한점이 있었다.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만약 필리핀 헬리콥터 소대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민사활동 임무를 지원할 수 있다면 베트남의 자유세계군(Free

World forces)으로부터 큰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필리핀 민사활동단과 협의를 하여 작성하게 될 장비편성표(TOE)에 25대의 헬리콥터 소대를 반영시키기를 원했다. 이 소대는 UH-1D로 무장되어야 했다 그 이유는 UH-1B 헬리콥터의 생산량이 감소되었고, 현재의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차출해 낼 수 있는량을 보유하고 있는 부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베트남을 제외한 곳에서 UH-1B 항공기를 차출할 부대가 없다면 소대를 창설할 때는 H-34 헬리콥터로 창설한 후 다음해에 UH-1D로 교체시켜 주는 수밖에 없었다. 필리핀의 H-34 조종사들을 휴이(Huey) 항공기에 탑승시키기 위해 훈련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시간이었다. 필리핀 공군 헬리콥터 소대들의 정비능력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체계적인 제3차 및 제4차 정비를 할 능력을 갖추었으며 예비부품의 확보를 제외하면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태평양사령관 샤프(Sharp) 제독은 베트남군지원사령부의 개념은 실행 가능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UH-1D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항공기를 필리핀 정부에 이양하는 것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항공기 부족과 필리핀 공군 능력의 결여 및 필리핀 정부의 애매한 태도에 비추어볼 때 이 계획은 실행 가능성이 없다고 샤프 제독은 보았다.

이 제안에 대해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다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계획은 타당성이 없으며 헬리콥터를 경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필리핀 조종사들에게 베트남의 필리핀 민사활동단의 작전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군사적인 면에서 이득이 될 것이다. 미국 당국은 필리핀 헬리콥터 소대와 필리핀 조종사들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일체의 검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필리핀 정

부는 다시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가까운 장래에는 필리핀 헬리콥터 소대를 독립적으로 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반응이었다.

“필리핀이 추가로 지원”하는 문제를 두고 고위급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탄디엔(Thanh Dien) 정착촌 프로젝트를 통한 필리핀의 평화노력은 지속되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베트콩은 1967년 1월 정착촌 프로젝트가 그들에게 근원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베트콩은 공세를 늘리며 강화했다. 특수임무팀은 가용한 모든 화력과 무기를 동원하여 무고한 주민이 연루되지 않은 지역의 베트콩을 향해 반격했다. 베트콩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정착촌 프로젝트는 꾸준하게 진행되었으며 드디어 4월 초에 첫 난민촌을 정착시키게 되었다.

필리핀 민사활동단에 대한 적의 저항은 강력했다. 베트콩은 직·간접적으로 탄디엔 지역을 공격해 왔다. 화력 공격과 불온전단지 살포를 감행했으며 히엵호아(Hiep Hoa) 지역의 필리핀 장비 저장소를 습격하여 왔다. 그러나 이들의 공격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필리핀 국내에서 전개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다음 연도 예산에 필리핀 민사활동단 지원예산을 반영할 것인가, 반영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다. 전년도에는 이 예산안이 하원에서 압도적인 81:7, 상원에서 15:8로 통과되었지만 이번에는 반대가 많아질 징후들이 나타났다. 반대하는 측은 35백만 페소의 예산을 필리핀의 도로와 수로를 건설하는 사업에 우선 배정하는 것이 베트남을 지원하는 것보다 우선한다는 것이었다. 1967년 3월, 민사활동단 예산을 반영한 예산안이 필리핀 의회에 상정되었다. 하원 대변인 빌라리얼(Cornelio T. Villareal)과 다른 의원들은 이 법안을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과, 미국 군사지원 공약을 충족시키도록 하기 위한 필리핀의

의무를 상기할 것을 강조하면서 민사활동단 지원예산을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같은 맥락에서 베트남의 끼 수상(Nguyen Cao Ky)은 3월 13일에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필리핀 민사활동단의 활동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의 서두는 필리핀 활동단의 노력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베트남에 깜짝 방문을 하여 친서에 대한 답장을 표시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마타 장군 일행을 대동하여 7월 16일 떠이닌(Tay Ninh)의 필리핀 민사활동단 기지에 도착하였다. 체류기간 동안 그는 공적이 있는 사람들을 표창한 후, 토비아스 장군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으며, 탄디엔 정착촌을 시찰했다. 대통령의 9시간 베트남 방문 뉴스는 7월 16일 오후 보도되었으며, 이날 저녁 필리핀 국민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깜짝 방문을 미국의 존슨 대통령의 전년도 불시 비밀 방문과 비유하면서 환호했다. “베트남에 대한 필리핀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마르코스 대통령은 “아니요, 우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합니다.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은 계획이 없지만 계속 검토하여 이 문제들을 해결할 것입니다. ...”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1967년 8월에 필리핀군의 교체계획이 있음을 알아챘다. 필리핀 정부는 당시 포트 막사이사이 군기지에서 두 번째로 필리핀 민사활동단에 자원할 인력을 모으고 있었다. 계획된 출발일자는 잠정적이었지만 선발부대는 1967년 9월 30일경에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600명에 달하는 장교와 병사의 주력은 1967년 10월 20일 이전에 베트남에 도착하며, 잔류부대는 1967년 12월 이전에 도착한다는 계획이었다. 최종 배치일자는 12월로 고정되었다. 고메즈 대장은

제2차 필리핀 민사활동단의 훈련을 매우 독려했다. 귀환하는 장병과 이들의 장비를 적극 활용하라! 필리핀 기동훈련팀을 처음 훈련단계부터 훈련시켜라! 이 훈련은 베트남에서 장비, 절차 및 작전지역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장병이 시키도록 하라! 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베트남군지원사령부는 필리핀의 기동훈련팀에게 “미국의 보급절차” 및 “미군장비기록 시스템에 관한 지침서”를 제공하여 숙지시키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고메즈 대장의 훈련안에 동의했다. 동의한 주요 이유는 필리핀 민사활동단의 임무를 변경시킨 것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웨스트모랜드 장군은 부대교체와 부대교체에 따른 훈련 지침을 다음과 같이 하달했다. “부대교체는 후임부대에게 직무교육(OJT)을 시킬 기회를 주기 위해 전임부대와 후임부대가 일정기간 합동 근무를 한 후 실시하지만 합동근무 기간 동안 작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라! 후임부대의 훈련계획은 베트남으로 새로 배치되는 부대가 수행할 업무소개, 베트남과 미군의 좋은 관계 유지 방법, 귀국하는 부대와 새로 배치되는 부대의 장병과 장비의 수송과 이동시 행동 수칙, 대부대의 집결과 이동시 안전 및 경계에 관한 행동수칙 등을 반영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개인별 소부대 단위로 부대교체를 하기 때문에 많은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정부는 합동근무 기간을 장기간으로 할 자금을 염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틀간의 합동근무 기간을 허가했다. 후임 부대의 배치 일자가 확정되면 항공기가 준비되는 즉시 가능한 빨리 부대를 교대하도록 계획하였다.

필리핀 민사활동단의 교대 준비는 1967년 11월 27일에 시작되었다. 이때는 제1차 필리핀 민사활동단의 군사훈련팀이 후임부대를 훈련시

키기 위해 베트남으로부터 필리핀에 도착하는 날이었다.

마닐라 주재 미 대사는 1967년 11월에 필리핀군이 베트남에 추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특히 공병부대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상황별 대응지침을 만들었다. 그가 언급한 대응지침은 다음과 같다. 기여의 성격과 관계없이 필리핀군의 지휘구조에 의거 자체 지휘통제 기능을 갖는다. 필리핀 군수지원단에 후임부대의 지휘통제본부를 설치한다. 1~3개의 공병건설대대와 베트남의 공병부대를 필리핀 군수지원단에 포함시킨다.

필리핀 해군과 공군은 독자적으로 제안을 했다. 필리핀 해군이 지원하기로 제안한 것은 우선순위로 보면 다음과 같았다. LST(상륙선박과 탱크) 승무원 400명, LSM(상륙정, 기계화) 함정 16척에 탑승시킬 장병 224명, “MARKET TIME” 작전에서 운용될 1개 사단을 지원하는 PCP(해안 순찰선 혹은 고속정) 함정 12척에 탑승시킬 장병 100명, 그리고 “MARKET TIME”에서 운용될 1개 사단을 지원하는 PGM(박격포 포함) 함정 4척에 탑승시킬 장병 100명을 열거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는 제안을 했다.

필리핀 공군은 만약 미국의 항공기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면 필리핀 공군은 베트남에서 지원 임무를 담당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기(C-7A선호 혹은 C-123) 1개 편대를 파병한다. 비행기 수는 12대, 비행시간은 1개월에 60시간을 기본 쏘티로 한다. 비행편대의 병력은 기지지원 요구를 받지 않으며 50명의 장교와 203명의 사병으로 구성한다는 제안을 했다.

이상의 제안들을 모두 미국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필리핀 육군 공병대대 3개 대대에 총 병력 2,100명을 편성시켜 베트남에 파병시키는 것이 최선책이다. 만약 필리핀이 공병대대로부터 자체 경비부

대를 차출하기를 원하지 않고 독립된 경비부대의 편제를 원한다면 별도로 필리핀 경비지원군을 구성하여 파병시키는 것에 동의했다.

11월 14일 실시된 필리핀 상원의원 선거는 필리핀 민사활동단의 향후 운명을 가늠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사활동단을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야당 자유당 후보자의 캠페인에서부터 제기되었다. 베트남에 민사활동단을 파병하는 것은 국내의 긴급 요구사항들을 해결해야 할 예산을 베트남으로 빼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당이 상원의 통제권을 장악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필리핀 민사활동단의 예산요청을 연기하였다. 이로써 파병에 관한 야당의 캠페인 이슈를 무력화시켰다.

선거결과, 집권 여당은 교체되는 상원의석 8석 중 6석을 장악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 민사활동단 지원예산 9백만 달러를 반영하는 특별 예산안을 즉각 의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쉽게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자유당의원들 뿐 아니라 집권당인 국민당 의원들도 이 법안에 반대했다. 반대하는 상원의원들은 필리핀에 미군 기지를 주둔시키는 것과 베트남에 우방국 군대를 끌어들이는 미국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반대는 상원을 장악하기 위한 여·야간의 당파적 책략의 결과로 보였지만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 비판을 무마시켜야 했다.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마르코스 대통령은 확대 편성하여 상정한 필리핀 민사활동단의 예산을 축소 조정하여 다시 상정했다. 축소 조정된 내용은 공병부대를 줄이는 대신 의무 종사자의 수를 증가시킨다는 것이었다.

민사활동단을 지원할 자금은 모두 집행되었으며, 예산은 아직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예산도 자금도 없이 민사활동단을 계속 주

둔시킨다는 상원의 비판을 피할 방법이 없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 비판을 저지하기 위해 명목상의 부대 철수를 발표하였다. 만약 의회에서 곧 어떤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마르코스 행정부는 자금의 부족으로 전 부대를 철수시켜야 했을 것이다. 명목상으로 부대를 철수한다는 발표를 한 또 다른 목적은, 수정예산이 통과되도록 하여 민사활동단의 지원자금을 확보하여 민사활동단이 완전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끝났을 때까지 이 예산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7월 8일의 임시국회에서도 이 예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행운이 나타나지 않았다. 베트남의 필리핀 민사활동단은 귀국하는 병력이 보충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달도 안돼 1,800명으로 감소하였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지시로 필리핀 국방부는 1968년 7월 31일에 마닐라 주재 미국 대사에게 필리핀 민사활동단을 1,735명에서 1,500명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통보했으며 그 다음날 이를 발표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이 감군은 8월 15일까지 완료하는 것이었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결심은 필리핀 민사활동단의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상원의 압력에 대한 마르코스 대통령의 절충이었다는 추측도 있었다.

미국 대사는 “이 발표는 필리핀 국외에 심각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를 필리핀 국방부장관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라고 했다. 미국 대사는 고메즈 대장이 개인적으로 필리핀 대통령을 만나 이 결정이 마르코스 대통령의 진정한 견해인지를 확인해 주기를 요청했다.

8월 3일 마타 국방장관은 고메즈 대장을 만나 필리핀 민사활동단의 규모를 삭감하는 것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세부사항을 검토했다. 장관은 이 문제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

다. 8월 8일 필리핀 국방장관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감군 명령은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고메즈 장군에게 통보했다. 미국 대사는 그 다음날 서태평양 수송장교로부터 1968년 8월 10~13일 동안에 필리핀 민사활동단 235명을 귀국시킬 항공기를 요청하는 공식 요청서를 받았다.

1968년 9월 5일 새로운 뉴스가 흘러나왔다. 필리핀 육군 참모총장 매누엘 엔(Manuel Yan)은 당시 훈련 중에 있던 과병 교대부대가 그 달 중으로 필리핀 민사활동단과 교대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발할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 엔 참모총장이 언론에 흘린 뉴스는 다음과 같다. 필리핀군의 정규예산은 민사활동단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을 흡수했다. 이 예산을 새로 과병할 교대부대를 지원할 자금으로 사용하겠다. 이 예산은 당시 회계연도에 계획된 사업예산을 절약하여 만들어진 불용액 예산을 전용하여 확보한 것이다. 교대부대의 임무는 필리핀 민사활동단에게 주어졌던 임무와 동일하지만 의료 활동과 치과근무에 더 치중할 것이다. 장비편성표는 수술팀과 정착촌보건팀에 각각 5명씩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정된다. 이 증가되는 인원수만큼 공병대대의 병력 인가를 줄인다. 대신 공병건설대대의 능력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경비대대에 인가된 장병을 활용하여 경비 임무와 공병임무를 이중으로 수행하게 한다. 경비대대 병사에게 공병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해 이중 훈련을(cross-trained) 시킨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2년간의 베트남 파견근무를 마친 필리핀 민사활동단의 요원들은 1968년 9월 16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교대되었다. 군사비 삭감과 장비편성표의 변경은 민사활동단이 비전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것을 필리핀 의회와 국민에게 재강조하려는 의도였다. 9월 17일 민사활동단은 “제1필리핀 민사활동단”으로 명칭이 공식적으로 변경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필리핀군 내부의 행정적 변경이었다.

필리핀에서는, 1968년의 감군 조치 이후 필리핀 민사활동단에 관한 이슈는 대중의 눈에서 잠정적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필리핀 국내의 언론은 다시 과병부대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민사활동단이 계속 주둔하는 것은 필리핀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신했다. 전쟁이 끝난 후 종전 협상 테이블에서 필리핀은 참전국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쟁 잉여물자의 분배과정에서 필리핀의 몫을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였다. 과병부대의 완전 철수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명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미국은 싸바(Sabah)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필리핀보다 오히려 말레이시아를 상징적으로 지지했다. 과병된 부대를 귀국시켜 중앙 루존(Luzon) 지역에서 발생한 혁(Huk) 소요사태를 진압하게 해야 했다. 필리핀 민사활동단을 지원하는 예산과 자금을 아무리 절약한다고 해도 필리핀으로서는 계속적인 재정부담이 된다. 필리핀 민사활동단에게 미국이 공병장비 1천7백만 달러와 연간 운영비 1백5십만 달러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필리핀이 분담해야 할 민사활동단 예산은 필리핀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필리핀의 국방예산에서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들이었다.

1969년 2월 새 장비편성표가 승인되었을 때는 필리핀 언론과 국민들은 이에 대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3월에 국민당 하원 전당대회는 민사활동단의 철수를 의결하고 이를 의료단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동시에 미국을 향해 필리핀은 더 이상 민사활동단에 대한 예산과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다고 통보했다. 이 상황은 미국이 민사활동단의 베트남 주둔을 원한다면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사활동단을 완전 철수시키는 것에 대비를 하든지 결

정하라는 뜻이었다.

이에 대한 미국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지금까지 완료한 필리핀 민사활동단의 건설임무는 바람직하게 수행되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베트남과 미국이 그만큼 자원을 사용하였다면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경비 대대와 포병대는 공격임무에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지원사령부의 공격작전의 전투력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필리핀군은 띠이닌(Tay Ninh)시 지역의 주민을 안전하게 지켰지만 자체방어를 위한 전투에만 참여했다. 이들이 안전하게 지킨 지역은 필리핀 기지 안과 작업장 주위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다. 심리적 효과면에서, 만약 필리핀 부대가 철군한다면 과병 동맹국 사이의 공동 결속감이 상실되겠지만, 필리핀 군에 대한 베트남인의 거부 감정은 무마될 수 있었다. 이는 두 가지 선택의 문제(trade-off: 선택과 비선택에 따른 이익과 손실)라고 할 수 있다. 필리핀인에 대한 베트남 국민의 반감은 전통적으로 베트남인의 외국인 혐오증(xenophobia)과 부패하고 미개발된 국가 혹은 국정이 불안정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려는 베트남인의 자존심 때문에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 결론을 내렸다.

4월 중순 미국 대사에 의하면 “우리는 베트남에 필캅(PHILCAG; 필리핀 민사활동단)을 주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주도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만약 우리에게 모든 비용을 책임지라고 하는 필리핀의 요구에 굴복하여 모든 비용을 책임진다고 하여도 현재 필캅이 수행하는 성과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이 필캅의 계속 주둔을 간청한다고 해도 필캅은 이를 받아들여 부대 임무수행태세를 재정비하여 공세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더 이상 간청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 대사의 입장을 이해했지만 현 상황이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1969년 필리핀 선거 해를 맞아 필리핀 민사활동단의 문제가 큰 이슈가 되지 않도록 해 줄 필요가 있음을 믿었다. 만약 필리핀 민사활동단에 관한 결정을 하는 토의에서 미국이 참여하지 않고 필리핀에 일임하여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필캅 문제가 더 이상 필리핀 선거의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

미국무부의 의도는 일시적인 효과를 내는 것으로 끝났다. 필리핀 상원에서 국가예산을 통과시킨 6월 5일까지 미 국무부의 의도대로 필캅 문제는 잠잠해졌다. 상원에서 통과된 이 예산법안은 필리핀 민사활동단에 대한 예산과 자금을 반영하고 있었지만 이에 반영된 금액은 오직 단계별 철수에 소요되는 자금만을 포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일 수 없었다.

필리핀 대통령 선거 캠페인이 시작된 10월 초순부터 필리핀 민사활동단은 다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소규모 의료팀만 잔류시키겠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토의하기 위한 회담을 실시한다는 것을 선거 하루 후 언론에 발표했다. 그는 더 이상 필캅을 위한 자금을 의회에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11월 14일 마닐라 주재 미국 대사관에 다음의 통신문이 전달했다.

각하: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민사활동단의 철수를 결정하였음을 알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결정은 외교정책위원회의 건의에 의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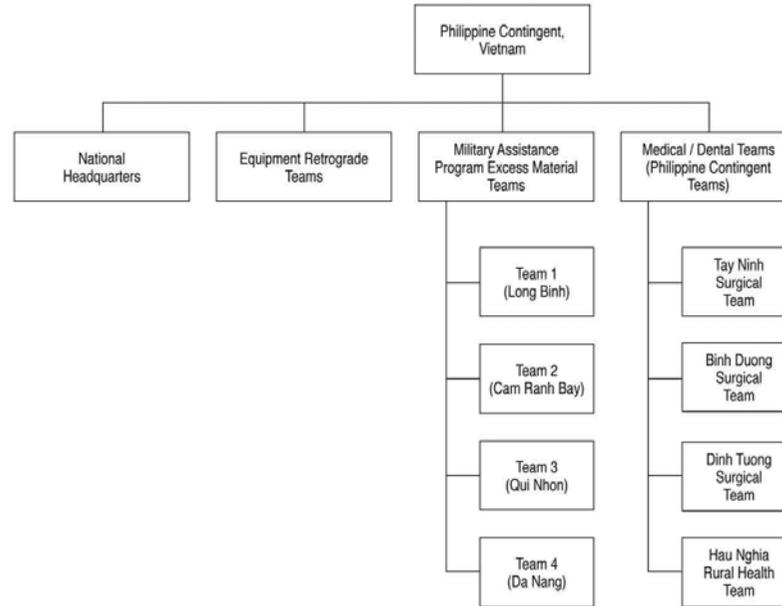
각하, 최고의 정성을 드리며 카를로스 로무로 외무부장관 드림
(Carlos P. Romulo, Secretary of Foreign Affairs)

필리핀 민사활동단의 철수발표로 인하여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은 파병 동맹국에게 미칠 영향이었다. 첫 영향은 11월 20일 타이 외무장관 타넬코먼(Thanat Khoman) 장군과 미국대사 번커(Ellsworth BUNker)의 회담에서 나타났다. 필책의 철군 결정과 관련하여, 타이 외무장관은 “파병 동맹국들의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할 때는 이를 상호토의하도록 합의되어 있음에도 필리핀은 철수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미국대사에게 따졌다. 다른 파병 동맹국들도 필리핀 정부가 최근 철군결정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미국에 통보했을 것으로 의심하였다.

필리핀군의 재배치계획은 1969년 11월 25일 시작되었다. 선발단은 2조로 나뉘어 C-130 항공기로 1조는 12월 1일에 수송되고 2조는 1주일 후에 수송되었다. 주력부대는 필리핀 LST로 12월 13, 15일에 이동했다. 출발과 동시에 떠이닌(Tay Ninh) 기지캠프는 미 제25보병사단으로 전환되었다. 필리핀 민사활동단 본부는 필리핀의 보나피시오(Bonaficio) 캠프에 재설치되었다.

주력부대가 떠난 후, 필리핀군이 사용했던 장비중 미국과 베트남 소유의 장비는 반환해야 했기 때문에 44명으로 구성된 장비반환팀을 편성하여 잔류시켰다. 1970년 1월 21일 대부분의 팀이 떠났다. 반환팀도 장비 반환 서류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14명만 잔류시키고 떠났다. 마지막 남은 필리핀 요원은 2월 15일 베트남을 떠났다. 최종적으로 잔류한 필리핀 요원은 베트남의 필리핀 임시부대(contingency)로 재지정되었다. 이 부대는 본부, 군사지원프로그램 잉여물자팀 4개팀, 의료 및 치과팀 4개 팀이었다(도표 4). 임시부대의 모든 요원은 필리핀 본국의 국군 소속으로 전환되었으며 인가된 병력은 131명이었다. 131명 중 66명은 의무, 치과, 수술 의사와 기술자들이었으며 떠이닌, 미토, 푸끄엉,

<도표 4> 베트남 필리핀 파견단 조직도



바오짜이(Tay Ninh, My Tho, Phu Cuong, and Bao Trai) 지역으로 배정되었다. 36명은 군사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잉여물자팀 4개 팀에 각 9명씩 배치되었다. 이 팀은 롱빈, 다낭, 꾸년, 깜란(Long Binh, Da Nang, Qui Nhon, and Cam Ranh)에 위치했다. 나머지는 29명은 사이공의 전국 본부에 배치되어 통제 업무와 행정임무를 부여받았다.

미군지원사령부는 베트남군 합참의장과 협조하여 필리핀 임시부대의 안전을 책임졌다. 필리핀 본부요원은 사이공 지역의 미군 숙소에 배정되었으며, 작전부대들은 베트남 혹은 미군기지 내에 위치시켰다. 지금까지의 정책을 유지시키기 위해 필리핀 임시부대에게는 공격용 무기가 아닌 방어용 무기만을 휴대하도록 했다. 미국과 베트남은 필리

핀 임시부대를 공세적 군사작전에 투입시키지 않았다.

지금까지 필리핀의 참전에 관한 배경과 최종 철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필리핀의 제1차 임시부대는 1964년에 남베트남에 도착했다. 제1차 필리핀 민사활동단은 1966년에 도착하여 이전에 활동하고 있던 최초의 임시부대를 흡수하여 예속시켰다. 1970년 초에 필리핀의 제2차 임시부대는 필리핀 민사활동단의 후방에 배치되었다. 이 부대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이전의 필리핀 임시부대가 수행했던 임무와 거의 동일했다.

필리핀 민사활동단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16.4km의 도로, 11개소의 교량, 169동의 빌딩, 10동의 탑, 194개소의 도랑, 54개소의 난민센터를 건립했다. 7.78ha의 숲 땅 개척, 2,225ha를 마을로 전환, 10ha를 시범농장으로 만들었다. 기타 환경개선 프로그램으로 소규모 건설, 복구 혹은 수리사업을 했다. 복구사업으로 2개의 활주로(airstrip), 94km의 도로, 47동의 빌딩, 12개소의 외곽초소, 245개소의 우물을 복구했으며, 장비의 유지와 정비요원 32명을 훈련시켰다. 132명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했으며, 217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했다. 1,065개 가정을 정착시키고, 162,623파운드의 음식 상자를 나누어 주었다. 14명의 은둔자의 스폰서가 되었다. 의무활동으로 724,715명에게 의료혜택을 주었으며, 218,609명에게 치과 혜택을, 35,844명에게 수술을 실시했다.

필리핀 민사활동단의 공헌과 성과를 베트남 대통령 티에우(Thieu)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필리핀 민사활동단은 획기적인 개발 프로그램으로 베트남에 크게 기여했다. 이들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은 공산통치하에서 살았던 많은 국민을 정부 통제 하에 오도록 도왔다. 그리고 이들은 베트남 국민에게 자신감을 주었다.”

평화의 노력

Pacification Efforts

필리핀 민사활동단의 평화노력은 이 부대의 일반 역사와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평화노력은 이 활동단의 통합된 기본임무였다. 하루하루 닦치는 식의 일일업무 같은 성격도 있었지만 이렇게 수행되는 일상업무는 모두 평화를 지향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한 연구가 곧 기본연구라고 할 만큼 평화를 위한 노력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필리핀 민사활동단은 정부가 베트남에 공병건설, 의무, 정착촌개발 노동자로 구성되는 임시부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법안을



필리핀 민사활동단의 의료활동

필리핀 의회가 통과시킴으로써 존재할 수 있었다. 간략하게 그들의 임무는 건설, 복구, 공익근로자 개발, 용역, 빌딩, 사회경제활동에 관한 기술조연을 함으로써 베트남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2,000명으로 조직된 공병건설대대를 주축으로 편성되었다. 다른 부대들은 5명의 민사활동팀, 1개의 본부근무중대, 1개 경비대대, 1개 야전포병대가 합류되었다. 이 부대에 6개 수술팀과 초기에 필리핀 지원프로그램으로 임무를 수행해 오던 1개 정착촌보건팀이 배속되었다.

이들의 임무는 떠이닌(Tay Ninh) 지방을 발전시키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도청 근처 지역, 즉 한 때 베트남기지 지역이었던 탄디엔(Thanh Dien) 숲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1,000여 세대의 난민 가족을 위한 정착촌을 준비함과 동시에 주변 지역의 주민에게 민사활동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었다.

1966년 8월 16일 필리핀 선발요원이 주력부대의 도착을 협조하기 위해 도착했다. 이때 3개 민사활동팀이 함께 도착했다. 이들은 기지캠프 주변 지역에서 의료와 치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1966년 10월 주력부대가 도착한 후 이 작업은 본격화 되었다. 첫 주에 이들이 수행한 프로젝트는 떠이닌 웨스트(Tay Ninh West) 공항의 동편에 기지캠프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기지캠프는 필리핀 민사활동단이 철수한 후 난민정착촌으로 전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150개 영구 조립식 빌딩이 건설되었으며, 이 빌딩은 10km 도로를 연하여 들어섰으며, 배수 시스템과 전깃불 시스템을 갖추었다.

완성된 기지는 베트남 마을을 위해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였다. 만약 이 장소가 장기적으로 주요 훈련시설로 사용된다면 더 생산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기지를 목

격한 사람들은 믿었다. 일부 미국 오피서버들은 기지캠프 건설에 투입된 작업량과 재료량을 비판했다. 어떤 이는 기지캠프 설치에 관한 표준 기준을 제시하면서 남베트남에서 가장 호화로운 군사캠프 중의 하나였다고 비꼬았다. 어떤 이는 필리핀 본국에서 파병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판을 무마시키기 위해 베트남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소를 건설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장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만들어졌다. 그 중 하나는 베트남 정부군의 기지캠프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떠이닌(tay Ninh) 지역에 정규군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이지 못했다. 두 번째 안은 신설되는 대학의 모체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 안은 이 지역의 지방장관이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비중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었다. 대학 캠퍼스로 활용하려면 이에 필요한 프로젝트가 너무 복잡하며 거창해질 뿐 아니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지방장관은 만약 미국이 도와준다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맞섰다. 또 다른 안은 농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이 안도 마찬가지로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은 필리핀 민사활동단의 참모장이 제안한 것으로 민사활동 훈련센터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필리핀 그룹은 1966년 12월 이전에는 탄디엔(Thanh Dien) 숲을 정리하지 않았다. 이유는 기지캠프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이었다. 베트남 숲의 정리는 미군과 베트남군이 수행했다. 그러나 필리핀 그룹은 소규모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소규모 활동을 했다.

이들이 수행한 사업은 25km의 도로 수리, 의무실과 학교 개선, 운동장 건설, 의무민사활동 프로그램 시행 등이었다. 심리적으로 중요한



베트남의 박격포 공격을 받은 후 파편 제거활동을 하고 있는 필리핀 민사팀

의미를 갖는 사업을 수행했는데 그것은 카오다이홀리(Cao Dai Holy) 마을인 롱하(Long Ha)의 상가지역을 연결하는 35km 도로를 개선한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카오다이 종파로부터 필리핀 민사활동단의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띠이닌에 주둔하는 미군과 이 지역 베트남 관리들과 필리핀 민사활동단의 협력기구 2개를 창설했다. ‘띠이닌 친선위원회’와 ‘민사활동위원회’였다.

‘띠이닌 친선위원회’는 지방장관, 제196보병여단 지휘관, 필리핀 민사활동단 지휘관으로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몇 차례 소집되어 운영되었지만 얼마 지난 후 다른 비공식협조 채널이 만들어짐에 따라 해체되었다. 그러나 띠이닌 친선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과 회원의 이해관계에 관한 협조에 관한 책임”을 요약한 문서를 생산했다. 제목은 “필

리핀 민사활동단, 미 제196여단, 띠이닌 도청 사이의 상호 지원 및 협력에 관한 합의서”였다. 이 문서는 민사활동위원회(Civic Action Committee)를 창설하게 하는 모체서류로 기여했다.

‘민사활동위원회’는 두 번째 공식 기구였다. 위원장은 띠이닌 지방장관이 되었다. 필리핀 그룹의 수석대표 1명, 지방행정부장관, 국제개발에 대한 미국 에이전시 대표 1명, 연합 미공보실 대표 1명, 지역재건설 비서장, 정보국장, 찌에우호이(Chieu Hoi) 귀순 프로그램 의장, 사회복지국장, 경제근무국장, 미국의 띠이닌 지역에 대한 민사(S-5)참모, 미국제196보병여단 민사(S-5)참모, 필리핀 그룹 대표 1명, 관심 있는 지역구의 구역장들로 구성되었다.

‘시민위원회’는 매월 1회씩 개최하기를 희망했지만 번잡하며, 띠이닌 지방관리들과 중요하게 협력할 사항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주 소집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필리핀 민사활동단은 비공식 대면 접촉을 선호했다. 수시 약속을 정하여 서로 협력하며 연합작전을 시행했다. 필리핀 요원들은 베트남 관리들과 수시로 만나면서 인간관계를 넓혀나갔다.

여러 건의 민사활동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리핀 민사활동단은 ‘신 평화기법’을 도입하여 적용했다. 민사활동단은 전단지들 만들어 베트남 주민들을 설득했다. 전단지에는 베트남에 필리핀 민사활동단을 과병하게 된 필리핀 의회의 뜻을 요약하여 적었다. 필리핀 민사활동팀은 그들이 이곳에 온 것은 “건설이지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착촌지역 주민들에게 계속하여 강조했다. 이 결과 주민들은 외국의 전투부대들에게 보여 왔던 비우호적인 감정을 없애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필리핀 민사활동팀이 임무를 설정하며 이들은 이 임무를 위한 조직

과 참모진을 매우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활동할 시기와 활동할 은둔지역을 선택하여 작전을 수행했다. 은둔지역에 도착하여 목욕탕을 만들고, 아동 피복분배소를 만들었으며, 학용품 상자(school kits)와 교육용 교보재(teachers' kits)를 아동들과 교사들에게 분배하였다.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으며, 조립식 학교로 사용할 수 있는 키트(kits)을 전달했으며, 새로 지은 정착촌사무소와 임산부, 의무실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였다. 이어서 은둔지역 주민의 도움을 받아 민사활동팀을 설립했다. 민사활동팀의 의무요원은 의무클리닉을 설치하여 이곳에 간단한 수술과 특수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의자 등 필요한 의료기구와 시설을 갖추었다. 정기적으로 간단한 치과치료를 병행했다. 치료를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지역 주민들은 이들의 의료활동에 대해 크게 감사했다. 공병프로젝트를 통해 수차례 정착촌 도로를 수리했다. 민사활동단이 어떤 지역을 공식방문한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면 이 지역과 계속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자매결연을 맺어 협력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사활동단 요원들은 정착촌지역과 주민들과 친숙할 수 있었다. 수행된 프로젝트는 늘 소규모 형태이었지만 심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지역 주민이 어떤 프로젝트를 요청하면 이를 접수한 부대는 그 내용을 민사활동단 본부에 보고하였으며 보고를 받은 본부에서는 해당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결정했다. 프로젝트가 선정되면 이를 군사임무와 민사활동임무로 분류하여 각자 맡은 임무를 서로 협력하면서 수행했다.

탄디엔 난민정착 프로젝트는 필리핀 민사활동단의 주요 공병 과업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경험은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서, 즉 베트남의 전 지역에 적용시킬 수 있는 난민정착 프로그램의 모델로서 가치를 지녔다. 탄디엔 숲 정리는 미국이 수행한 ‘로마경작작전(Rome Plow

Operations)’과 아주 유사했지만 필리핀 공병단은 시범마을을 건설하여 정리된 토지를 개발했다는 점이 다른 점이었다.

비록 베트콩을 격파하는 것은 필리핀 임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찌에우호이(Chieu Hoi)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민사활동팀이 시행한 심리전 캠페인은 매우 적극적이며 생산적이었다. 민사활동팀이 해당지역으로 들어갈 때 먼저 정찰팀이 베트콩 가족을 색출하는 작업을 펼쳤다. 베트콩 가족으로 확인되면 민사활동팀이 나서 이들을 제압하여 정부 측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권장하고 나머지 가족도 베트남 정부 측으로 되돌아오도록 설득하게 했다.

비전투부대로서 민사활동단의 경비작전계획은 본질적으로 방어였다. 공병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야간에는 베트남 지역군 혹은 베트남 지방군이 지키는 외곽초소로부터 안전 보호를 제공받았으며, 주간에는 자체 경계부대를 편성하여 안전을 도모했다. 어떤 지역이 주요 프로젝트 지역으로 선정되면 이웃하는 모든 지역들의 주민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를 갖도록 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민사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베트콩의 습격이 임박했을 때 주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낼 수 있고 경고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아이디어는 무형의 자산을 생산하는 것과 같은 것 있었다. 필리핀 부대가 위치하는 장소는 아군 포병의 사정거리와 연락장교의 운용거리 안으로 한정하였으며, 떠이닌 지역 작전센터 혹은 미군 전술작전센터에 위치했다. 이 위치는 가용한 통신수단이 다양하기 때문에 민사활동단 본부와 쉽게 연결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었다.

민사활동단은 떠이닌 지방의 주민들로부터 우정과 감사를 받았다. 아시아인으로서 필리핀 민사활동단의 멤버로서 베트남 국민을 잘 이해하고 잘 통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다. 이들은 반유럽인 감정, 즉



지역사회 공연활동 중인 필리핀 민사활동팀

식민지 시대의 유산인 반유럽인 감정의 표적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다른 베트남인은 민사활동단체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민사작전 혁명개발 지원기구(CORDS: Civil Operations Revolutionary Development Support)’의 지역전술팀은 “어떤 지역 주민은 필리핀 요원이 암거래를 하며 여성을 겁탈하기 때문에 이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띠이닌 지방의 저명인사와 관리들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1967년 7월 이루어진 비밀 회담에서 띠이닌 지방 장관은 “필리핀인의 호색행위 정도가 지나치다. 필리핀 군인들이 부대 물건을 갖고 나와 시장에서 팔고 있으며, 지역 암시장에서 훔친 물건을 팔고 있다. 필리핀인들은 베트남인들보다 역사도 짧고 열등한 문화권에서 온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생각은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지방 관리들과 일반 주민들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는 상호 협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디엔 난민 정착 프로젝트

The thanh Dien refugee Resettlement Project

띠이닌 지방장관의 제안으로 필리핀 민사활동단에 의해 선정된 난민정착 프로젝트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농업용 수풀지역 4,500ha 정리, 주민단지용 100ha 개발, 도로건설 41km, 22번 국도에 연결되는 탄디엔과 신설 정착촌마을 프억디엔(Phuoc Dien)을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하여 1,000세대의 난민가족의 가정을 정착시켰다.

20년 동안 베트남의 요새였던 탄디엔 숲은 ‘C-40 구역’ 베트남 중대와 베트남 게릴라 2개 소대, 베트남 특수임무 1개 소대가 주둔하고 있던 본거지였다. 탄디엔 수풀지역에 이들이 출현한다는 사실은 도청소재지가 있는 띠이닌 시를 위협할 뿐 아니라, 북으로 13번 루트를 연하는 프억닌(Phuoc Ninh) 구역의 마을과 은거지를 위협하고, 동으로 22번 국도를 연하는 푸쿠엥(Phu Khuong) 구역의 마을과 은거지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탄디엔 숲을 정리함으로써 베트남은 남쪽으로 이동해 갔으며 베트남 정부는 바인꼬동(Vain Co Dong)강까지 통제지역을 확장시켰다.

정착촌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숲 속의 적으로부터 전개되는 조직화된 저항을 없애야 했다. 이것은 미국 제196경보병여단과 베트남지역군 및 시민군이 집중적으로 수색 소탕작전을 전개하여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이전에 완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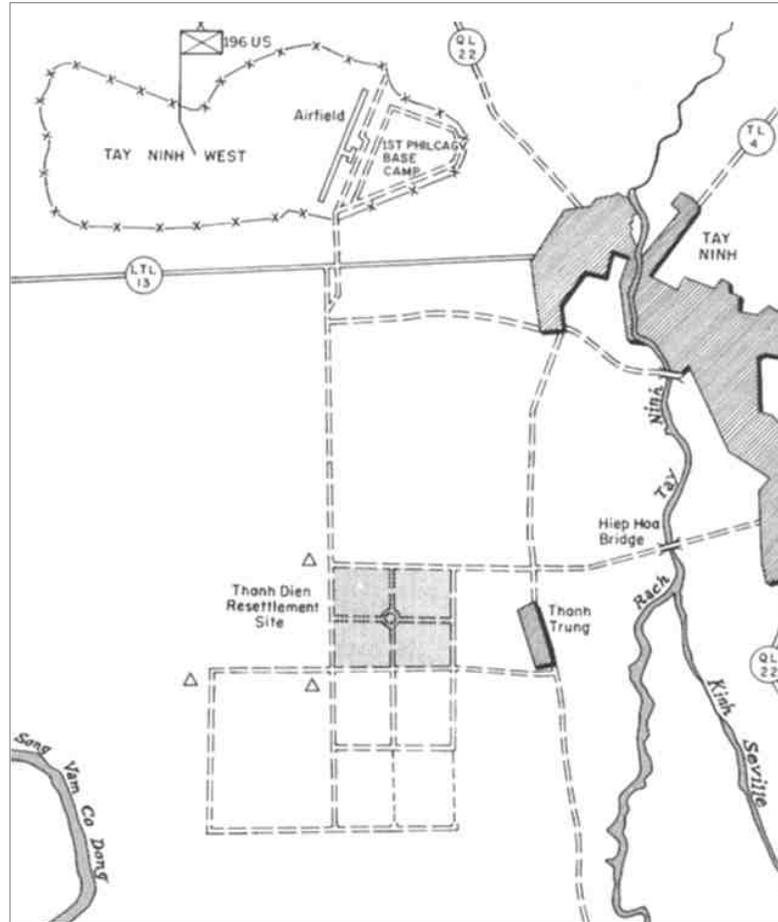
필리핀 민사활동단은 1967년 12월 1일 특수임무부대 ‘베이아니안

(BAYANIHAN)'을 편성하여 프로젝트를 추진시켰다. 이 특수부대는 1개 증강 공병건설중대, 1개 증강 안전중대, 1개 폭발무기 해체팀, 1개 포병 전방관측팀, 2개 민사활동팀으로 구성되었다. 특수부대 베이아니안은 평화를 회복한 '앞탄트랑(Ap Thanh Trung)' 마을을 프로젝트 지역으로 선정하여 접근했다. 이 부대는 베트남과 베트남 협력자(sympathizers)들만 사용하던 우마차길(oxcart trail)을 따라서 서쪽으로 전진했다(요도 4). 부대는 글자 그대로 인치단위로 숲 지역을 건넜다. 저격병, 지뢰, 부비트랩을 극도로 조심하면서, 또 공격에 대비하여 자체방어를 강화하면서 나아갔다. 이 작전의 전 단계에서 3~4개 지역군 중대들이 외곽안전을 담당했고 이 특수부대를 보호했다.

이러한 보호와 주의에도 불구하고 특수부대 베이아니안(BAYANIHAN)은 작전을 시작한지 6주 동안에 적 소규모 부대로부터 8차례의 소총사격, 수류탄 투척과 박격포 공격을 받았다. 이로 인한 피해는 다음과 같다. 필리핀 사병 2명 전사, 10명 이상 부상, 2대의 도차와 1대의 장갑유인차량 심각한 파손 및 1대의 도로 복구 그레이더와 탱크 1대의 가벼운 손상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베트남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명백했으며 적의 저항 강도가 점점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30일 계획된 완료일까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필리핀 공병은 숲의 땅을 정리해 나감과 동시에 모범마을을 만들기 위한 도로형태를 닦으며 경작할 준비를 했다. 도청 난민근무소(Province Refugee Service)는 준비된 위치에 난민촌 주택을 건설했다. 필리핀 공병단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3월 말까지 마을의 동쪽 절반이 완성되었으며, 4월 4일에 50명의 난민 가족이 처음으로 지방 행정청의 지도를 받으며 정착했다.

<요도 4> 제1차 필리핀 민사활동단이 임무를 수행했던 때이던 지방



이 마을은 이제 지역군, 시민군, 여러 지방 기관에서 온 베트남 정부 관리들로 구성된 민·관·군팀을 구성했다. 이 팀은 필리핀 특수민사활동팀과 밀접히 협력하면서 신생 난민촌이 자생하는 마을로 정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민사작전 혁명개발 지원기구(CORDS:

Civil Operations Revolutionary Development Support)와 ‘가톨릭안전재서비스 기구(Catholic Relief Service)’는 물품을 분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마을 주민의 능력과 기술에 적합한 경제활동 모델을 개발하여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들이 지원한 경제활동 지원모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예를 들면, 목공소는 목공도구를 기증받아 필리핀사병 클럽에 납품할 가구를 만들어 소득을 올렸다. 밀짚모자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 외에도 생산 활동을 위한 지원, 소형 단기 영농자금 대출, 채소씨앗 분배, 적합한 주민을 선발하여 돼지막사 무상지급, 필리핀에 설치된 ‘록펠러국제쌀조사국’에서 개발한 ‘IR-8’ 쌀 품종 생산을 위한 시험 프로젝트의 시행을 도왔다. 농지 정리와 고르기 작업이 다 된 농토는 새로 정착한 가족 한 세대당 0.5ha씩 배분되었다.

난민정착촌 개발은 지역정리, 구획화, 마을건설 및 시설 입주를 모두 포함하는 사업이었다. 마을 중심부에 들어선 시설은 다음과 같다. 마을사무소, 안내 및 정보센터, 의무 및 임산부 클리닉 센터, 10개 교실을 갖춘 학교, 공동시장, 발전소, 그리고 희망탑이다. 공동시장과 발전소는 도청 당국이 건설하여 기부했다. 희망탑(A Monument of Hope)은 마지막으로 건설된 건물로서 정신적 상징물이었으며 마을 중심부에 세워졌다.

경제발전이 정착촌 마을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다. 치안을 위해 경찰서를 창설하려고 노력했다. 거주 구역별로 마을 촌장들을 지방장관과 입주자들이 선출하여 임명하였으며 촌장은 각각 그들의 대변인을 임명했다.

1967년 11월 30일 탄디엔(Thanh Dien) 난민정착 프로젝트와 히엡호아(Hiep Hoa) 다리 건설이 완성되었다. 완성된 다음날 준공 특별행사장

에서 이 두 프로젝트 완성물은 베트남 당국에 인계되었다. 다리는 베트남 국방장관 응웬반비(Nguyen Van Vy)가 귀빈대표로서 개통시켰다. 의장행렬이 그의 앞을 통과할 때 국방장관은 베트남 대통령이 필리핀 민사활동단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축사를 대독했다. 필리핀 대사 살시도(Luis Moreno Salcedo)는 답례에서 필리핀 민사활동단의 노고를 치하하는 필리핀 대통령의 축사를 낭독했다.

불행하게도 이 행사가 탄디엔 지역에 ‘전쟁의 종식’을 알리는 마지막 행사가 되지 못했다. 1967년 12월 16일 약 200명의 베트콩 게릴라들이 마을에 침입했다. 이들은 정치선전 후에 새 정착인들에게 마을을 떠날 것을 경고하였다. 마을사무소, 발전소, 그리고 시멘트로 지어진 벽돌집들을 불태웠다. 게릴라들이 마을을 유린했지만 필리핀 민사활동단은 재빠르게 복구시켰다.

제 4 장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Australia and New Zealand

오스트레일리아

Australia

존슨 대통령의 “더 많은 깃발(more flags)” 호소가 있기 오래전부터 오스트레일리아는 베트남을 지원하고 있었다. 1962년 오스트레일리아는 비동맹국에 훈련고문으로 30명의 정글전 전문가를 파견했다. 그들은 베트남 북부 지방에 위치하여 비슷한 임무에 종사하는 미국 고문팀을 보강했다. 2년 후 이 그룹은 6대 캐리부(Caribou) 항공기와 74명의 정비요원들을 갖춘 1개 항공과전대와 교대되었다. 동남아시아 항공사로 통합된 이들은 흩어진 베트남 군부대에 배치되어 효과적으로 군수 지원을 도왔다. 수년에 걸쳐 오스트레일리아 화물항공기 부대는 작전 준비태세와 출격당 톤수(tons per sortie)에 있어서 계속 평균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미군부대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지원은 군사 지원에 한정되지 않았다. 1964년 7월 초 12명 공병민사활동팀이 정착촌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도

착했다. 같은 해 후반기에 첫 번째 수술팀 수명을 파견시켜 롱슈옌(Long Xuyen) 지방에 주둔시켰다. 두 번째 팀은 1965년 1월에 도착해 비엔호아(Bien Hoa)에 배치되었다.

미미한 시작으로 출발하여 오스트레일리아는 콜롬보 계획(Columbo Plan) 하에서 그리고 양자 합의에 의해서 베트남에 대한 의료지원의 폭을 급속하게 증가시켰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베트남인의 질병을 모두 치유할 수 없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베트남의 상황이 계속 악화되어감에 따라 군사파견단의 규모를 확대할 것을 계획했다.

1965년 오스트레일리아 장관은 미국의 요청에 대해 만약 미국과 베트남 정부가 원한다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1개 보병대대를 베트남에 파병하겠다고 공약했다. 미국은 오스트레일리아가 베트남지방군의 훈련을 담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요청에 대해 오스트레일리아 장관은 약간의 우려를 나타내면서 만약 1개 보병대대를 파병시킨다면 이 대대 인가병력 중 약 100명은 훈련을 담당할 요원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사이공의 미국 대사 테일러(Taylor) 대장은 이 문제를 베트남 수상 꾸옌(Phan Huy Quat) 박사에게 다시 제기했다. 여러 수준에서 회담이 진행되었다. 1965년 4월 29일 샤프 제독은 오스트레일리아 대사와 테일러 대사의 요청으로 이 문제를 토의했다. 토의 과정에서 거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 대대를 도착시키기 14일 이전에 소규모 군사계획참모단을 파견하여 베트남의 미군지원사령부와 함께 군수 및 행정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대대의 구성은 900명의 병력으로 이중 100명은 군수 및 행정부대로 인가한다. 통합지원부대는 편성하지 않는다. 이 부대는 6월 첫 주까지 배와 항공기로 수송되어 베트남에 도착시킨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이 대대를 웨스트모랜드 대장의 작전통제 하에 두게 하여 기지

방어와 기지 근교의 경계 및 기동예비대로서 운용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대대는 주거지역 방어책임을 지지 않으며 평화작전에도 참전시키지 않는다는 점에 합의했다.

계획이 최종 마무리되는 5월까지 이 계획서들은 최초 제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특별임무단을 파견하기로 했으며 구성은 오스트레일리아 극동 육군본부의 제1대대, 증강된 왕실연대, 제79통신부대, 그리고 군수지원중대 1개 중대였다. 인가된 병력은 1,400명으로 이 중 100명은 정글전 고문단으로 편성하여 최초 훈련과 견단으로 활동하도록 하였다. 1965년 6월 초 이 특별임무단은 베트남에 도착하여 미국 제173공정여단에 배속되었다.

제1대대는 비엔호아에서 작전하면서 그해 말까지 지역 경비작전에만 참여했다. 그들이 경비작전에만 투입된 이유는 비엔호아 지역 방어와 관련되지 않은 어떠한 공격이나 반격작전에 오스트레일리아 군을 투입하지 않기로 한 제한사항 때문이었다. 만약 이 제한사항을 확대 해석하면 기지에서부터 30~35km까지는 오스트레일리아 군대를 투입시킬 수도 있었다. 그러나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이를 확대해석하여 공격에 투입할 의도를 전혀 갖지 않았다.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 참모총장의 지시에 의거 오스트레일리아 대대는 도착한 다음날 7월 30일에 계획된 제173공정여단의 작전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그 대신 미보병 제1사단의 제2여단에서 1개 대대를 투입시켜 공정여단의 작전을 지원하며 포병부대를 보호해 주도록 했다. 그러나 이 제한사항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1965년 8월 11일에 철폐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육군 여단장 잭슨(O. D. Jackson)은 웨스트모랜드 대장에게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했다. 본국의 직속상관은 오스트레일리아 파견단의 작전지역을 비엔호아 지방에 인접하는 지역을 접하는 곳까지 확

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한 의미는 공격작전과 방어작전에 구애받지 않고 이 작전지역 내에서 오스트레일리아 군을 작전에 투입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통보가 있기 이전인 5월 5일에 이미 두 장군 사이에는 ‘군사운용합의서’가 체결되어 있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군에 대한 작전통제는 웨스트모랜드 대장에게 이관되어 있었다. 미국은 행정 및 군수 지원을 전적으로 담당하기로 합의했다. 9월 7일의 ‘재정합의서’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이 지원에 대한 비용을 미국에게 다시 재상환해 주기로 합의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제1대대에 이어 추가 파병되는 전투부대와 전투군무지원부대들은 9월 30일에 도착하여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그 부대들은 다음과 같다. 1개 105mm 곡사포 포대, 1개 야전공병단, 1개 장갑유인차량부대, 1개 통신 부대 및 1개 공중정찰 비행단이었다. 이로서 1965년 말 시점에서 베트남에 파병된 오스트레일리아의 군사력은 1,557명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첫 번째 파견단에 이어 특별임무팀의 규모를 증가시킬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오스트레일리아 군은 정착되었다고 할 수 없었다. 사이공 주재 미국대사와 오스트레일리아 대사는 증강과 관련하여 1965년 12월 가벼운 회담을 가진 후 1966년 1월에 다시 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두 사람은 군사력 증강계획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우려하여 공개적으로 토의하지 못했다. 3월 8일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군사력 증강에 대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개 대대에서 2개 대대로 증강하며, 여기에 1개 본부, 1개 특별 항공근무편대, 장갑, 포병, 공병, 통신, 보급 및 수송, 야전 앰블런스, 병기 및 정비실을 포함시킨다. 동시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캘리부 비행단은 8대의 UH-1B 헬리콥터로 오스트레일리

아 특별임무팀을 지원한다는 증강계획을 발표했다. 이 발표로 오스트레일리아 군사력은 총 4,500명 이상으로 증강되었다.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오스트레일리아 특별임무팀의 임시기지를 바리아(Ba Ria)¹⁾에 정하고 제2야전군 사령관의 통제 하에 두었다.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이렇게 함으로써 통신 우선접근로인 15번 국도 지역에 대규모 부대를 집결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오스트레일리아 특별임무팀을 캄보디아 국경으로부터 멀리 이격시킬 수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캄보디아와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캄보디아 국경지역에 오스트레일리아 부대를 투입시키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캄보디아로부터 멀리 떨어진 바리아 지역을 기지로



뎀넛 공항에 도착한 오스트레일리아 연대

1) 봉따우(Vung Tau)가 속한 프억띠이(Phuoc Tuy)성의 성청이 위치한 도시

선정해 주었던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부대는 필요시 제2야전군의 포병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8대의 UH-1B 헬리콥터를 특별임무단에 배속시켜 운용하도록 계획되었지만 오스트레일리아 캐리부 비행단의 요청으로 거부되었다. 캐리부 비행단 자체의 능력만으로도 특별임무단이 요구하는 항공지원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UH-1B 헬리콥터를 추가로 배속받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

1966년 3월 17일, 베트남군지원사령부와 오스트레일리아 연합군무기확단은 특별임무군 운용과 관련한 ‘군사 운용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이 협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협정서는 1965년 5월 5일 체결된 협정서에 우선한다. 오스트레일리아 특별임무팀은 프억띠이 지방의 작전 임무를 수행한다. 작전지역은 국도 15번을 연하는 지역과 르엉셀특수지역(Rung Sat Special Zone) 동쪽으로 정한다. 오스트레일리아 군을 위해 미국 정부가 지출한 비용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재상환한다.”

제1차 오스트레일리아 특별임무팀의 선발대는 4월 12일 베트남을 향하여 출발하였으며 주력부대는 여러 차례로 나누어 출발했다. 특별임무팀은 베트남 주둔 오스트레일리아 지휘관으로부터 짧은 훈련을 받은 후 베트남 주둔 미국 제2야전군 지휘관 예하로 편입되어 작전통제를 받게 되었다.

12대의 헬리콥터로 1개 편대를 구성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캐리부 비행단에 배속시켜 베트남에 투입시키기로 한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미국은 무산된 이 계획을 복원시켜 다시 베트남에 이 편대를 투입시켜 미국의 부족한 항공출격 쇼트를 보충하기를 원했다.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이 부대를 오스트레일리아 뿐 아니라 베트남, 한국, 미국의 지상 작전을 지원하도록 운용계획을 세웠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비행단의 작전통제는 제7항공단에서 실시한다. 만약 정치적으로 오스트

레일리아에서 받아들인다면 이 비행편대를 라오스의 목표물에도 사용한다는 내용이었다. 5월 6일 샤프 제독은 이 제안서를 미 합참의장을 거쳐 국무부의 동의를 받은 후 워싱턴 주재 오스트레일리아 대사로부터 가능성을 확인받았다. 그러나 이 계획은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

증원부대가 도착하게 됨으로써 오스트레일리아 왕실연대 제1대대는 1년간의 전투임무를 완료하고 베트남을 떠났다. 철군에 즈음하여 행해진 평가에서 이들이 근무기간 동안 이룩한 신뢰할 만한 업적에 대해 칭찬받았다. 이 중 괄목할 만한 공적은 1966년 1월의 첩보작전에서 오스트레일리아 군의 활약이었다. 이 작전은 그때까지 최대의 첩보타격전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 작전은 베트남이 완강하게 요새를 구축하여 통제하는 사이공 근교의 소위 철의 삼각지로 불리는 곳을 평정하고 소탕하는 작전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 군은 이 작전에서 거대한 터널을 발견하여 60피터 아래로 파고 내려가서 베트남 본부를 찾아냈다. 여기서 5명의 중국공산당 포로를 잡았으며, 베트남 요원들의 이름과 위치를 밝히는 6,000권 이상의 문서를 노획했다.

오스트레일리아 파견단의 효과성은 그 해 말까지 행한 작전에서 입증되었다. 적 300명 사살, 대량 장비 노획, 15번 국도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공을 세웠다. 1966년 8월 18일의 전투는 오스트레일리아 군이 대성공을 거둔 작전이었다. 사이공 동남쪽 42마일 지점에 위치한 프랑스 고무나무 농장인 빈바(Binh Ba)를 소탕하면서 왕실연대 제6대대 델타중대는 1,500명의 베트남과 월맹군으로 추산되는 적진 속으로 돌격했다. 최초 교전과 정면공격에서 오스트레일리아 군인은 많은 사상자를 냈다. 3시간 동안 앞을 못 가리는 몬순 빗속에서 델타중대원 198명은 적을 고착시키려고 치열하게 싸웠다. 적은 수적 우세를 이용하여 중대를 올라가처럼 조이며 인해전술공격을 감행해왔지만 모두 격퇴시

켰다. 오스트레일리아 군의 탄약이 바닥나기 시작했으며 계속되는 비와 치열한 적 사격에도 불구하고 헬리콥터 조종사들은 용감하고 효과적으로 탄약을 제공급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증원 중대는 장갑차량을 앞세우고 보이지 않게 포위지역을 뚫고 다가와 쏟아 붓는 폭음과 함께 캐리버 50 기관총으로 화력지원을 했다. 동시에 오스트레일리아 포병부대와 파병 동맹국의 포병부대는 폭격지점을 찾아내어 포격을 가했다. 결국 델타중대는 적을 물리쳤다. 적은 시체 245구를 남기고 물러났다. 오스트레일리아 군은 ‘금을 캐는 두더지’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이 별명은 제1차 세계대전 때의 별명인 ‘도랑을 파는 두더지’라는 별명에서 유래되었다. 이 두더지 부대는 14개월 동안 적들이 올릴 수 없는 많은 전과를 올렸다.



오스트레일리아 화력지원단의 숙영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에 주둔하는 오스트레일리아군 지휘관은 11월이 지나도 추가 부대가 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당국은 특별임무팀이 3번째 대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보충해 주지 않고 있었다. 3번째 대대를 보충해 준다는 것은 베트남 파병정책에 대해 일고 있는 비평의 불길을 향해 기름을 붓는 처사와 같은 것이었다. 그 같은 조치는 훗날 현명한 결단이었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하원은 파병부대와 관련하여 가을 내내 뜨거운 설전을 계속했다. 베트남에 군대를 증강하는 것과 관련된 결정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장차 파병군을 증강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결정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여당은 1966년 11월 20일 하원에서 추가 의석을 19석에서 41석으로 22석 더 확보함으로써 유리한 입장이 되었다.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파병에 대한 논란을 가라앉힐 수 있었으며 더 이상 베트남 지원계획을 방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 11월 29일에 오스트레일리아 수술팀이 사이공에 도착하여 봉따우(Vaunt Tau)에 배치됨으로써 13명의 의무요원은 37명으로 늘어났다.

1966년부터 1968년간 오스트레일리아 경제기술지원은 총 1천5십만 달러 이상이었다. 여기에 포함된 사업비용은 식수공급 및 도로건설 기술자 인건비, 낙농 식량 전문가 인건비로 오스트레일리아 직업기술학교에서 실시한 베트남인 130명에 투입된 교육비가 포함된 금액이었다. 난민 정착촌 프로젝트를 위해 오스트레일리아가 기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5만권의 교재 제공, 수천 세트의 도구, 3,000톤 이상의 건설 자재를 제공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베트남 정부가 그들 국민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효율적인 통신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50kw 출력의 방송국을



오스트레일리아 용사의 M60 기관총 배치

반메투웃(Ban Me Thout)에 건설했으며 이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라디오 수신기 400대 이상을 송신 범위 내에 있는 지역주민에게 무상 분배했다.

선거에서 강력한 신임을 받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베트남에 군사 기여의 규모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첫 조치는 베트남 주둔 오스트레일리아 군 참모장으로 하여금 베트남에 파병한 추가 군 구성에 관한 건의서를 간단하게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했다. 참모장은 미국과 베트남 정부가 추가 부대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지침에 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건의서를 만들었다. 참모장은 오스트레일리아의 공군과 해군도 베트남에 참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리

고 국방장관은 육군·해군·공군 혼성으로 구성되는 파견단을 파병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래서 참모장은 육·해·공 3군 혼성부대를 편성하여 베트남 지원군을 증강시킨다는 건의서를 올렸다. 이 건의서에 포함된 증강안은 다음과 같았다. H.M.A.S Hobart 항공기, 요격미사일 장착한 구축함, 해군 다이빙팀, B57 캔버라(Canberra) 폭격기 8대로 구성되는 1개 항공편대, 80명으로 구성되는 민사부대(civil affairs unit), 오스트레일리아 병력 916명 증강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국방부와 육·해·공군은 이 건의서를 만족스럽게 받아들이고 건의를 수락하기로 했다. 이로써 오스트레일리아는 육·해·공 3군으로 구성되는 혼성부대를 베트남에 파병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미국은 그 다음이 되었다. 916명의 오스트레일리아 지상군 증강은 이미 베트남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를 증원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916명 중 466명은 기성부대의 조직 및 장비편성표에 인가를 반영시켜 증원시켰으며, 나머지 450명으로는 제1 오스트레일리아 파견단을 증원시켰다.

미국은 이 아이디어를 매우 환영했으며 H.M.A.S. Hobart와 캔버라편대를 베트남 주둔 미군과 함께 배치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호바트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지휘하지만 미 해군의 작전통제 하에 두기로 했다. 오스트레일리아 해군은 적절한 선박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 해군의 선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혼성부대가 수행할 예상임무는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해변에 폭탄 투하, 해변교통 정리, 수송작전, 경계임무, 해상 해군지원에 관한 일반 작전의 수행이었다. 비행편대의 일상정비는 베트남에서 수행하지만 주요정비는 말레이시아의 버터워스(Butterworth)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이곳은 2대의 수상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말레이시아는 정비 협정

에는 동의했지만 이 문제를 외부에 알리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 편대는 45일 재고량에 해당하는 500파운드의 폭탄을 보유하도록 하였다. 석유제품, 식량, 비품, 공병 상점, 일용품은 재상환 조건으로 미국에서 제공했다.

오스트레일리아 계획단 요원과 미국-베트남군지원사령부 참모요원들 사이의 회담이 처음으로 1967년 1월에 사이공에서 개최되었다. 이 계획단의 의장은 오스트레일리아의 공군 부원수 브라이언(Brian A. Eaton)이었다. 이 회의에서 군수와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은 이전의 합의 사항 그대로 확정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 항공대는 판랑(Phan Rang)에 기지를 정하였으며, 운용 방식은 제7공군 타격항공대와 같은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작전통제는 제7공군에서 하였지만 베트남의 오스트레일리아 공군 지휘관은 이 항공대에 관한 지휘 및 행정통제권을 가졌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캔버라편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한 속셈은 따로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이 항공기들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를 도태시키고 F-111 기종으로 대체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활용한 후 도태시키기로 했던 것이다.

해군문제에 관한 협상에서 미국 대표는 오스트레일리아가 파병하고자 하는 다이빙부대에 대한 능력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부대의 운용개념은 미 해군 사령관의 작전통제로 단일화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 해군대표와 오스트레일리아 해군대표는 필리핀에서 회담을 갖고 H.M.A.S. Hobart에 대한 군수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대를 미국의 제7함대와 함께 작전임무를 수행하도록 합의했다. 이어 개최된 사이공 회담에서 베트남지원사령부는 호바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개입하지 않기로 동의했다. 베트남으로부터 귀국한 오스트레일리아 계획단은 그간의 협상 결과에

만족하였다. 특히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시키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준 미국 측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했다.

캔버라 항공편대는 1967년 4월 1일까지 과병 준비를 완료하도록 지시되었다. 판랑의 시설은 혼잡했지만 캔버라 항공편대가 주둔하기에 크게 문제되지 않았으며 이 지역 주민들은 이 부대가 배운 귀중한 가치를 오래도록 기억하였다. 1월부터 2월까지 오스트레일리아 제5항공 건설편대는 정비창고와 기타 필요한 시설들을 짓기 위해 베트남으로 향했다. 4월 19일 캔버라 폭격기 10대 중 8대가 베트남의 버터워스(Butterworth)에 배치되어 처음으로 전투비행을 했다. 장교 40명, 하사관 90명, 그리고 사병 170명으로 구성되었다. H.M.A.S. Hobart는 3월 31일 쭈라이(Chu Lai)의 미국 해군구축함에 합류함으로써 전투태세에 진입했다. 작전장비, 군수지원, 지휘관계, 그리고 클럽, 식당, 매점 등 편의 시설 이용에 관한 기준은 해군 대 해군으로서 상호 동등하게 설정되었다.

1967년 1월,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H-34 헬리콥터에 잘 적응된 대잠수함전 전문 조종사 10명을 베트남에 과병시킬 것이라는 내용을 미국에 통보해 왔다. 베트남 미군지원사령부는 이 조종사들을 UH-1D 항공기에서 전환훈련을 10시간 받게 한 후 미 육군 항공대에 직접 합류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4월 이전까지 이 계획이 실행되지 않았으며, 대신 조종사 8명과 정비원 인력 30여명을 과병하여 미군의 작전과 오스트레일리아 특별임무팀을 지원하겠다는 변경된 내용을 통보해 왔다. 통보된 내용은, 이 조종사들의 급여와 수당은 오스트레일리아가 담당하며 미국은 항공기와 군수지원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배치는 미군부대에 개인 단위로 미군과 1:1 방식으로 교대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민사활동팀과 원주민 협의회

이에 대해 미국 합참의장이 요청한 내용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조종사들을 오스트레일리아 공군 편대 가까이 있는 부대에 배속시키겠다는 것이었으며 가능하다면 오스트레일리아 특별임무팀을 지원하는 미군부대에 배정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미군 헬리콥터는 이 조종사팀에 배정되지 않을 것이며 전술적 상황에 따라 명령을 하달받아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다음의 협의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이 조종사 부대를 행정지원이 편리한 붕따우(Vung Tau)의 오스트레일리아 부대에 배치되기를 희망했으며, 특별히 오스트레일리아 특별임무팀을 지원하는 미군부대에 배정되기를 희망하는 공식적인 요청은 하지 않았다.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만약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베어캐트 지역인 비엔호아(Bien Hoa Bearcat)의 제12전투공정단 헬리콥터 중대에 배정시킬 것임을 밝혔다.

이 조종사들은 비엔호아 지역에 주둔하는 오스트레일리아 부대에 배속되어 제3군단 전술지역을 지원하게 될 것이며, 베트남의 135공정중대가 도착하는 즉시 이 부대로 재배속되도록 계획되었다. 135공정중대는 누이덴(Nui Dat)에 주둔했다. 누이덴에는 오스트레일리아 공군 헬기편대가 위치하고 있었으며 붕따우(Vung Tau)의 북동 35km 지점이다. 누이덴에서 이 공정중대는 제1 오스트레일리아 특별임무팀과 다른 부대를 지원했다. 만약 135공정중대가 오스트레일리아의 헬리콥터 과견단보다 먼저 도착하면 조종사들은 바로 이 공정중대에 배속되도록 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이 조종사들에게 건쉽(Gunship) 헬리콥터를 맡긴다면 영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67년 10월 오스트레일리아 수상은 1,700개 부대를 증파하여 현재의 과병 병력 6,300명을 8,000명으로 증강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개 보병대대, 센추리온 탱크를 보유한 중탱크 1개 중대, 45명으로 구성



농지정리기간 중 활동을 중단한 오스트레일리아 연대

되는 공병건설단 1개 소대, 본부에 125명을 보장하는 증강계획이었다. 보병대대는 왕실 오스트레일리아 연대의 제3대대로서 11월과 12월에 증강되며, 이어서 수송수단이 확보되는 대로 다른 부대들을 증강시키기로 했다. 추가되는 공군과견대는 8대의 이로쿠어스(Iroquois) 헬리콥터, 10명의 헬기 조종사, 20명의 승무원 및 100명의 정비인력으로 계획되었다. 헬리콥터와 관련되는 인력은 오스트레일리아 왕실연대의 제9 헬기 편대에 배속되었으며 이 편대는 지난 6월에 배치된 부대였다. 해군의 증강계획은 연초에 계획된 그대로 소형 대잠수함전 헬리콥터 조종사와 정비인력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이 계획의 실행은 1967년 11월에 시작하여 8개월 동안 계속되어 총 1,978명을 증원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왕실연대의 제3대대는 전투지원

부대 및 군수부대와 함께 1967년 12월 베트남에서 임무 수행 준비를 완료하고 제3군단 전술지대의 오스트레일리아 제1특수임무단에 배속되었다. 탱크중대는 15대의 작전 센츨리안 탱크와 함께 자체 군수지원 부대를 거느리고 1968년 2월 말과 3월 초에 도착했다. 이 탱크중대에 13명으로 구성된 장갑부대가 1968년에 추가로 합류했다.

지원형태와 지원규모는 1967년 11월 30일 조인된 ‘신 군사운용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이 협정에 의거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미국 정부가 오스트레일리아 군을 위해 대신 사용한 비용 일체를 추후 변제해 주기로 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군에게 보급품을 추진해 주기 위해 미국은 군사적 방법이 아닌 상업적 방법을 사용했다. 미국이 지원해 주기로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송비용, 기지캠프 건설비용, 막사 및 식당 설비비용(단, 이들의 가족 숙소는 미국의 지원에서 제외되었으며 사이공 지역에서 개인이 이용한 식사와 막사이용료는 사용한 개인이 부담하게 되었다), 의무 및 치과진료(응급 환자외의 베트남 외부 후송은 제외되었다), 영현근무(후송을 위한 시체 준비는 포함되며 베트남 외부로의 시체 운구비용은 제외), 수송비용(기존 버스, 승용차, 택시 및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모든 미국의 항공근무 비용), 기존 채널을 통한 라디오 및 기타 전기 기기에 의한 메시지 청취 및 수신비용(1~4급 공식 메일 및 개인 메일을 위한 우편낭 이용비용 포함), 매점 및 군 식료품 판매점 이용, 휴양 및 레크리에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 및 특별서비스 이용, 필요한 사무실 공간과 장비 및 보급품 이용, 예비부품 이용, 석유제품 사용, 미군시설과 베트남 부대에 속하는 자동차 및 항공기 정비시설 이용에 관한 지원은 미국이 담당하기로 합의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파병부대 철수 논란이 1968년에 거세게 일기

시작하여 1969년도에 격화되었으며, 특히 미국의 재 철군계획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었다. 12월 15일 150만 유권자를 대변하는 200여개소의 상점 주인들과 32명의 노조 지도자들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베트남참전에 항의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어서 베트남에 주둔하는 모든 오스트레일리아인에게 그들의 팔을 아래로 내리고 전쟁을 거부하는 항의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두 번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통상장관은 그 다음날 이 결의안은 폭동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12월 16일 오스트레일리아 수상은 베트남에 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면서 텔레비전 연설을 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는 마지막 선거를 치루기 전에 행하는 정책 연설로서 국민에게 말해야 합니다. 미국 군대를 삭감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다음 몇 달 동안 5만 명의 군사력을 철수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를 방문했을 때 체결한 협정에 관해서 미국 대통령과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은 군대철군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부대도 철군계획에 포함되어집니다. 이 협정은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전부이거나 혹은 현재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아는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미국군 철군과 관련된 확정된 내용은 더 이상 없습니다. 얼마만큼의 오스트레일리아 군대를 언제까지 철군시켜야 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협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트남전쟁에 개입하게 된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절한 단계에 적절한 절차로 우리 군을 철군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성취해야 할 목표가 아직 있기 때문에 철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면 철군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군 재배치와 관련한 오스트레일리아 측과의 첫 공식 대답은 1970년 1월 28일 개최되었다. 베트남 주둔 오스트레일리아의 군참모장과 베트남 주둔 미군지원사령부의 부참모장 겸 작전참모(J3)가 부대 철수에 관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입장을 협의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참모장으로부터 4월 혹은 5월에 오스트레일리아 군이 완전 철수할 것이라는 루머의 진의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그는 12월 16일 수상이 발표한 내용을 제외하면 더 이상 아는 바가 없음을 밝혔다. 다만 1개 대대는 우선 철수시킬 것이지만 그 이후의 철수는 미국 측이 주도하는 파병동맹국 철군 계획을 따른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었다.

4월 2일 군지원사령부 훈련부장과 중앙훈련사령관은 베트남인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의 지원을 늘리겠다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제안을 협의하기 위해 만났다. 이 협의에서 제안을 시행할 정확한 일자 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훈련 지역과 대상은 프억띠이(Phuoc Tuy) 지방의 지방군과 민병대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합의했다(요도 5). 오스트레일리아 측이 이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은 철군 확정일자와 철군 병력수는 이때까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실행할 것이 확실시되는 오스트레일리아 군의 철수와 관련된 것이었다.

철군상황은 더욱 명확해져 갔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8월 20일 오스트레일리아 왕실연대의 제8대대를 즉각 재배치한다는 발표를 했다. 약 900명의 이 부대는 11월 12일 귀국했다. 이로서 6,062명의 군사력만 베트남에 주둔하게 되었다. 이 철군을 하는 대신 오스트레일리아는 베트남에 국방 무상 원조 360만 달러를 약속했다. 이것은 오스트레일리아 군의 단계적 철수 제1단계였다. 이후의 철군은 비슷한 방법과 절차로 진행되었다.

<요도 5>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작전지역 프억띠이 지방



약 1년 후 1971년 8월 18일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베트남에 파병한 전투부대를 철수시킨다고 발표했다. 수상 맥마혼(William McMahon)은 오스트레일리아 부대의 대부분은 크리스마스까지 철군한다고 발표했다. 철군으로 발생하는 베트남의 전투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민간부문에 2,800만 달러의 경제원조를 약속했다. 이로서 오스트레일리아가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지출한 금액은 총 2억4천만 달러였다.

뉴질랜드

New Zealand

베트남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를 괴롭혔던 것처럼 뉴질랜드 국민의 불만도 정부를 괴롭혔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만큼 심하지는 않았다. 뉴질랜드가 남베트남 분쟁에 개입한 것은 오스트레일리아가 개입한 것과 비슷한 이유였다. 철군도 오스트레일리아와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1970년 8월 20일 오스트레일리아의 철군 발표 이후 뉴질랜드도 유사한 내용을 발표했다. 뉴질랜드 수상은 파견단을 144명으로 구성되는 1개 소총중대만을 남기고 철군한다는 발표를 했다. 1970년 11월에 뉴질랜드 군대를 철군시키기 위해 그 다음해 초에 25명의 육군훈련팀을 베트남에 보낼 계획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11월 12일 소총중대를 귀국시킬 의도였다. 육군훈련팀은 베트남-뉴질랜드 연합 훈련을 지원하기로 되었다. 이 훈련은 차우독(Chau Doc) 지방의 쩌랭(Chi Lang) 전국훈련센터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드디어 1971년 8월 18일 베트남에서 전투부대를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뉴질랜드의 웰링톤에서 수상 홀리옥(Keit J. Holyoake)은 뉴질랜드의 전투부대를 1971년 말까지 완전 철수시킨다고 발표했다.

뉴질랜드 파견단은 오스트레일리아 군대와 함께 주둔했다. 양국은 자신들의 중요한 관심사항들이 서로 통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국제사회에서 영국의 영향력이 약화되어감에 따라 뉴질랜드는 미국에 더욱 의존하는 국가안보정책을 추진했다. 뉴질랜드 수상은 1968년의 국제질서를 ‘테러와 공격’에 의한 무질서한 상태로 표현했다.

‘테러와 공격’이 반복되는 게임에서 게임의 주인공은 공산주의자와 민주주의자이며, 기본 이슈는 “누구의 의지가 더 우세한가?”였다. “북

베트남 공산주의자들과 그들 일당들의 의지가 우세한가? 아니면 남베트남 국민의 자유표현의지가 더 우세한가?” 하는 간단한 문제의 게임이었다.

베트남에 대한 뉴질랜드 원조의 본질을 둘러싼 토의와 협의가 이루어졌다. 최초 협의는 1963년 6월 10일, 베트남의 미군지원사령부 대표와 뉴질랜드의 합참대표인 로버트 걸 중령(Lieutenant Colonel Robert M. Gurr)과 베트남의 대표 세 사람이 가진 회담이었다. 뉴질랜드 정부는 베트남을 지원하는 내용, 즉 근로팀, 공병, 야전의무요원, 해군요원 및 육군전투요원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에 관심을 가졌다. 미국과 베트남은 이에 필요한 가용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뉴질랜드에 건의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걸 중령은 뉴질랜드의 정치적인 이유로 전투작전에 깊이 간여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지만 베트남에 대한 정보와 전투작전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기를 원했다.



뉴질랜드 포병단의 화력 지원임무 수행

뉴질랜드는 1964년 7월 20일 처음으로 민사활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공병 1개 소대와 수술팀을 파견하여 베트남을 지원했다. 1965년 5월 이 파견대를 전투부대와 교대하기로 결정했다. 교대할 전투부대로서 뉴질랜드 왕실 포병 예하 제161포대의 105mm 곡사포 포대가 선정되었다. 이 포대는 7월 21일 도착하여 MACV의 작전통제에 들어갔으며 프억띠이(Phuoc Tuy) 지역의 오스트레일리아 특별임무팀이 배속되었던 제173공정여단에 배속되었다. 다음달 이와 관련하여 군사운용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은 이 부대에 대한 야전 행정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비록 재정운용협정은 그해 연말에 체결되었지만 뉴질랜드는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비용을 미국에 재상환하기로 했다. 이때의 뉴질랜드 군사력은 119명이었다.

1966년 웨스트모랜드 대장과 뉴질랜드 대사의 회담에서 베트남에 대한 군사원조를 증가시키는 가능성에 대해 의논했다. 특히,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3개 대대로 구성되는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ANZAC) 여단 1개를 창설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창설여단에 뉴질랜드 1개 보병대대를 지원해 주기를 희망했다. 이 제의에 대해 뉴질랜드 대사는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내었지만 군사지원을 증가시키는 방안은 정치적인 결심이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자신의 권한을 벗어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월 말, 뉴질랜드 외무장관은 웨스트모랜드 대장을 만났으며 여기서 105mm 곡사포 포대를 4문에서 6문으로 증가시킬 것을 밝혔다. 뉴질랜드는 선거로부터 받는 압력과 비군사 부문에만 지원해야 한다는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1966년 3월 26일 하우위츠 곡사포 2문과 27명의 인원을 추가로 베트남에 파견하며 쩌년(Qui Nhon)의 수술팀을 7명에서 13명으로 증가시킨다는 발표를 했다.

뉴질랜드 참모총장이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는 동안, 뉴질랜드는 11월



원주민 소년을 치료하는 오스트레일리아 민사단 소속요원

선거 후에 군사지원에 대한 추가 요청을 베트남으로부터 받으면 이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내용을 웨스트모랜드 대장에게 밝혔다.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추가 지원 방안들이 언급되었다. 그 중 하나는 당시 말레이시아에 주둔하고 있던 4개 중대를 보유한 1개 보병대대와 1개 특수항공군무중대를 베트남으로 재배치하는 것이었다. 다른 방안은 1개 소총소대와 1개 트럭중대를 파병하는 안이었다. 뉴질랜드 육군 총장은 뉴질랜드 국방부 소속 민간인과 특정 군인들은 그의 견해에 대해 찬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제안을 당장 실행시킨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1966년 가을 선거는 베트남에 대한 뉴질랜드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건처럼 보였다. 엄격한 유권자들은 뉴질랜드 수상으로 하여금 다음의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강요했다. 뉴질랜드 수상은 국

방장관에게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할 것과 말레이시아의 제28공정여단을 베트남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베트남의 군사원조의 가능성을 요약했다. 육군의 지원방안과 공군의 지원방안, 그리고 해군의 지원방안을 구분하여 가능성을 검토했다. 육군의 고려할 수 있었던 방안들은 다음과 같았다.

방안1: 40명으로 구성되는 특수항공근무중대 파병.

방안2: 20명으로 구성되는 보병부대 5개 부대를 파병하여 오스트레일리아의 카운터파트너로 배치하여 6개월 기간단위로 교대.

방안3: 30명으로 구성되는 무장 장갑부대와 12대의 견인차량 파병. 이상 세 가지 방안은 조속한 시일 안에 파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었다.

방안4: 말레이시아의 대대 전부 혹은 1개 보병소총중대를 베트남으로 전환시켜 파병.

방안5: 오스트레일리아와 연합으로 소형 행정 및 군수지원부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공군의 지원방안으로 검토된 것은 다음과 같았다.

방안1: 40~50명의 지상인력으로 지원받는 4~6명의 캔버라(Canberra B-57) 항공기와 조종사를 미국 캔버라편대 또는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편대에 배속.

방안1의 검토결과, 뉴질랜드 공군 소속의 B-57을 미국의 폭격기와 함께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뉴질랜드의 본국에 남겨 훈련임무를 수행하도록 결정함으로써 이 방안은 기각되었다.

방안2: 캔버라 항공기와 뱀파이어 항공기 조종사를 미국이 주관하는 'F-4항공기 훈련 프로그램'에 투입시켜 훈련시킨 후 항공전투작전에 투입.

방안3: 캔버라 항공기와 뱀파이어 항공기 조종사를 새로운 작전과 정보 및 전방항공통제팀에 증원.

방안4: 여러 대의 브리스톨 화물수송기 승무원과 필요한 지상지원 인력을 파견.

방안5: 이로쿼스(Iroquois) 항공기 승무원과 지상 지원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뉴질랜드 공군이 지원할 수 있는 대안들로 고려되었다.

해군의 지원으로 검토된 방안은 다음과 같았다.

방안1: 싱가포르로부터 프리킥함 '블랙-풀(Black-Pool)'을 베트남으로 전환 재배치.

방안2: 베트남 해안에 제7함대를 정박.

방안3: 미국 순찰선에 20~40명의 해군을 인력 대 인력 기준으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방안들이 고려되었다.

육·해·공군 지원 외에 뉴질랜드 정부는 빈딘(Binh Dinh) 지방에서 활동하기로 계획한 3개의 민사의무팀에서 인원을 차출하여 1개의 의무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을 고려했다.

뉴질랜드가 고려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한 베트남의 군지원사령부와 태평양사령관은 각 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뉴질랜드에 다음과 같이 전달하였다. 미국은 완편 보병 1개 대대, 보병 1개 중대, 특수 항공근무중대 1개 및 장갑 1개 부대를 순서대로 지원받기를 원한다. 말레이시아의 보병대대를 군단의 전술지역에 배치시킬 수는 있지만 오스트레일리아 특수임무팀에 배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색 및 소탕 작전 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봉따우(Vung Tau) 지역의 안전을 강화시키고 전체 계획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육군방안2', 즉 2개 대대 병력을 지원하는

방안은 특별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개 대대는 증강된 편성으로 특별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겠지만 이 때문에 나머지 대대는 감편된 전투력으로 기지캠프의 경비임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취약해 질 것이다. 만약 1개의 보병중대만을 파병하는 방안을 채택한다면 오스트레일리아에 이 중대를 배속되어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수항공근무중대는 장거리 순찰 및 정찰에 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중대는 군단 지역에 운용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제2야전군본부의 작전통제 하에서 제3군단 전술지역에서 운용되는 것을 더욱 원한다. 이 부대는 독립적으로 운용되어 적의 배치, 주둔, 활동상황을 관찰하여 보고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다. 장갑부대는 오스트레일리아 특수임무팀과 함께 운용되어 도로의 안전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통신선을 개설하는 작전을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뉴질랜드 공군과 관련하여, 캔버라편대는 브리스톨(Bristol) 화물기, 이로퀴스 헬기콥터, F4 조종사, 정보 전문가, 전방공중 통제관들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폭격기는 오스트레일리아 편대와 작전을 수행하며 브리스톨 화물기는 군수지원과 오스트레일리아 특수임무팀을 지원하기를 원한다. 이로퀴스 헬기중대에 최소한 25명의 장교와 25명의 병사를 6개월 이상 근무하도록 하는 것을 원한다. 정보 전문가와 전방항공통제관들은 전술항공과 지상군 포병지원을 유도하고 협조하도록 한다. ‘블랙-폴’급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는 제7함대에 뉴질랜드 파견대를 통합시켜 미국의 “마켓 타임 순찰선 혹은 게임 워슨 순찰선의 승무원”과 함께 작전하도록 한다는 각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뉴질랜드에 제시했다. 이 검토서에서 지휘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은 전혀 언급된 것이 없었다.



직접 요리로 점심을 준비하는 뉴질랜드 육군병사

뉴질랜드 공군 증강에 관한 검토와 토의는 드디어 현실화되었다. 1967년 3월 8일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5월 말 내지 6월 초에 봉선(Bong Son) 지역의 미군팀과 교대할 16명으로 구성된 의무팀을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동시에 뉴질랜드는 보병 1개 중대를 파병하여 전력을 배가시킬 것이라고 결정을 하였다. 이 중대는 말레이시아 주둔 대대에서 지원부대와 함께 차출되어 베트남으로 전환 파병되어 6개월 기간 단위로 순환교대하게 되었다. 뉴질랜드 보병연대 예하 ‘V 중대’가 베트남에 도착한 때는 1967년 12월 17일이었다. 소총중대는 ANZAC 대대를 편성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 부대로 통합되었다. 뉴질랜드 특수항공근무소대는 12월에 도착하여 오스트레일리아의 관련 부대에 통합되었다. 이 파병으로 뉴질랜드 군사력은 517명이 되어 공약했던 최대 병력수준을 충족시켰다.

뉴질랜드 부대에 필요한 군수지원 협정은 '1968년 5월 10일의 군사 운용협정서'로 조인되었다. 이 협정서에 의해 뉴질랜드 정부는 미국 정부가 대신 부담한 비용 일체를 인원비율로 계산하여 재상환하기로 했다. 여기에 포함되는 미군 지원은 다음과 같다. 뉴질랜드를 위해 지출되는 기지캠프 건설과 수송비용, 막사 및 식당시설(가족 숙소 미포함), 의무 및 치과 치료(응급환자를 제외한 베트남 외부 후송 제외), 미국이 운용하는 버스·세단·택시·항공기 이용, 라디오 등 공용방송 수신, 미국 군사우편 이용(파우치 문서 배낭 이용 포함), 매점 및 식료품 매점 이용, 휴식 및 레크리에이션, 사무실 장비 보급품 공간 사용, 미군 및 베트남 시설에 있는 차량 및 항공기의 예비부품 유류 및 정비 기구 사용에 관한 것이었다. 이 비용은 뉴질랜드에서 추후에 정산하여 재상환하도록 하였다.

1969년 이후 뉴질랜드의 군사력과 임무는 크게 변경되지 않았다(표 3). 뉴질랜드 군사원조의 형태와 규모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베트남에 대한 재정지원은 계속되었다. 1966년에 시작하여 연간 \$350,000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금액은 난민 캠프에 운용되는 이동보건팀, 정착촌 직업 전문 훈련, 꾸년-봉선(Qui Nhon Bong Son) 지역의 15명의 수술팀 운영비용으로 지급되었다. 후에(Hue) 대학의 의무 및 강의 교보재 지원과 사이공 대학의 확장에도 이 자금이 사용되었다. 1967~1968년 사이 \$500,000의 개인 현금이 모금되어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베트남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과 의무 및 난민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군이 주둔하는 몇 년 동안, 이들은 책임 지역인 프억띠이 지방에서 작전을 탁월하게 수행했다. 이들의 임무는 명확하고 가시적인 행동으로 적에 대항하고 공세작전을 펼치는 것이

<표 3> 뉴질랜드군 위치, 군사력, 임무(1969. 6)

부 대	위 치	병력수	임 무
Headquarters, New Zealand Force, Vietnam	Saigon, Gia Dinh	18	Command and admin. support
161st Battery, RNZIR	Nui Dat, Phuoc Tuy	131	Combat
RNZIR component; various appointments with 1st Australian Task Force	Nui Dat, Phuoc Tuy	18	Combat
V Company, RNZIR	Nui Dat, Phuoc Tuy	150	Combat
W Company, RNZIR	Nui Dat, Phuoc Tuy	150	Combat
Administrative Cell	Nui Dat, Phuoc Tuy	9	Admin support
No. 4 Troop, NZ SAS	Nui Dat, Phuoc Tuy	26	Combat
Logistical support element	Nui Dat, Vung Tau, Phuoc Tuy	27	Logistical support
1 NZ Svcs Med Team	Dong Son, Binh Dinh	16	Asst to GVN

었다. 쌀 수확과 민사활동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것도 이들의 중요함 임무에 포함되었다. 1965년 프억띠이 지방으로 오스트레일리아 특수팀이 들어왔을 때 이 부대의 지휘관은 주민과의 유대를 좋게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민사활동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수개월에 걸쳐 타 유관기관들과 협조를 거친 후 '주민친선작전' 개념을 설정했다. 1966년 7월 이 프로그램은 시행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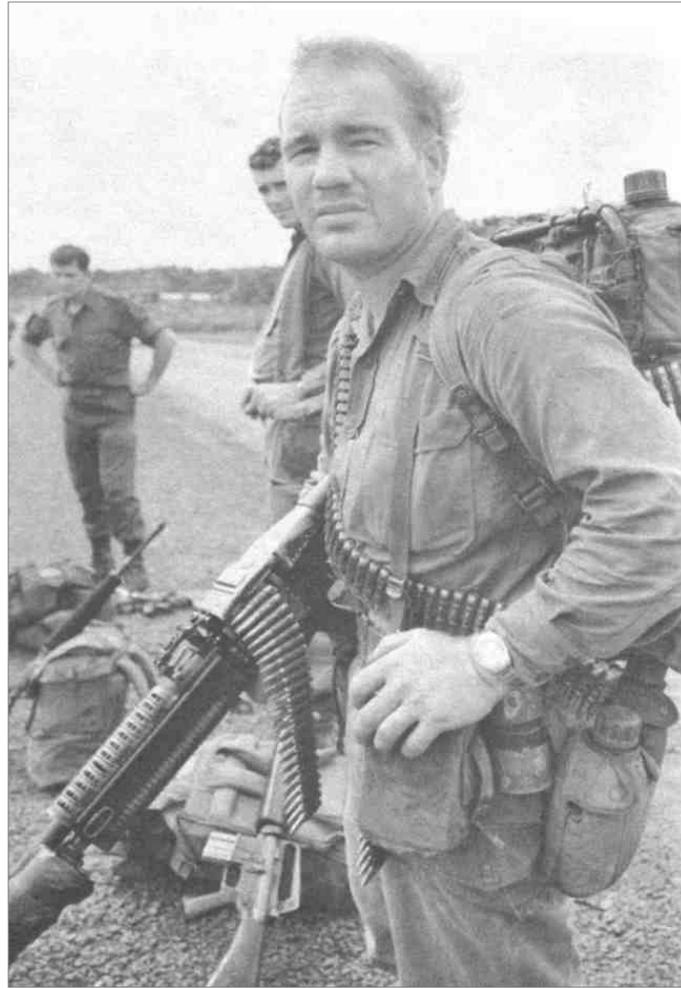
제1단계로서, 민사활동팀은 각 4명으로 구성되며 롱레(Long Le) 구역의 특별임무팀 지휘소를 둘러싸고 있는 정착촌지역으로 파견한다. 목적은 지역 주민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며, 헛된 약속과 선물은 제공하지 않는다. 롱리 지역은 50년대 초부터 베트남이 우세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미국 군대가 오랫동안 주둔하였으며 주민들은 미국인에

대한 이미지로 오스트레일리아 군인을 인식하고 있었다. 민사활동팀은 미국 군인과 다른 오스트레일리아 군인의 친근감을 인식시키는 활동에 중점을 두기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제2단계의 준비는 약 2주 동안 지속되었으며 활동할 프로젝트의 주제는 '정착촌연구 준비'였다. 이 프로젝트는 여러 나라가 참여했다. 미국의 국제개발 에이전시는 약간의 선물을 나누어 주면서 주민들을 끌어들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물질 구매비와 인건비에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고 있었다. 프로젝트를 실행함에 있어 각 지방에 대한 건설 우선순위를 설정, 지방장관에 검토시켜 승인을 득한 후 건설공사를 시작했다. 이 결과에 대한 성과는 인상적이었다. 1년 동안에 8개의 학급, 베트남 정보 서비스 본부, 지역시장, 임산부병동, 3칸 규모 의무실, 시회의장, 대형창고, 12개의 우물, 구역본부 빌딩, 경찰검문소, 기타 건설 프로젝트들이 완성되었다.



호아롱마을을 수색하는 오스트레일리아 병사



M60 기관총을 휴대한 오스트레일리아 왕실연대 병사

이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 오스트레일리아는 기본적 실수를 범했다. 그들은 정착촌 지역 정부와 상담하고 협조하며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간과했다. 이로 인해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이 지속되지 못했는데 그 원인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으며 책임지겠다고 선임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이 프로젝트는 베트남의 관리와 지역주민에게 최대의 관심 사항이었지만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정확한 위치와 설계는 이들 주민들이 원하는 곳과 달랐다.

주민들은 오스트레일리아 군의 군인정신과 기강을 존경했다. 프억띠이(Phuoc Tuy)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민들이 밀집하여 모여 사는 지역 마을을 통과할 때는 시간당 10마일 이상 행군하지 못하도록 속도를 조절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을 시켰으며, 주민들을 고용했을 때 숙련된 사람과 숙련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여 공평하게 보수를 지급했다고 밝혀졌다.



차량이동 중인 오스트레일리아 공군 민사활동단

베트남에서 오스트레일리아가 성공한 이유 중의 하나는 100년 이상의 게릴라전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육군은 베트남에 파병되기 전에 일본군과 보르네오 정글에서 게릴라들의 활동을 보아왔으며, 말레이시아의 공산주의자들을 진압하는 영국군을 12년 동안 도우면서 싸운 경험이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오스트레일리아 군인의 특성 훈련을 들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군이 소규모 모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오직 아시아 지역에서만 독특하게 수행되는 적의 ‘정글 게릴라전’에 대비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나아가 육군의 대부분은 지원자들로 구성되어 고도로 특수화된 조직으로 편성되었다. 베트남 보안군을 지도한 고위 오스트레일리아 장교는 자기의 육군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육군에 비유했다. 당시 독일 말단 병사 1명은 대위 1명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제4장에 관한 노트

Notes for Chapter IV

콜롬보 계획(동남아시아 협력 개발 계획)은 1951년에 초안이 작성되었다. 인도네시아 실론(Ceylon)의 콜롬보에 본부를 두었다. 이 단체는 6개국의 회원국, 즉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영국, 일본, 뉴질랜드, 미국과 18개국 개발도상 국가들로 구성되었다. 설립 목적은 개발도상국을 돕는데 있었다. 자본 공급, 전문기술, 훈련 및 장비의 공급에 따른 회원 상호 합의에 의해 개발도상국들을 돕는 데 있었다.

제 5 장 자유중국(타이완)

The Republic of China

자유중국(타이완)의 베트남 파병은 베이징중국과 사이공 당국의 반응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었다. 중국인이 군복을 입고 베트남에 나타난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자유중국 장제스 총통은 전쟁 초기에 존슨 미국 대통령에게 파병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1964년 2월 24일 장제스는 다시 라이트(Admiral Jerauld Wright) 자유중국 주둔 미국 대사와 펠트(Admiral Harry D. Felt) 태평양사령관에게 미국은 자유중국의 군대를 북베트남에 대항시킬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장관 유테웨이(Yu Ta-Wei) 박사도 자국의 국수주의자들이 하이난(Hainan)섬을 공격할 가능성에 관한 토의를 포함하여 군 파병에 관한 문제를 펠트 제독과 토의하고자 했다. 그러나 미국은 자유중국의 파병을 극히 경계하며 배제시켰다. 반면 한국, 필리핀 및 타 국가로부터 비전투 군인으로 구성된 비전투 부대의 파병을 설득했다. 한편으로 자유중국을 그대로 두면 공격적으로 돌변할 염려가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중국이 파병하게 될 경우 중국공산당의 반응을 염려해야 했다. 그러나 미국은 최종적으로 베이징을 자극하지 않기로 결정했

다. 미국은 자유중국의 공병부대를 파병하는 것이 중국의 보복을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것도 나중에는 결국 베이징이 베트남에 간여하게 되는 구실을 주었다.

포모사 해협(Formosa Strait) 혹은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로 중국 공산당이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시키기 위해 미국은 자유중국의 군사 지원의 역할을 억제하고 직접지원하는 분야는 민사활동 분야로 제한시키고자 했다.

자유중국의 지원은 1964년 10월 8일 고문단의 형식으로 베트남에 도착했다. 자유중국 군사지원고문단의 임무는 정치분야 고문을 제공하는 것이었으며, 의무요원 지원 및 난민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3대의 LST승무원도 수상 군수활동을 지원하기로 되었다. LST는 타이완의 쿠링(Keelung) 미 해군항구에 소속되었다.

2명의 정치전(政治戰) 고문단은 4개 군단 전술지역에 주둔했으며 3명의 고문단은 다랏(Dalat)의 베트남군 정치전(政治戰) 대학에 주둔했다. 또 다른 3명은 사이공의 군 일반 정치전 의사회에 주둔했다. 7명의 지방 보건지원팀은 미국의 국제개발 에이전시의 지원과 후원을 받으며 판티엡(Phan Thiet)의 지방병원에서 활동했다. 자유중국은 C-46 항공기와 승무원들을 제공하여 베트남 난민구조 임무를 수행했다. 1965년 말까지 자유중국의 지원은 86명의 농업전문가와 투득(Thu Duc)의 3만3천km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감독관 9명을 파병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추가 지원은 미국이 1966년 초 LST 6대를 요청했을 때 이루어졌다. 미 군사지원 프로그램 하에 이 선박은 민간복장을 한 중국 승무원이 미국 깃발을 달고 작전에 투입되도록 되었다. 미국은 승무원 봉급과 선박 정비비용을 부담했다. 선박의 임무는 수심이 얇은 해변에 운용하

는 선박으로서 항구의 혼잡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자유중국군은 2대의 선박만 제공할 수 있었으며 이 선박의 인도는 4월에 공식 발표 없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6월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자유중국 군대의 파병 가능성에 관한 논평을 했다. 다른 자유세계군이 파병되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다른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었다. 순수 군사 관점에서 자유중국군의 파병은 매우 바람직했다. 베트남군지원사령부는 잘 훈련되고 동기가 강하며 기량이 확립된 해병여단을 가능한 빨리 파병시켜 주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정치적인 관점에서 많은 망설임이 있었다. 사이공의 미국 대사는 베트남 정부와의 상의 없는 특별 논평과 건의를 거절했지만 실상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의중에 담고 있었다. 베트남 정부는 자유중국군의 파병으로 얻게 될 이점을 계산하고 있었지만 중국 공산당의 개입은 오히려 베트남의 상황을 무너뜨리게 될 것으로 믿었다. 미국 대사는 자유중국군의 베트남 개입은 중국공산당의 전략을 변경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세계의 다른 국가들은 이것이 다른 전쟁을 촉발시킬 행위로 보았다. 또한 베트남인들의 반 중국 감정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상당한 인내를 해야만 중국군을 베트남으로 불러들일 수 있었다. 군사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을 저울질 하면서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정치적인 의문점들이 모두 해소되었을 때 자유중국 군대의 파병을 허용할 것을 건의했다.

1967년 동안 발전소에 관한 중국인 고문단은 34명으로 증가했으며 16명의 수술팀이 새로 공중보건 프로그램을 확충시키기 위해 투입되었다. 1967년 6월 중순 베트남 정부의 승인을 득한 후 자유중국군은 웨스트모랜드 대장에게 1개월의 직업훈련을 위해 4개의 장교단이 베트남으로 여행하는 것을 허락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 그룹은 정보, 포병,

장갑, 병기 및 공병 병과의 8~10명으로 구성된 팀으로서 미군부대에 배치되어 직업 훈련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미국 대사의 동의를 득한 후에 이 요청을 거절했다. 그 이유는 첫째, 베트남에 파병된 자유중국군의 군사지원고문단은 정치전과 심리전에 관한 고문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전투임무에 개입되는 것은 금지되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이 제안은 중국 장교들이 전사 혹은 포로가 될 경우 전투에 참여했다는 중국 공산당의 비난을 피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중국 공산당의 개입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셋째, 미군부대와 함께 하는 장교 협의회에 이들 중국 장교들이 나타나면 특파원들에게 이들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넷째,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선례를 남기게 되어 자유중국의 다른 요청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제안은 미국에게는 구체적인 이득 없이 군사적인 부담만을 주게 되며 심각한 정치적인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국무부는 웨스트모랜드 대장의 의견에 동의했으며 미국의 군사지원 고문단, 타이베이의 미국대사는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이 제안을 철회하도록 희망했다. 자유중국 국방장관은 이 요청의 다른 목적은 자유중국군의 전투경험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타이베이의 미군사지원 고문단장이 이 요청을 거절하게 된 미국의 의도 뒤에 숨은 이유를 설명했다. 국방장관은 이 요청을 철회했다.

미국과 자유중국 정부 사이의 협정서는 미국의 베트남지원사령부(USMACV)와 베트남의 자유중국 지원고문단장이 1968년 12월 19일 조인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이 협정서에 의하면 베트남의 자유중국 군사지원고문단은 자유세계 군사지원 정책위원회(Free World Military Assistance Policy Council)의 통제와 조정을 받으며 이 고문단의 지휘권은

자유중국이 지정한 군지휘관에게 부여되었다. 미국은 숙소와 사무실, 수송을 담당했다.

1969~1970년 동안 자유중국 고문단은 파병규모의 큰 변화없이 부여된 기능을 수행했다(표 5). 1964년 중반 이후 이 고문단은 베트남에 3백만 달러의 경제 및 기술 지원을 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기술자들은 농업, 전력 및 의료분야에서 공헌했으며 약 300명의 베트남 기술자들이 타이완에서 훈련을 받았다. 1968년에 자유중국은 비상상황을 위해 5천톤의 쌀을 무상 지원한 첫 번째 국가였다. 다른 제품과 물질을 지원했으며 구체적으로 조립식 창고 건축을 위한 알루미늄과 농기구, 종자, 비료 및 수학교재 50만부를 제공했다.

<표 5> 자유중국 군사지원단, 베트남



제 6 장 대한민국

The Republic of Korea

1965년 봄, 미국 육군이 베트남에 처음으로 전투부대를 파병할 때 북베트남의 주 위협지역은 중앙고원지대(Central Highlands)의 국경지역이었다. 1965년 7월까지 북베트남의 주 의도는 동쪽으로 19번 국도와 국도를 둘로 분리시킬 수 있는 끼년 쪽의 고원분지 장악으로 보였다. 그 다음 그들의 통제권을 중심부에서 확대하여 남과 북으로 확장하고자 했다.

제2군단 영역의 중앙고원분지는 원래 푸레이쿠와 빈딘(Pleiku-Binh Dinh) 지방에 속했다. 주요 도시를 제외하고, 빈딘은 북베트남과 베트남에 의해 장악되었다. 빈딘은 약 80만 인구를 가진 제2군단지역의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방으로서 수년 동안 베트남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1965년 8월, 미국 군대가 도착했을 때, 끼년은 빈딘 지방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도시였다. 끼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국도는 적에 의해 통제되었다. 푸레이쿠 지방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모든 도로는 북베트남과 베트남에 의해 통제되었다. 제2군단 지역의 주도시를 제외하면 모

든 마을은 적이 통제하는 통로로 이동하고 연락해야 했기 때문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1965년 8월 미국이 군사력을 제2군단 지역으로 투입할 때 중앙고원지대, 빈딘, 뚜이호아 지역의 3개 인구밀집지역에서 뛰어난 남쪽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군기가 문란한 남베트남군에게는 신속하고 집중적인 군사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지원은 한국과 같은 자유세계국가와 미국에 의해 제공되었다.

한국의 공약

The Korean Commitment

1954년 초 한국 이승만 대통령은 요청받지 않았음에도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베트남에 한국군을 파병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 제안은 당시 한국 최고위 계급권자인 클라크(Bruce C. Clarke) 중장에게 전해졌으며 그는 이를 국무부에 즉각 보냈지만 거부되었다. 한국군은 파병되지 않았고 후속 조치도 없었다.

10년 후 1964년 5월 한국의 미국 연합군사고문단장 에드워드(Norman B. Edwards) 소장은 우선적으로 한국의 이동야전외과병원을 베트남에 파견할 계획을 세웠다. 1964년 7월 10일 김성은 국방장관은 UN군 사령관 하우즈(Hamilton H. Howze) 장군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 계획을 확약했는데 내용은 한국 정부는 증강된 1개 이동야전외과병원과 10명의 태권도 교관단을 베트남 정부의 요청이 있을 시 즉각 파병한다는 것이었다. 1964년 7월 16일 하우즈 장군은 김성은 국방장관에게 UN군 사령관의 권한으로 이에 동의하며 미국 국방부는 파병에 관련되는 작전

에 대한 군수지원을 담당할 것이라는 서한을 보내왔다. 이 지원은 군사지원 프로그램 채널을 통해 적절하게 제공되도록 되었다. 장비, 보급품 및 서비스는 이동외과병원의 편성표와 수당표에 반영된 것 모두를 미국이 담당하도록 했다. 이 편성표와 수당표는 한국 주둔 군사지원고문단 본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한국군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분량의 군복과 생필품을 포함하고 있었다. 반면 급료, 여행, 일당, 기타 수당을 받을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수당은 미국의 지원에서 제외되도록 되었다.

이 토의에 이어서 한국조사팀은 한국인 6명과 미국 장교 5명으로 구성되어 1964년 8월 베트남으로 향했다. 베트남 국방장관과 미군지원사령관과 일련의 회담을 거친 후 ‘군사운용협정서’가 1964년 11월 5일 사이공에서 한국군 대표와 베트남 대표에 의해 조인되었다. 본질적으로 이 협정서는 병원 건립과 유지 및 숙소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한국이동외과야전병원이 직접 이 병원을 운영한다는 것과, 한국은 태권도 교관을 파송하며, 미국은 34명의 장교와 96명의 사병으로 구성되는 병원부대와 10명의 태권도 교관단에 대해 하우즈 장군의 서신에서 약속한 대로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1964년 12월 후반에 베트남의 요청으로 한국 정부는 공병건설지원단을 조직하여 베트남에 파병하여 전쟁 폐허지역 복구와 베트남인들의 평화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1965년 2~6월에 한국건설지원단, 해병공병중대, 한국해군 LST와 LSM 및 육군경비중대가 파병되었다. 이 부대들은 2,416명으로서 비둘기부대로 더욱 잘 알려졌다.

1965년 초 베트남 정부는 거세어지는 베트남의 압력에 맞서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깨닫고 추가 비전투부대의 파병을 한국에 요청했다. 요청의 이유는 1964년 가을 몬순기간 동안 범람한 홍수로

베트남 군이 민사활동 프로젝트에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공백을 보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주월 한국군지원단을 구성하였다. 한국군지원단은 1개 공병대대, 1개 육군수송중대, 1개 해병공병중대, 1개 LST(승무원 포함), 1개 경비대대, 1개 서비스 부대, 1개 연락장교단, 1개 이동병원으로 구성되었다.

비둘기부대 도착을 위한 협정서는 2월 6일 '자유세계 군사지원 정책 협의회'에서 완성되었다. 9월에 수정된 군사운용합의서가 한국군지원단과 베트남 공군에 의해 조인되었으며, 2월 8일 한국단장과 로션(Rosson) 장군 간에 협정서가 체결되었다. 한국과 베트남 간의 협정서에는 여러 개의 비정상적인 특징적 요소가 포함되었다. 한국군은 공격받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사격하지 않는다. 한국군 작전책임지역 이외의 적에 대해서는 추적하지도 사격하지도 않는다. 베트남의 공격을 받을 시 이 지역의 수석 베트남 지휘관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한국인은 베트남 연락장교가 승인한 경우와 상황에 의해 압박을 받지 않는 한 민사활동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작전통제에 관한 사항은 이 협정서에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석 베트남 군 장교가 통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암시되었다.

이 협정서에서 베트남군지원사령부와 베트남군은 한국군에게 필요한 군수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장비는 군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며 장비표는 베트남군이 작성했다. 기본 1종 보급품은 쌀, 소금, 차, 설탕 및 기타 물품은 베트남 정부에서 제공하며, 보조식량 레이션과 기타 필수장비 중 군사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할 수 없는 것은 베트남군지원사령부에서 공급하도록 하였다.

지휘통제는 관련 3개국의 문제가 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에

운용중인 자유세계 군사지원단 군총사령관에게 전면적인 작전통제권을 부여하기를 희망했다. 1965년 1월 한국군 단장 이세호 소장은 한국 정부는 미국을 제외한 제3국의 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최초 한국 부대는 웨스트모랜드 대장의 작전 통제 하에 있었다는 선례를 활용하여 협정서를 체결했다. 즉 한국군의 일반 작전기능은 연합군으로서 '자유세계 군사지원 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협정서를 체결했다. 이 협의회는 베트남 미군지원사령부의 참모장, 주월사령관, 베트남 연합참모장으로 구성되었다. 후에 웨스트모랜드 대장이 이 협의회 의장으로 취임했다. 관련 3개국은 이 협정에 매우 만족했다. 로션(Rosson) 장군과 이세호 장군이 서명한 군사운용협정서는 2월 8일 조인되어 9월에 개정되었는데 비둘기부대의 작전을 제한하는 여러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은 이세호 장군에게 부여했다. 작전통제권은 웨스트모랜드 대장에게 부여하여 한국군이 부여받은 작전지역을 통괄하는 미국의 최고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합의했다.

1965년 2월 25일 비둘기부대 선발대가 도착했고 이어서 3월 16일 본대가 도착했다. 이 부대는 비엔호아(Bien Hoa)의 기지 캠프에 위치하여 1965년에 교량 3개, 학교 4개, 의무실 2개, 정착촌 사무소 2개를 건설하였으며 기타 수많은 소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의무부대는 3만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웨스트모랜드 대장의 지시로 한국군은 7월 9일까지 272명의 장병을 LSM 2대로 수송하여 증강시켰다.

한국군 당국과 미국 당국 간의 군대파병에 관한 토의는 계속 이어졌다. 한국 국방장관과 유엔사령관의 회담에서 한국 국방장관은 1965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의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서 '한국 정부는 베트남에 육군사단을 파병한다'는 것을 발표했다.

다. 이 사단은 보병연대 1개를 뺀 그러나 해병 1개 연대를 증강한 사단으로 편성하여 한국 육군 장군이 지휘한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한국은 한국군 지상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공군의 F-86 폭격기 파병을 요청했다. 한국의 김성은 국방장관은 또한 한국군 급료인상을 발표했다. 확실한 공약은 없었지만 미국이 급료인상 재원을 도와줄 것이라고 추측했다. 왜냐하면 한국은 북한 공격을 저지하고 있는 군사력 중에서 1개 사단을 빼내어 베트남에 파병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한 미군 부대 중에서 1개 사단을 베트남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한국이 미군 대신 1개 사단을 파병시켜 준다면 그에 대한 공백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군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김성은 국방장관은 미국이 한국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비공식자금을 만들어 줄 것과 그리고 이 자금은 베트남에서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군인 가족의 연금지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1965년 6월 23일 김성은 국방장관은 유엔사령관 겸 주한 미군사령관을 다시 만났다. 이때 주한 미군사령관이 아닌 유엔사령관의 위치에서 회담을 했다. 베트남에 한국군 사단을 파병하는 문제를 집중 토의했다. 한국군 사단 파병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비록 승인이 자동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국방장관은 조기 승인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1965년 7월 말 혹은 8월 초에 파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장관은 국회에 파병 제안을 상정하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약속하는 협정을 미국과 체결하기를 희망했다.

1. 한국에서 미군과 한국군의 운용수준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
2. 전투준비 완료된 예비사단 3개 사단과 17개 정규사단 및 해병사

단을 완전한 장비로 무장시킬 것. 이 요구는 한국군의 방위태세를 약화시키지 않으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장비 및 수당 편성표 대비 100% 무장시키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탄약, 기동장비 및 통신장비를 중점적으로 무장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3. 사단 파병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군사지원자금 수준을 유지할 것
4. 베트남에서 근무하게 될 한국 전투부대에 대한 임무, 주둔지, 지휘 채널 및 군수지원 내용을 조기 확정할 것
5. 한국 사단의 조직을 결정할 소형 기획단을 설립할 것
6. 베트남의 한국군과 한국 정부 사이의 직접 통신망을 위한 통신장비를 제공할 것
7. 한국 사단 이동을 위한 수송 및 교대되는 인력 및 장비 수송수단을 제공할 것
8. 베트남의 한국 부대와 장병에 대한 자금지원을 제공할 것.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미군과 동일한 수준의 전투근무수당, 근무 중 사망 혹은 상해를 당한 자에 대한 위로금과 보상금 및 한국부대에 고용된 베트남인의 급여가 해당될 것임.
9. 한국과 베트남 연락장교와 의무 후송을 위한 C-123 항공기를 제공할 것
10. 야전방송국 기지를 제공할 것. 이 설비로 한국 사단은 공산주의 대항 방송 실시, 심리전 수행 및 전과방해 작전을 추진하게 되며, 한국장병은 본국뉴스, 전쟁뉴스 및 연예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임.

몇 년 후 1971년 1월 비취 장군은 하우즈 유엔사령관 후임으로서 1965년 7월 1일 작성한 위의 리스트에 대해 논평하기를 “최초의 한국

희망사항을 적은 리스트는 멋진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미국군과 동일한 급여를 받기를 원하며 부대 파병과 한국 육군·해군·공군의 현대화에 필요한 모든 미국의 신 장비를 원했다. 나는 미국 대사에게 동의를 구한 후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의 희망사항은 완전 비합리적이며 미국이 이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최종 협상은 파병되는 부대의 급여를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시키며 미국이 당시 제공할 수 있는 한 좋은 장비로 무장시키며,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한국에서 미군부대를 철수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결정되었다. 맨 마지막 합의사항은 한국의 승인 없이는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했다. 명백히 이것은 미국 제7사단을 한국에서 철수시킨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요구사항을 해결했다. 전투준비 완료된 예비 3개 사단에 장비 및 수당 편성표 대비 100% 무장시키는 것은 미군사지원 프로그램의 기금에 달린 문제였다. 한국 사단의 파병은 군사지원 프로그램의 기금에 영향을 미치지만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사단을 준비시키고 파병시키며 베트남에 있는 동안 지원할 재원은 한국군사지원 프로그램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았다. 임무, 주둔지 및 그 외 요구사항들에 대한 조기 확정에 관한 건은 태평양사령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달려 있었다. 한국 사단의 조직을 결정할 소형 기획단을 위한 인력을 공급하라는 요구는 즉시 승인되었다. 한국과 주월한국사단간 직통 통신망을 위한 통신장비 요구는 승인되지 않았다. 비록 고주파 라디오 장비가 가용될 수 있었지만 한국의 미군사령관 비치 장군은 현재의 미군통신 시스템을 일반이용자 자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이 사령관은 미국이 파병을 위한 수송수단을 제공함에 동의했

다. 그러나 이는 미국 선박의 가용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한국선박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베트남 주둔 한국부대와 개인에게 재정지원을 하라는 요구는 승인되지 않았다. 한국의 미군사령관은 전투근무수당에 반대했다. 특히 미군과 동일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러나 해외수당의 지급에 동의했다. 만약 미국이 사망보상금 혹은 전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 그 금액은 오직 1회 지급으로 마무리되는 한국 법에서 규정한 것을 그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승인했다. 미국은 한국군이 고용한 베트남인에 대한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것은 승인하지 않았지만 이 비용을 한국과 베트남이 합의하여 지급하기를 선호했다. 4대의 C-123 항공기의 요청은 이전에 합의된 수송요구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미국은 오직 합의된 스케줄에 있는 항공기만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한국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요구되는 항공기만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야전방송요구 요구는 언뜻 보기에 베트남의 작전에서 수행하는 심리전 프로그램과 대립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은 확실한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1965년 7월 13일 미 국무부는 주한 미 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베트남에 한국 사단을 즉시 파병시키는 것을 보장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를 양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만약 한국 정부가 베트남에 상당한 군사력을 유지시킨다면, 미국은 군사지원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있는 한국 지원자금을 타 국가 혹은 타 프로젝트로 전용시키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미국은 또한 1966년 회계연도의 군사지원 프로그램에 계획된 석유, 오일, 윤활유 및 건설자재와 같은 이전 항목에 대해서 한국으로부터 ‘역 조달(현품 지원품목을 실제 보급하지 않고 보급한 것으로 가정하여 그것을 다시 재구입하는 형식의 조달 방법)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어서 이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미국은 개인 항목을 기초로 한 ‘역 조달’과 정상적인 ‘역 조달’ 절차를 결정할 수 있었다.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양보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미국이 도와주면 한국 정부는 파병되는 군인과 군속에게 실질적인 급여를 인상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실질적으로 한국 정부는 베트남에 사단을 파병함에 있어서 추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당한 경제적인 이득을 보장받았다. 반면 한국인에 대하여 미국이 지출한 비용은 이미 연간 2백만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베트남에서 한국군 사단을 운용하는 데 지원한 비용은 연간 4천3백만 달러로 추산되었다.

1965년 7월 16일의 회담에서 주한 미군사령관은 태평양사령관에게 한국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결정들을 통보했다. 주한 미군의 감축과 관련하여 주한 미군사령관과 주한 미국대사 브라운(Winthrop D. Brown)은 공동으로 서한을 작성하여 한국 정부의 우려를 진정시키고자 했다. 그 내용은 “존슨 대통령은 최초 결정대로 주한 미군을 감축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군의 한국 지원 수준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확약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미군을 재배치하는 결정을 할 때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8월 협정에서 사단의 군구조와 지원부대의 증원에 관한 사항들이 결정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한국 정부에 전달되었다. 지휘 통제 및 한국군 본부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군사적 측면은 여전히 토의 중에 있었다. 한국 사단을 무장시키는데 요구되는 ‘종합장비목록표와 과부족 현황보고서’, 해병을 무장시키는데 요구되는 ‘장비목록표’, 한국 야전지원사에 적용할 ‘수당표’들이 작성되어 웨스트모랜드 대장에게 보고됐다. 군수분야에서 2, 4, 5종 보급품의 최초

및 후속지원은 결정되었다. 그러나 3종 보급품에 관한 문제는 베트남 군지원사령부로부터 관련 정보, 즉 석유의 가용성과 저장량에 대한 보고서가 도착한 후 결정하도록 했다. 1종 보급품은 여전히 검토 중에 있었다. ‘장비 정비 및 유지’에 관한 방침은, 장비의 재생과 정밀검사를 위해 장비를 후송할 경우에 적용할 방침을 결정했다. 수송에 관한 사항은 모두 합의되어 결정되었다. 최종적으로 훈련 계획이 완성되어 해당 부대와 요원들에게 전달되었다.

베트남의 군지원사령부는 미국의 태평양 육군을 경유하여 태평양사령관에게 통보하기를, 베트남에 1개 사단이 긴급히 투입되어야 할 상황 때문에 만약 한국 사단의 파병이 1965년 11월 1일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 육군사단을 대신 베트남에 파병시켜야 함을 통보했다. 이 경우 태평양사령부 혹은 미국 본토사령부로부터 1개 사단을 편성하여 이동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조치를 취해야 했기 때문에, 합참의장은 샤프 제독에게 만약 한국 사단 대신 미국의 사단을 파병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한국 사단을 대신할 최고의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의 견해를 물었다.

샤프 제독(Admiral Sharp)의 견해는 다음과 같았다. 2개의 주한 미국 사단은 필수적인 전방 배치 부대이기 때문에 빼낼 수 없다. 보병 제25사단을 차출하는 것은 중요한 시기에 태평양의 예비전력을 없애는 것이 된다. 나아가 25사단은 타일랜드에 배치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만약 이를 베트남으로 전환시키면 다른 미국의 사단을 즉시 투입해 주어야 한다. 만약 베트남에 한국군 사단을 파병한다면 25사단은 한국에서 파병되는 한국 사단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라는 것이었다.

1965년 8월 19일 한국 국회는 파병을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사단의 파병은 3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1965년 9월 29일, 1965년 10

월 14일, 1965년 10월 29일이었다. 장비가 부족한 상태로 처음 파병하지만 이것이 전투준비태세를 악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파병에 관한 한·미 간의 회담이 즉시 개최되었다. 회담의 결과 최초의 전투 부대가 탄생되었다. 수도보병사단 맹호(Tiger)부대, 감편된 1개 연대급 전투팀, 제2해병여단 청룡부대(Blue Dragon) 및 지원부대, 총병력 18,212명이 1965년 9월과 11월 사이 파병되었다.

베트남에 한국군대를 파병할 경우 미국은 한국방어를 약화시켜서도 안 되며 한국에 대한 지원을 불리하게 축소시켜서도 안 된다는 것을 미국이 보장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 요청은 파병되는 한국군에게도 적용시키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이 결과 만든 한·미 협정서는 다음과 같았다.

1. 사전 협의없이 미군 혹은 한국군을 한반도에서 줄이지 않는다.
2. 1966년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 프로그램의 예산을 7백만 달러 증액시켜 3개 향토사단의 장비를 보강시킨다.
3. 한반도의 한국군에 대한 탄약, 통신, 기동 분야의 장비를 현대화시킨다.
4.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에 대해서 미국은 장비, 군수지원, 건설, 훈련, 수송, 생필품, 해외수당, 한국군에게 청구된 정당한 비전투 손실을 배상할 수 있는 기금, 부주의와 태만으로 인하지 않은 한국군의 전력 손실을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기금을 제공한다.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미국과 동맹국에게 공급된 것과 동일한 시설과 서비스를 한국군에게 제공하기로 동의했다. 한국군은 베트남에 투입된 군사지원프로그램에 의거 구입된 장비와, 군사지원서비스 기금에 의거 구입된 장비, 웨스트모랜드 대장에 의해 공급된 장비 등 3부류에

대한 장비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졌다. 전투로 망가지거나 마모된 장비를 군사지원프로그램 예산으로 구입한 장비는 한국군에 인계시키고 그 소유권을 갖도록 했다. 비상사태로 한국으로 귀환하여 재배치될 경우 한국군은 이 모든 장비를 가지고 귀국하도록 했다. 한국군이 비상사태로 인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귀국을 할 경우 장비를 미국에 반납할 것인가 아니면 반납하지 않고 한국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협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한국군 자체가 보유하고 있던 장비와 군사지원프로그램과 무관한 장비는 협상품목에서 제외시켰다.

한국 사단이 파병되기 전, 한국군의 배치지역에 대한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다. 첫 계획은 제1군단 전술지역으로서 쭈라이(Chu Lai), 탐끼(Tam Ky), 팡응아이(Quang Ngai)에 주력부대를 위치시켜 제3해병 합동군(III Marine Amphibious Force)에 합류시키거나 혹은 자유세계군의 일원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파병동맹군에 합류시키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여러 이유로 기각되었다. 첫째, 이 지역에 완편 사단 1개를 더 투입시키게 되면 해상 보급을 거쳐야 하는 지역 특성 때문에 보급 문제가 대두된다. 둘째, 이 지역은 제3해병 합동군의 부대들에 의해 이미 평정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배치시킬 경우 이 부대들과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특히, 베트남과 한국군이 공세작전에 함께 투입된다면 서로 공을 다투는 불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 만약 한국군이 베트남과 북베트남군과 조우하여 베트남군보다 더 성공적으로 전과를 올리면 그 불화는 더 심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군을 어디에 배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다른 대안들이 검토되었다. 각 대안들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전술적 관점이 최우선이었다.

한국군 제2해병여단(청룡)은 깜란(Cam Ranh) 지역에 배치되었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른 곳의 안보상황이 더 긴급했기 때

문이었다. 따라서 도착 후 즉시 2여단은 적 제95연대가 포진하고 있는 뚜이호아(Tuy Hoa) 지역으로 이동하여 수 주 동안 전개했다. 이곳의 적 부대는 뚜이호아 지역의 주민을 압박해오고 있었으며 농경지뿐 아니라 정부에게까지 위협을 주고 있었다.

수도사단 맹호부대는 끼년 서쪽 6마일 지점의 주둔지에 도착했다. 이 부대는 1965년 11월에 최초 2개 연대로 도착하였다. 이 지역이 선정된 이유는 인구조밀 지역이 아니며 농경지를 위협하지 않는다. 또 이 지역은 고지대로서 비 피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군의 지휘소를 원하는 만큼 분산시킬 수 있으며 작전 훈련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이 지역을 선정한 또 다른 이유는, 끼년은 주요 군수지원 지역이었기 때문이었다. 근본적으로 이 지역은 한국 사단, 미 제4보병사단 및 미 제1기병사단(공중기동사단)에게 기지캠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역이었다. 끼년을 둘러싸는 모든 땅들은 군수목적으로 사용되어졌다.

수도사단이 끼년에 위치하면서 이 사단은 여러 중요한 방향으로 이동했다. 수도사단은 안케(An Khe)까지 도달하는 19번 국도를 개방시켰다. 이것은 끼년의 외곽지대를 보호하기에 충분했을 뿐 아니라 북쪽 산기슭 언덕까지 이동하여 곡창지대를 말끔히 정리할 수 있었다. 남쪽으로는 뚜이호아(Tuy Hoa)를 향하여 국도 1번 쪽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이로써 국도 양쪽의 인구밀집지역의 적을 제압할 수 있었다.

제1여단, 101공정사단은 수도사단이 정착하여 캠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먼저 끼년지역에 파병되었다.

1966년 초 베트남 정부로부터 한국군의 파병이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요청되었다. 이 요청에 대해 한미 정부의 협상이 1966년 1~3월에 열렸다. 한국 국회는 1966년 3월 30일을 파병 일자로 승인했다. 유엔사

령관은 제9사단(백마사단)을 차출해내는 것에 동의했다. 이 부대는 1966년 4월에 파병을 시작하여 주월 한국군 병력을 44,897명으로 끌어올렸다.

제9사단은 1966년 9월 5일~10월 8일 사이에 베트남에 도착하여 국도 1번과 21번의 교차지역인 닌호아(Ninh Hoa)에 주둔했다. 사단본부는 앞이 확 트인 부대 배치에 최상의 이점을 줄 수 있는 지형에 위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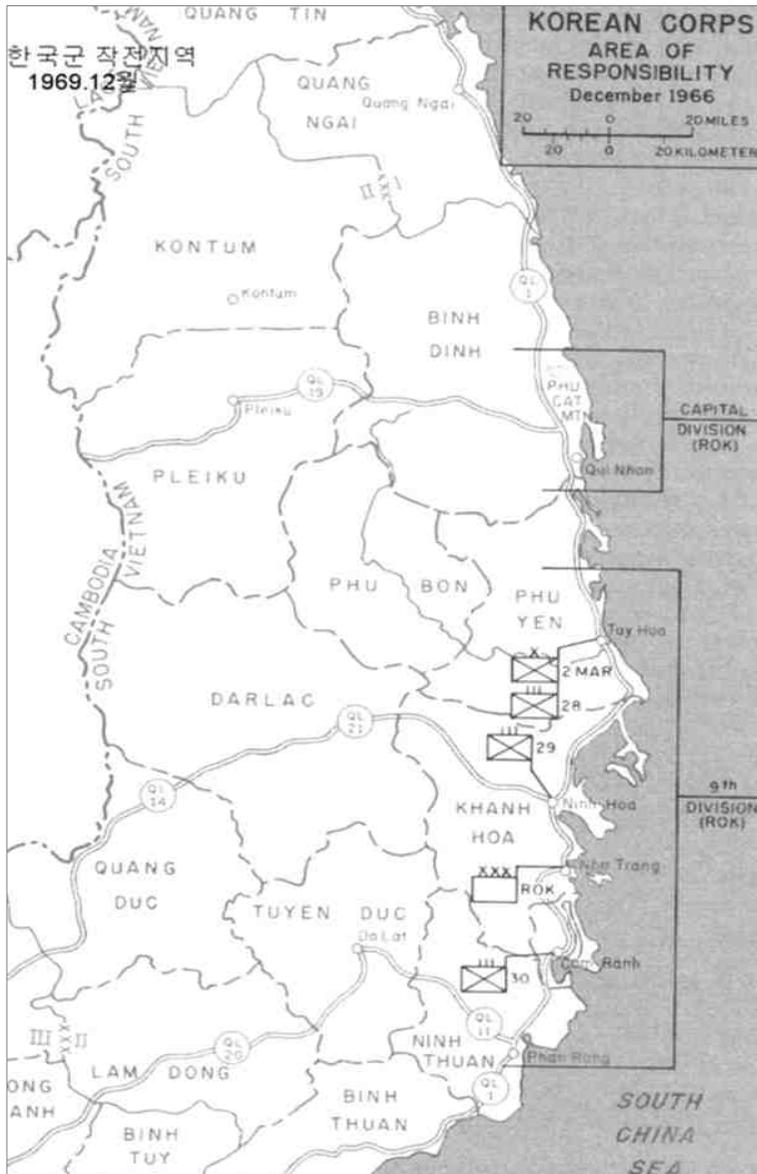
9사단 28연대는 뚜이호아 지역에, 29연대는 사단본부와 인접한 닌호아(Ninh Hoa) 지역에, 30연대는 감란(Cam Ranh)을 보호하기 위해 내륙 쪽에 위치했다. 9사단은 국도 1번과 뚜이호아에서 판랑으로 가는 길, 뚜이호아 북쪽에서 끼년으로 가는 길, 북쪽으로는 빈딘 지방의 산기슭 언덕까지 멀리 있는 주민지역들을 순찰할 수 있었다(요도 6). 1967년에 한국 해병대대와 추가 증원군이 도착했다. 한국군 총 병력은 47,872명이 되었다.

군수측면에서 미국은 베트남의 한국군 작전을 완전 지원하기로 동의했다. 한국군이 베트남의 미군기지에서부터 모든 필수품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수송, 포병지원, 추가 공병지원, 병원보급품, 식량, 탄약지원, 통신지원이 포함되었다.

<표 4>

파병년도	부 대 명	병력수
1964~1965	Medical and engineer groups(Dove)	2,128
1965	Capital Division(-RCT) with support forces and Marine brigade	18,904
1966	9th Division with RCT and support forces	23,865
1967	Marine battalion(-) and other support forces	2,963
1969	C-46 crews, authorized increase	12

<요도 6> 한국군 작전지역(1969. 12)



한국군의 작전통제

Operational Control of Korean Troops

한국군이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 채명신 장군은 웨스트모랜드 대장에게 다음의 것을 약속했다. “어떤 임무가 주어지든지 그가 만약 웨스트모랜드 대장의 작전 하에 들어간다면 이를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 미국의 작전통제권 하에 들 것인가 아니면 타 동맹 과병군들과 함께 독자적 작전통제권을 발휘하는 전투군으로 운용할 것인가였다. 이 혼선은 작전통제권에 관심을 가지는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 분명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1965년 7월 2일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한국군의 지휘통제에 관해 샤프 제독의 의견을 구했다. 만약 야전군 본부가 설치되기 전에 한국 연대가 전개된다면, 한국군과 미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베트남 미군 지원사령부 예하 미 제2군단 작전지역에 위치하는 특수임무군이 행사한다. 한국 사단이 완전 도착했을 때, 사단이 한국연대를 지휘하며, 야전군본부의 작전지휘를 직접 받는다는 것이 샤프 제독의 의견이었다.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이 독특한 한국군 지휘구조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으며 한국군사령부를 그의 작전통제 하에 두었다. 그는 한국연대, 여단 혹은 사단을 배치할 권한을 확보하여 특수임무군 본부 혹은 미 야전군 본부가 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이 협정은 미국 지휘관에게 한국군 사단을 기동시키거나 변화하는 전술적 상황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부대를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만들었다.

이 협정서에 의거, 비전투요원들은 국제군사지원정책협의회에 의해 부여된 웨스트모랜드 대장의 작전통제를 계속 받도록 되었다.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한국군 지휘관이 전술적 문제에 전념하기를 희망했지

만 다른 한편 베트남의 군사지원단을 증가시켜 한국의 고유 지휘책임 을 맡아 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군 사단의 선발 계획단이 도착한 후 그리고 일련의 회담을 거친 후 베트남군과 한국군 지휘관 간 새로운 운용협정서가 9월 5일 체결되었으며 9월 6일에는 한국군 지휘관과 웨스트모랜드 대장 사이에 협정서가 조인되었다. 이 새로운 협정서는 여러 가지 관심 있는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작전통제에 관한 참조사항은 없었다. 공식적으로 인식되는 유일한 통제기능은 정책입안의 역할을 계속할 자유세계 군사지원정책협의회였다. 지휘는 당연히 한국군 최고 계급권자에게 주어졌다.

1965년 9월 6일 체결된 채명신 장군과 웨스트모랜드 대장 사이의 군사운용협정서에서 지휘통제에 관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정책협의회는 연합각서 초안을 준비하였는데 그 내용은 웨스트모랜드 대장이 베트남의 한국군 전체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이었다.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10월 23일에 채명신 장군과 까오반비엔(Cao Van Vien) 합참참모장에게 이 협정서를 제출했다. 이 당시 채명신 장군은 한국 정부의 확인이 있기 전에는 이 문서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는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절차를 수용했다. 한국 정부는 지휘통제에 관한 개정된 초안을 제시했으며 웨스트모랜드 대장이 이를 검토한 결과 너무 제한사항이 많다고 판단했다. 11월 20일 이 초안은 채명신 장군에게 되돌려졌으며, 채 장군은 10월 23일 만들어진 구두협정에 의거 지휘통제를 하기로 다시 상기시켰다.

채 장군과 추가 토의를 거친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샤프 제독에게 보고하기를 공식 서명된 협정서는 정치적으로 한국인을 당황스럽게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인은 미국의 부하가 된다거나 미국의 용병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공식협정서는 채명신 장군이 “미국 지휘관에 의한 사실상의 작전통제”에 동의해 온 이후부터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베트남의 제1야전군 지휘관 라슨(Stanley R. Larsen) 중장과 채명신 장군은 비록 한국군의 지휘통제는 미국에 있지만 상호 존중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 장교를 야전군의 참모로 임명하여 한국군 부대와 관련된 분야를 지원할 것을 고려했다. 이것은 한국군 장교가 연락장교로서 연결되는 참모형태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국군이 독립부대로 베트남에서 운용되어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극동 국가가 그렇게 많은 군으로 타국을 지원했던 역사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한국 정부에게 독립부대로서 권한과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세계의 많은 옵서버들의 눈들은 한국을 주시할 것이며 본국을 구원하기 위해 성공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한국군이 미군과 얼마나 작전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지켜보는 눈들이 많음을 한국군은 느끼고 있었다. 만약 한국군이 독립적으로 운용된다면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 한국군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였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자유스럽게 미국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미국은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자유로이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것이며 미국의 정책에 의해 원하지 않게 운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의 베트남전 개입은 한국처럼 전쟁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는 국가이면서 참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웃 국가들로 하여금 그들도 기꺼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한국군이 미군의 직접적인 작전통제를 받지 않는 다른 이유는 한국민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 후 이들은 미국의 지원을 오

랫동안 받았으며 대부분의 조직과 지도력에 관해 미국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베트남전쟁은 이들에게 미국의 도움 없이 혹은 미국 군인들의 자문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한국군은 미국이 가르쳐준 군사기술을 연출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최초 전개

Initial Developments

수도사단은 귀년에 과병되어 근접 정찰 임무를 맡았으며 첫날은 주변지역의 지형을 둘러보고 베트남인의 방식을 이해하면서 보냈다. 한국인과 베트남인은 둘 모두 동양인이지만 이들의 언어는 완전 달랐다. 사람을 다루는 방법도 완전 달랐다. 한국인은 훨씬 권위주의적이었다. 채명신 장군은 한국인과 베트남인을 함께 묶기 위해 정부 대표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양국의 차이를 극복하려고 했다. 예를 들면, 한국 군인은 지역 불교사원에 참석하였으며, 거기서 적에 의해서 파괴되었거나 관리를 하지 않아 파손된 시설을 수리했다.

1965년 가을에 수도사단의 첫 번째 주요 작전은 귀년 외곽으로부터 안개(An Khe)로 향하는 19번 국도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101공정사단 제1여단이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약 1달 이상 머물면서 순차적으로 지역책임을 한국 사단에게 넘겼다. 한국군은 조금씩 귀년 북쪽 강변 곡창지대 안으로 이동해 들어갔으며 거기서 소규모 정찰을 수행하면서 적의 야간정찰을 알아차리는 기술을 습득했다.

베트콩은 곧 수도사단이 그들의 게릴라 작전 목표로는 쉽지 않은 상

대라는 것을 알아챘다. 수도사단의 과병 2개월 이내에 2개 연대의 전술부대와 사단은 최초로 귀년과 바 산 사이의 절반 지점에 도착하였다. 바 산은 푸캣(Phu Cat) 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산의 서쪽에 큰 마을이 있었다. 이 지역의 주민은 수년 동안 베트콩에게 지배당해왔다. 저지대와 곡창지대의 적들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주민 중 여성과 어린이 및 친 정부 주민들은 단계별로 이 지역을 떠나야 했다.

1966년 6월까지 수도사단은 1번 국도 동쪽과 귀년의 북쪽지역 및 푸캣 산의 언저리까지를 모두 통제했다. 또한 안케로 향하는 도로와 19번 국도의 남쪽과 북쪽까지 통제했다. 1번 국도를 연하여 뚜이호아(Tuy Hoa) 방향으로 아래로 진격했다. 또한 빈딘(Binh Dinh) 지방으로 작전을 수행하여 진입하면서 정찰단을 내보내고 멀리 남쪽으로 빈딘과 푸옌(Phu Yen) 국경까지 소규모 작전을 펼쳤다.

1965년 9월과 10월에 감란(Cam Ranh)만 지역에 처음 배치된 한국 해병여단은 그 해 12월에 뚜이호아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동 사유는 뚜이호아 근처에 적 제95연대가 출현했기 때문이었다. 이 연대는 북베트남 사단 예하로서 남베트남 서쪽에서 갑자기 사라진 후 수 주 동안 발견되지 않았다. 이 연대가 최종 출현한 때는 1965년 여름 중순 뚜이호아였다. 여기서 이 연대는 뚜이호아 외곽지역을 위협하면서 공세작전을 시작했다.

뚜이호아는 연간 6~7만 톤의 쌀을 수확하는 잘 발달된 지역이었다. 쌀 재배 토지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베트콩과 북베트남의 제95연대에게 장악되도록 넓게 열려 있었다.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은 이 지역을 그들의 식량공급지역으로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곡창지대 중앙 고지대까지가 적에게 전략적 요충지였다. 1965년 여름동안 북베트남의

제95연대는 쌀 생산 통제권을 점점 더 많이 장악했으며 우기 중순, 즉 10월과 11월까지 이 지역을 통제권을 두고 양측이 벌이는 위기는 점점 커졌다.

사람들의 도덕심은 위험한 수준으로 낮게 떨어졌다. 어떤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했다. 지역 거주민들을 보호 뿐 아니라 이 보호조치가 지속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따라서 한국 해병여단이 깡란에서 뚜이호아 지역으로 이동했다.

제101공정사단의 제1여단은 수도사단이 정착될 때까지 끼년 주변의 고지대를 보호할 책임을 완수함과 동시에 뚜이호아 지역으로 이동해 내려가면서 적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한국 여단이 뚜이호아 지역으로 이동할 때 미국과 한국의 두 여단은 수 주일 동안 나란히 작전을 했지만 1965년 크리스마스에는 101공정사단의 제1여단은 그들의 홈베이스가 있는 판랑의 남쪽으로 이동했다. 이로써 뚜이호아 전 지역은 한국군에게 넘겨졌다.

한국군 제9사단이 베트남에 도착한 후 웨스트모랜드 대장이 채명신 대장에게 요청한 내용은 미국 제1야전군의 본부와 인접한 나짱(Nha Trang)에 군단본부를 정하라는 것이었다. 한국군 군단본부가 설립되고 나짱에서 작전이 시작된 1966년, 채명신 장군은 사이공에 본부를 설립하여 베트남 주둔 전 한국 군대의 최고지휘관 직위에 오르기로 결정하고 베트남 미군지원사령부와 동일한 베이스로 한국 정부를 대표하고자 했다.

제1야전군에 인접한 나짱에 한국 군단본부(야전사령부)를 설치한 것은 지휘 및 통제 목적이 분명했다. 한국군 병력 5만명 이상, 베트남의 제2군단 2개 사단 및 반개 사단, 미국의 완편 2개 사단과 1개 여단이 있는 이곳에서 한국 군단본부는 이들 동맹국들과의 연락시설을 갖추



방어준비 중인 한국 해병여단

었다. 전술 문제뿐 아니라 군수지원 문제에 있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군단본부 간의 밀접한 이해가 필수적이었으며 이로써 새 임무와 지원의 종류를 확정할 수 있었으며 작전을 수행하는 곳에서 언제든지 한국 전투부대를 요청할 수 있었다. 나짱의 제1야전군과 나란히 작전을 수행하고 협조함으로써 한국 군단은 미군의 작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상호협조에 의거 두 국가의 참모요원들은 서로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했다. 제1야전군의 작전장교와 한국군단의 작전장교는 1주일 4~5회씩 만났으며 양측 정보장교들은 정보를 상호 교환했다. 행정협조에 대한 요구는 없었다. 군수측면에서 양측 참모장교들은 수행하고자 하는 작전에 대한 군수지원 요구의 타당성을 점검했다.

3국 간 관계의 발전이 더 중요했던 이유는 장차작전을 계획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베트남 제2군단장 빈락(Vinh Loc) 장군, 미 제1야전군 사령관 라슨(Larsen) 장군 및 한국군사령관 채명신 장군 3명이 사전에 수 주일 동안 작업해야 하는 내용이었다. 6개월마다 이 3명의 지휘관들은 참모들과 함께 차기 6개월의 작전과 전략을 협의했다. 주요 책임분야와 관련하여 어떤 마찰도 발생하지 않았다. 오직 계획된 작전에 대한 무기와 헬리콥터의 지원시기와 지원의 형태에 관한 문제들이 협의를 통해 해결되었다.

1966년 9월의 빈딘(Binh Dinh) 지방에서 행한 주요 작전은 이 협의체를 통한 협의 결과였다. 수도사단은 젊고 탁월한 류병헌 장군이 지휘했다. 류 장군은 제1기병사단의 지휘관 노튼(John Norton) 소장, 베트남 제22사단의 응웬반히에우(Nguyen Van Hieu) 장군과 함께 뛰어난 본부에서 세부사항들을 협의했다.

3개 사단 지휘관 사이에 협의된 작전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때가 되면 제1기병사단은 안케 북쪽으로 이동하며, 그 다음 푸깃

산 북쪽 지역을 소탕한 후, 이 지역을 확보하여 적 제2연대와 제18연대 및 제22연대의 일부 및 봉선(Bong Son)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적 제3사단의 지휘를 받는 모든 적을 색출하도록 합의했다. 한국군은 북으로 이동하여 푸깃 산의 전 지역을 소탕하며, 산의 북쪽 해안을 연하는 협을 장악하도록 합의했다. 베트남 제22사단은 바다를 향하여 1번 국도에서 출발하여 한국군과 미군 사이로 이동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군은 푸깃 산 위로 신속하게 이동한 후 이 지역의 요지를 신속하게 점령했다. 며칠 사이에 2개의 북베트남 대대가 장악했던 지역을 완전 평정했다. 한국군의 작전은 완전하고 극히 효과적이었다. 600정 이상의 소총을 노획했다.

1965년 말까지 채명신 장군 예하의 한국군단은 푸깃 산으로부터 아래 판랑까지 모든 도로를 통제할 책임을 가졌다. 작전지역에 대한 책임은 1번 국도 양측의 인구밀집지역 전체를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푸이호아의 제9사단 최북 여단이 위치한 지점과, 미국의 제101사단 예하의 제1여단과 제4사단의 부대들이 1966년 초와 중반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빈딘 지방의 수도사단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푸옌(Phu Yen) 지방을 제외하면 나머지 전 지역은 한국군의 책임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군은 여기서 베트남군이 이 지역에서 작전할 경우에는 이들과 밀접한 협조를 하기로 했다.

소부대전술에 관한 한국군의 능력을 보여준 또 다른 예는 제1군 본부와 채명신 장군 사이의 협조를 들 수 있다. 채명신 장군은 중앙고원 지대에 한국군 1개 대대를 지원하여 캄보디아 바로 동쪽 19번 도로 남쪽에 있는 미국 제4보병사단을 돕도록 했다. 이 대대가 도착했을 때 대대는 3개의 중대 전초로 분리되어 각자의 베이스캠프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소부대 정찰을 실시했다.

한국군이 고원지대에 도착하여 6일째 되는 밤에 적 제101연대의 1개 대대로 추정되는 북베트남군 대대가 최북단 중대를 공격했다. 적은 근접전투를 연속으로 실시하면서 중대지역을 뚫고 들어오려고 몇 시간을 악전고투했지만 시도할 때마다 격퇴당했다. 새벽이 되었을 때 한국군은 7명이 전사했으며 적은 182명이 사살되었다. 적 전사자 수에는 그들이 끌고 간 시체와 사상자 수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였다. 한국군 중대는 미 육군 탱크의 지원을 받았으며 미군 탱크전투원들은 한국군의 작전을 끝없이 칭찬했다.

한국군의 기여를 크게 말하면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파병된 군인의 설명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박대통령은 지원자들만 베트남으로 보냈다. 많은 군인들이 파병할 것을 지원했기 때문에 지휘관들은 직접 데리고 갈 군인들을 선발할 수 있었다. 파병 기간은 1년이었지만 한국군이 요구하는 높은 군기를 견디지 못하는 장병은 언제든지 즉각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선발된 부대는 한국전쟁에서 최장, 최고 기록을 가졌다. 한국 육군사에 의하면 이 부대들은 그들 부대의 역사, 임무, 위치에 기초를 두고 선발되었다. 수도사단은 한국 육군에서 가장 유명한 사단이기 때문에 이상적이었다. 또한 이 사단은 한국 육군의 첫 번째 예비사단이었다. 따라서 이 사단을 빼는 것은 다른 사단을 빼는 것보다 전방의 전술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 나아가 이 사단의 책임지역은 베트남의 지형과 비슷했다.

제9사단은 명성이 높은 전투부대일 뿐 아니라 선정 당시 중요한 전방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미국은 선발된 부대에 대해 거부하지 않았다. 비록 유엔군사령관의 동의를 받았지만 이 부대들은 한국 국방장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발되었다.



나짱의 주월한국군 야전사령부

한국 군인이 해외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그들의 현대사에서 처음이었기 때문에 한국군 지휘관들은 최고 수준의 병사들을 내보내기를 원했다. 이것은 병사들의 동기를 최고로 유발시켰으며, 훈련과 군기를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게 하였다. 각 병사들은 외국의 전투지역에서 자기 국가의 개인 사절처럼 자신의 전술적 능력과 행위로서 한국 육군의 이상과 군기를 설명하고 있는 듯 했다.

한국 육군 전체를 스크린하여 훑은 다음 최고의 장교와 병사들을 한국 수도사단으로 발령했다. 전투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초급장교는 한국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다. 각 장교는 수도사단의 고급 장교에 의해 직접 선발되었다. 사단 참모들도 며칠 사이에 완전 교체되었다. 1965년 11월 26일의 사후조치 보고서에서 앞으로 사용할 방법이 하달되었다.

수도사단은 예비군단의 예비사단이었기 때문에 이 부대에 보직된 인력은 우수 자원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들 인력의 90% 이상은 파병할 수 있는 우수 인원으로 대체해야만 했다.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군 내에서 고도로 숙달된 인력을 이 부대로 전입시켰다. 우수 인력을 차출해야 할 사단들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사단에서는 동일한 우수 인력을 차출하도록 지시되었다. 약 500명의 병력이 각 사단으로부터 획득되었다. 소대와 분대도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재편되었다.

장병의 유인책으로서 베트남에서 1년 종사하면 한국군에서 2년간 복무한 것과 동일한 연금혜택도 주었다. 전투임무는 이들의 군 경력을 강화시켜 주었다. 유사한 절차와 혜택이 제9사단에게도 적용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채명신 장군 같은 고급장교들을 직접 선발했다. 채 장군은 한국의 우수한 장군이였다. 만약 다른 사람이 더 훌륭했다면 박대통령은 그 사람을 보냈을 것이다. 만약 채 장군이 미국의 작전통제 하에 두어진다면 채 장군과 접촉하는 모든 미국인들은 그를 칭찬하느라 노래를 불렀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본국 정부를 기쁘게 해주어야 함과 동시에 미국인들로부터도 좋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 어려운 직책에 앉아 있었다.

미국인들이 한국전쟁 때 알았던 한국인과 베트남 전투에서 작전할 때 알았던 한국인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흥미 있는 일이었다.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미국인들은 대부분의 전술지원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조언을 해주는 국민으로 알고 있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모습은 다르게 설명되었다. 한국군은 스스로 전술 및 전술지원 작전에서 인정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공병과 의무행정을 포함하는 군수분야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 잘하

고 있었다. 이것은 미국인들에게는 자랑거리였다. 이들은 수년간 베트남의 한국군 지휘관과 부대가 교대될 때마다 보여주었던 자립심과 자신감을 관찰해 왔다.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방어적으로 행동하도록 배웠다. 그것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싸우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베트남에서도 한국군은 방어적으로 싸울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인은 자신의 열정을 증명할 기회가 주어질 때는 공격적인 군인이었다. 한국군의 임무의 많은 부분은 원주민을 보호하는 것이었지만, 한국 군인과 직속 상관, 즉 선임하사, 소대장, 중대장은 적을 추적함에 있어서 극히 공격적이었다. 한국군과 미국군의 약간의 차이는 미군은 헬리콥터를 완전하게 활용하도록 교육되었으며, 집중적인 군수지원을 받으며 넓은 전술작전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 군대는 적이 있다고



원주민에게 부비트랩 종류를 차트로 설명 중인 한국군

의심되는 지역이 있는 곳에는 적을 찾기 위해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요구가 있었다. 한국군은 반대로 지역 주민과 연결된 지역 세트를 부여받고 있었으며, 적을 수색할 때 전술적으로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면서 더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군은 약간 다른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 임무 중 하나는 1번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들을 개통시켜 이들이 만나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한국군은 계획을 수립할 때 완벽했고 실행할 때 정확했다. 그들은 은밀히 빠르게 이동하여 지역을 포위했다. 적 사상자 수는 미군부대의 사상자 수 보다는 비율 면에서 많지 않았지만 미군이 유사한 작전에서 포획한 무기 숫자보다 훨씬 많은 무기들을 노획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들이 싸운 지역 안에서 한국인이 수색한 작전의 완전함은 위의 사실로 증명되어졌다.

한국 고급장교 및 초급장교 모두는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미국인과 대화함에 어려움이 없었으며 미국의 큰 전술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두 국가의 군대가 함께 작전함에 어려움이 없었다.

비록 미군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한국인은 장비를 취급할 때 요구되는 많은 주의사항들을 지키며 다루는 솜씨가 탁월했다. 물건을 사용할 때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대전제는 물건을 사용하는 각 개인에게 모의장비로 방법을 익힌 후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교량 건설, 가옥 건설 및 방수지붕 건설, 재료들을 주워 모아 안락의자 등을 만드는 일을 할 때 미국 형제들은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을 사용했다. 예를 들면, 한국인은 탄약 상자로 유리창, 출입문, 조립식 가옥 등을 만들었다. 레이션 상자 마분지를 접어 지붕판자를 만들었다 이 판자 지붕은 수개월 동안 지속되었으며 몬순 기후 동안에

도 견뎠다. 지붕판자가 헐었을 때 풍부한 마분지로 지붕판자를 얼마든지 만들어 사용했다. 새 땅의 기초만 만들어지면 2~4명의 장정이 모여 시간들이지 않고 오두막집을 지었다. 이것은 미국의 파트너들이 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한국군 주둔지를 방문하는 자는 한국 군인이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은 것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볼 수 있었다.

한국군의 주목할 만한 자산의 하나는 군기였다. 한국군은 준비, 훈련, 헌신에 뛰어났다. 연대가 도착할 때마다 베이스캠프를 건립했으며, 즉시 훈련을 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장교의 지휘로 전투임무지로 향했다. 한국군 군기와 사기는 자발적이었다. 내부에서 우리나라의 자발적인 군기와 사기였다. 한국군의 자존심(sense of self-preservation)은 상관이 주위에 없을 때 내부적으로 느끼는 곤경으로부터 빠져나오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불꽃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군기와 강한 자부심은 외모에서도 보였다. 한국군은 행정직이거나 혹은 전투지역에 배치되거나 관계없이 얼굴에 위장을 하지 않고 나타난 적은 거의 없었다.

베트남에서 한국군의 공헌을 평가할 때 이들은 미국 군인과 동등한 공헌을 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 군인 한 명은 미국 군인 한 명을 보내는 것을 구했고, 파병 동맹국의 군인 한 명을 보내는 것을 구한 것이었다. 크레디트를 거의 요구하지 않았던 한국 군인들은 미국 언론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 또한 미국인이 베트남에서의 그들의 공헌에 감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었다. 미국 군인 5만명을 베트남에 파병하는 것을 구한 것 외에 한국군은 해안선지역 수백 마일의 거리에 있는 베트남인들을 보호했다. 한국군은 북베트남 군인과 베트남의 강압적인 지배를 제거했다.

1966년 1월 중순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한국군을 평가하면서 한국군 고급 지휘관들이 도착하여 2~3개월 동안 그들이 행할 공세작전을 치밀하게 통제했으며 새 전투 환경에 대비하여 훈련을 실시했다. 이것은 이들이 적극성이 없으며 사상자를 내는 것을 망설인다는 인상을 주었다. 1966년 1월 초, “날으는 호랑이(flying Tiger) 작전”에서 한국군은 11명으로 192명의 베트남을 사살했다. 이 전과는 “제퍼슨 작전(Operation Jefferson)”에서 거둔 한국군의 성공과 함께 한국군의 전투 효율성을 검증하는 지표가 되었다.

한국군은 베트남 군대와 관계에서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 이유는 한국군의 장비는 베트남 지방군 혹은 민병대의 장비보다 좋았다는 것과 언어의 장벽과 동양인 얼굴 때문이었다. 베트남군의 태도는 빨리 변경되었다. 그러나 한국군에 대한 그들의 평가는 미군의 평가와 근본적으로 동일했다. 한국인은 이들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 병사와 베트남 농부의 주거형태가 비슷한 유래를 지니며 양국 모두 농업경제를 기반으로 하며 종교와 지방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공통점을 가졌다.

한국군은 독립적이며 행정적으로 자치적이었다. 베트남 시민과 정부 사이의 군 기강 문제를 다룰 때 한국군은 자체 헌병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였다. 헌병들은 다루기 힘든 사건들을 독자적으로 해결했다. 미국인, 베트남인, 한국인 모두에 대해 실시되는 헌병의 순찰은 3개국 대표를 구성하여 시행되었다.

한국군의 규모는 미국이 생각할 때 한국의 입장에서 가능하면서 미국이 이 규모에 대해 자금을 지급할 의도가 있는가에 의해 결정되었다. 군사적 필요성은 한국군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미국은 처음 1개 사단을 두고 협상했다. 1개 사단이 베트남에



귀년 정글의 베트남을 수색하는 한국군 장병

파병된 후 2개 사단(+급)의 군단을 파병시킬 협상을 시작했다. 두 번째 협상에서 미국의 부담은 증가되었다. 이는 한국 측이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받아내려고 애썼기 때문이었다. 양측은 각각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

요약하면, 한국군의 활용과 운용에 관한 공식 합의는 없었다. 처음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제1야전군 사령관에게 말하기를 한국군은 자기의 통제를 받는다고 했다. 수도사단장 채 장군은 제1야전군을 방문했을 때 자기는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했다. 한국군의 두 번째 사단과 해병 여단이 도착한 후 한국 군단은 채 장군의 명령으로 제1야전군으로부터 독립하였다. 그러나 작전은 군인정신으로 협동하였다. 한국군은 인구 밀집한 해안의 중요한 지역에 배치되어 본국과 해

외에서 한국군의 과병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갈망했다. 한국군은 사상자를 최소한으로 줄이라고 지시했다.

박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하는 동안 웨스트모랜드 대장에게 말하기를 자기의 부대가 그의 지휘 하에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구두 표현은 한국군이 미군에 예속되는 것을 배척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제1야전군 사령관에게 “물은 스스로 높이를 정한다(water seek its own level)”는 원칙을 적용하여 한국과 지휘관계 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 양국관계와 협력은 아주 좋았지만 서로 외교와 눈치를 살피면서 행했다. 한국군은 점차 해안지역으로 넓게 전개하였으며 주민들을 안정시켰다. 미국의 제안을 따르도록 설득하는 것이 당시에는 필요했던 것 같았다. 한국군은 아시아인으로서 공통 배경 때문에 원주민과 작전을 잘할 수 있다고 믿어졌다.

한국군 전투작전의 성과

Results of Korean Combat Operations

베트남에서 한국 육군과 해병의 성공은 적에게 가한 많은 사상자와 한국군이 거둔 높은 사살자의 비율로 표현된다. 대량의 무기와 물자를 노획했을 뿐 아니라 한국군 책임지역의 베트콩 조직을 심각하게 와해시켰다. 웨스트모랜드 대장의 표현에 의하면 “고도의 도덕, 전문성, 공격정신”의 요체로 한국군을 설명했다. 그는 계속하여 말하기를 “베트남에서 한국군의 용기와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를 받았다”라고 했다.

한국군 수도사단과 제9사단은 1967년 7월의 오작교 작전(Operation Oh Jac Kyo)에 이어 적 제95연대에게 많은 부대와 병력을 잃게 만듦으로서 푸옌(Phu Yen) 지방 적의 공세 의지를 무력화시켰다. 7월 9일과 31일 사이의 홍길동 작전(Operation Hong Kil Dong)은 적 사살 408명으로 사살 대 피해 비율 15대 1의 기록을 남겼다. 8월 28일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다가오는 선거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군이 거둔 전과는 적 사살 638명, 사살 비율 24대 1이었으며 98명의 수병과 359명 분량의 무기를 포획했다.

1967년 4/4분기에 주요 한국군 작전은 없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9월의 베트남 선거에서 적들이 이 선거를 전복시키려고 획책하는 기도를 차단하고 주민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는 임무와, 다른 한 부분으로는 국도 1번과 19번의 350km 이상의 거리를 연하여 소부대활동을 한국군이 수행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1968년 동안 한국군의 작전은 이전과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한국군은 집중적인 소부대작전, 밀림작전, 적 부대 수색 및 격멸 작전을 책임을 맡은 전술지역에서 수행했다. 전반적으로 이들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1968년 1월 23~29일 사이의 수도사단에서 행한 작전을 분석하면 한국군의 테크닉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푸갓(Phu Cat) 부근의 적과 조우한 후 한국군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6개 중대를 원형 기동으로 전개하여 포위망 안의 적군을 함정에 몰아넣었다. 한국군은 점점 원형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낮에는 전투를 밤에는 저지선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적의 탈출을 막았다. 6일 동안의 전투에서 한국군 전사 11명, 적 사살 278명으로 사살 비율 25.3대 1의 전과를 올렸다.

1968년 후반 제9사단의 백마작전(Baek Ma)은 10월 11일 시작되어 11월 4일에 끝났으며 적 사살 382명과 북베트남 제7대대, 18연대를 무력

화시켰다. 이 작전 동안 10월 25일에 사단 창설 기념 18주기를 맞아 적 사상 204명, 아군 피해 전무의 전과를 올렸다.

한국군은 소부대작전을 계속했다. 미군지원사령부 분기평가서 1968년 마지막 분기 한국군 작전평가서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분기 말에 제2군단 작전지역의 동맹군은 집중적인 작전을 펼쳐 적군을 격멸하고 평화캠페인(Accelerated Pacification Campaign)을 지원했다. 전반적 작전의 성공요체는 소부대전술작전이였다. 예를 들면 한국군은 195회의 소부대작전을 수행했다.

한국군이 소부대작전을 강조하는 것은 제2군단의 작전지역에서 군사력의 경제적인 운용에 관한 방침을 계속 유지하며, 도시와 주둔지의 방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1969년 1/4분기 동안 제2군단 전술지역의 주요 활동은 베트남군의 평화활동과 전투효율을 향상시키도록 지도하는 것이었다. 한국군은 계속하여 닌투언(Ninh Thuan)의 판랑(Phan Rang)부터 빈딘 지방의 끼년까지 중앙해안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제했다. 모든 파병 동맹국들은 적의 기지지역을 색출하고 은닉물을 빈번하게 찾아냈다. 빈딘지방은 다른 지방을 리드하여 적을 찾아내었다. 그러나 보고된 작전의 대부분은 소부대 접촉에 의한 적은 전과였다. 동맹국 특히 한국군은 소부대 작전을 크게 강조했다. 적은 결정적 전투개입을 피하고 민간인 집중지역과 지역군에게 공세를 집중했다.

한국 주둔지 외곽방어선과 수색작전에 관한 분석이 피어(William R. Peers) 중장에 의해 행해졌다. 피어 중장은 한국군은 소부대 작전에서 베트남에 파병한 타국가보다 전문적이라고 생각했다.

이 작전을 행함에 있어서 핵심 요소들이 있었다. 첫째, 한국군은 훈련에서 세부사항까지 완벽했다. 둘째, 그들의 저지선은 상대적으로 좁으며 연대급 부대에 대한 면적은 9~10km²를 초과하지 않았다. 셋째, 최대 군사력을 운용하였는바 일반적으로 연대급 이상부터 사단급까지 운용했다. 최종적으로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이행연습과 평가를 실시했다. 부대들은 헬기, 트럭,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포위선(the periphery of the cordon) 주변의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전 병력은 포위망을 완성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동시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부대 밀집도 면에서 저지선 상의 개인간격은 10m 미만이었다. 이들은 적이 사전에 침투할 틈을 주지 않았다. 개울과 여울목(gulleys)에는 유자철조망(barbed wire)과 그 외 장벽자재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으며, 가슴까지 차오르는 깊이의 물속에 병력을 배치하여 밤새도록 지키게 했다. 저지선의 봉쇄는 아주 천천히 정확하게 실시되어 돌 한개도 파헤쳐지지 않게 혹은 땅 조각 한 치도 파헤쳐지지 않도록 하면서 저지선을 봉쇄해 들어갔다. 지역이 정리되면 그들은 이 지역 전체를 앞으로 뒤로 물결치듯 움직이면서 잔당들을 숙아냈다. 이 작전의 다른 중요한 특징은 반격부대의 확보였다. 적은 저지선이 자신의 주위에 설치되면 곧 알아챈다. 만약 개인별 혹은 소수인원별로 사전에 빠져나가지 못했다면 한 무리로 뭉쳐 한 지점을 뚫으려고 시도했다. 이에 대비하여 한국군은 반격부대를 여러 개 준비하여 대비했다. 적은 포위망을 뚫기 위해 본격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포위망 주변의 여러 곳에 한 개 이상의 속임수 작전을 행한다는 것을 한국군은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군 반격부대는 적의 본격 활동이 개시되기 이전까지는 소수부대만을 투입했으며 그 다음 본격적인 적의 시도가 시작되면 신속하게 반격했다. 이 전술을 사용함으로써 한국군은 포위 및 수색작전의 최고

봉을 개발했다. 적과 아군의 사상자 비율은 100:1을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1969년 한국군 대규모 작전은 연대급 이하 규모와 단기간 작전 및 특수표적 한 개에 대해 시행되었다. 이 유형의 작전이 바로 1969년 5월 9~11일 캄란 근교에서 행해진 동보 7호(Dong Bo 7) 작전이었다. 9사단 30연대 제2대대 군인들은 북베트남 육군 제5사단의 기지가 있는 타오(Tao) 산 위로 공중수송되었다. 이들은 동굴과 암거를 수색했다. 작전 종료되었을 때 적 사살 155명, 한국군 전사 3명, 부상 1명의 대전과를 거두었다.

1970년 내내 한국군은 전반적인 평화정착프로그램과 일반적인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작전을 계속해서 수행했다. 한국 육군사단은 평균 1일 150회의 소부대 작전을 수행했으며 여기에는 매복, 수색 및 소탕작전, 소수 거주지주변의 안전확보 작전이 포함되었다. 한국군 활동의 주요성과는 한국군의 대규모 작전에서 나타났다. 이들의 사살 비율은 그 어떤 다른 작전에서보다 높았다.

한국군이 임무를 수행할 때는 항상 이전처럼 잘 했다. 이들에게 부여된 전술 책임지역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이들은 지리적으로 한계지역까지 뺐었으며 위로는 뛰어난 북쪽의 푸깃으로부터 도로를 소통시키는 임무와, 닌투언(Ninh Thuan) 아래의 판랑을 향하는 길을 소통시키는 임무와, 빈딘 아래 3개 지방을 유지시키는 임무를 잘 수행했다. 이들은 수백 마일의 도로 책임지역을 부여받았으며 이 도로들을 항상 개통시키고 있었다.

적은 한국군을 두려워했다. 그 이유는 한국군의 전술적 혁신과 불굴의 군인정신 때문이었다. 이것은 그저 지나가는 관심 이상이었다. 미국 군인 중에서는 한국군과 같은 작은 체구, 그리고 냄새를 없앨 수 있는 군인을 베트남에서 본 적이 결코 없다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관심거리였다. 한국군은 사상자를 많이 내지 않고 많은 수의 적과 조우한 작전이 아니었음에도 75~100정 이상의 무기들을 포획한 것을 본 미국인들은 도대체 이 세상 어디서 이들을 노획해 올 수 있는 것인지 의아해 했다. 한국군은 적의 무기를 찾을 수 있는 타고난 코(natural nose)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이들은 적이 비밀스럽게 은닉한 무기들을 기어이 찾아냈다. 한국군이 아군이었다는 것은 행운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한국군 작전 평가

Evaluation of Korean Operations

한국인 작전에 대한 미국의 고급장교들의 평가는 한국군이 베트남에 더 오래 파병될수록 더욱 비판적이 되어갔다. 이 추세를 설명하는 여러 요소들 중 첫째, 미국 지휘관들은 이 지역에 대한 경험과 적을 잘 아는 한국군을 더 많이 기대했다. 둘째, 이전의 경험에서 보면 한국군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숫자놀이(by the numbers)를 하면서 각 작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 셋째, 시간이 지날수록 베트남에 파병되는 한국군은 자질이 떨어져 최초로 도착한 한국군의 높은 수준, 즉 “곡물위의 크림(cream of the crop)”과 같은 멋진 군인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었다.

라슨 장군의 후임자 제1야전군 사령관 로손(William B. Rosson) 대장은 그의 “근무결과 요약보고서”에서 한국군과 미군과 베트남군 사이의 효율적인 팀워크를 확립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느낀 점을

제시했다. 로손 장군은 한국군의 정신력, 자세, 훈련, 정치적 민감성 및 국가적 자부심이 결합된 특징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자기억제와 비 율 통성이란 한국군의 특징으로 나타나 미군 장교들을 이해하고 미군 장교들과 협조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고 하였다. 로손 장군은 이 문제 점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로손 장군은 한국군을 상대하는 테크닉도 찾아냈다. 자기보다 하급 장교들을 불시에 방문하였으며, 공통적인 회의 의제를 다루는 한국군 회의를 사전 조율 없이 통합하게 하여 서로의 관계를 친숙하게 만들었다. 연합작전을 계획하여 실행하였으며, 한국군의 요청은 가능한 한 들어 주었으며, 전투 중에 한국군 부대를 방문하여 개인적으로 얼굴을 맞대며 한국군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러한 로손 장군의 리더십은 양국 군의 이해와 협조를 증진시켰다.

이 테크닉 중의 하나인 가능한 한국군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은 로손 장군의 후임에게는 도전이 되었다. 연합작전의 기획과 시행은 미군과 완전한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꺼리는 한국군의 불평의 원천이 되었다.

로손 대장의 후임 피어(Peer) 대장은 언급하기를, 이와 같은 테크닉을 배우고 이해는 하였지만, 실제로 한국군은 고도로 효율적이며 함께 일하는 것을 매우 즐긴다고 말했다. 피어 장군은 한국군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포병 및 헬기, APC 차량과 탱크 등을 추가로 지원했으며 이것은 한국군과 인접한 미군부대와의 협력을 발전시키는 큰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술회했다.

1970년 2월 15일부터 1971년 1월 9일 기간 동안 제1야전군 사령관을 지낸 콜린(Arthur S. Collins, Jr.) 중장은 약간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한

국군은 헬기와 지원을 과도하게 요구했으며 작전 후 너무 장기간 차기 작전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군 2개 사단의 노력은 미군의 양호한 1개 여단의 노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콜린 대장은 부임 8개월 동안 한국군이 요구하는 것은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을 한다는 전임자의 정책을 고수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그의 최종 분석에서 이것은 실수였다고 실토했는데 그 이유는 한국군은 모든 지원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작전들을 모두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덜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존중을 받고 협력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느꼈지만 이렇게 덜 지원해 주는 것이 한국군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했다.

콜린 대장의 후임자인 브라운(Charles P. Brown) 소장은 제1야전군 부사령관에서 후에 사령관에 취임하였으며 1970년 3월 31일부터 1971년 5월 15일 기간에 제2지역지원사령관을 역임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군은 연대급 및 사단급 작전을 계획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끌었지만 작전 실행기간은 짧았다. 즉 한국군은 “장기계획 단기 전투”를 수행했다.

공중기동작전을 지원할 헬기요청 계획은 빈약한 계획이다. 대부분 과도하게 많은 헬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들의 전술계획은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않고 이들의 항공요청을 거의 절반으로 낮추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들의 작전 실행은 방법론적이며 완벽하며 기본계획에 충실하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전술상황의 이점을 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융통성과 창의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즉 전술적 기회

에 대한 반응이 느리며, 이것은 자기들의 자체 작전 내에서 뿐 아니라 타군에 대한 반응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군은 야전에서 해야 하는 것만큼 많은 전투일수를 채우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들의 전술책임지역(Tactical Area of Responsibility)에 타 군이 작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그러나 요약하면 이러한 것들은 비판을 받아야 하지만 전투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은 좋은 것이며 한국군의 이 성과는 결국 고려해 주어야 한다.

다른 고급장교들은 한국군 지휘관에게 부여된 한국 정부의 정치적 압력과 이것이 한국군 작전에 끼친 영향을 언급하였다. 한국 정부는 변화하는 지상 상황의 요구에 완전히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내리는 정책지침들은 한국군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 특히, 한국 정치가 민감해질 때와 베트남의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가 갑자기 변경될 때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에이브람스(Creighton Abrams) 장군의 지적에 의하면 한국군을 순수 전문 직업군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타 파병 동맹국 전부를 능가하는 업적을 수행했을 것이다. 한국군의 업적과 베트남군의 업적을 비교하라는 애그뉴(Spiro T. Agnew) 부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에이브람스 장군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순수하게 전문 직업군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군은 파병 동맹국들보다 앞선 것들이 있었다. 언덕에서 적을 포위하여 공격하고자 결심할 때 이들이 취한 것은 좋은 예가 된다. 이런 종류의 임무는 1개월의 준비기간이 소요되며 B-52 폭격기, 포병 및 탱크의 지원을 얻기 위해 많은 협상이 행해져야 한다. 이들의 계획은 치밀하며 전문성

수준도 매우 높았다. 한국의 계획서는 잘 다듬어지고 완벽했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 특히 주인과 밀접하게 행동할 때 베트남 군인들이 한국군인보다 더욱 감각적이고 융통성이 풍부했다. 짧게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수행하는 전쟁은 오케스트라와 비교할 수 있다. 어떤 때는 드럼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며 어떤 때는 트럼펫 혹은 플루트 혹은 바순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다.

베트남 군인들은 어느 정도 이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나 한국군인은 한 개의 악기, 베이스드럼 한 개를 연주한다. 요약하면 베트남에서 한국의 작전은 매우 전문적이었으며 잘 계획되고 완벽하게 실행되었다. 규모와 범위는 제한적이었으며, 특히 사용한 자산에 비해 너무 제한적이었다. 일방적이며 한국군 전술 책임지역 내에만 치중했다. 본국 정부의 정치적 입장에 예속되었으며 적 사실 비율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



기념식장에서 한국 기수단의 깃발 도열

전술

Tactics

한국군은 미 육군의 교리에서 확립한 전술을 예외 없이 채택했다. 소대, 중대 및 대대 작전은 숙달된 무기의 사용과 기동 및 엄격한 사격 군기로 특징지어진다. 관찰된 모든 예에서 보여지는 기본 규칙은 전술 기동이 진행될 때는 언제나 한 개 부대는 다른 부대를 책임지도록 하였다. 수색 및 격멸 작전 동안에 중대는 소대들과 나란히 책임 지역을 향해서 이동해 나갔으며 간격은 150~200m로 이 거리는 지형의 특성에 따라 정해졌다. 한 소대는 통상 뒤에 남으며 본부요원들의 경계임무와 근접전에서 중대의 반격부대로 운용된다. 소대 내에서 V-형태 혹은 거꾸로 된 V-형태로 전개하였다. 이 형태는 적군 혹은 마을을 포위 하도록 하는데 유용했다. 선두 소대는 우측 혹은 좌측에 배치되었으며 나머지 소대들은 상황이 요구될 때 수색 혹은 공격을 펼쳤다.

한국군의 수색은 완벽하고 정밀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부대가 만반의 준비가 되었을 때 이동했다. 건전한 계획을 준비하고 모든 요원들이 그 계획을 알고 있었다. 각 부대들은 상호 지원하였다. 통상적으로 동일한 지역을 서로 다른 소대가 3~4회 수색했다. 소대와 중대의 작전지역은 미군부대에게 배정된 지역보다 통상 작았다. 부대들은 지휘관들이 완전히 정리되어 만족할 때까지 각 목표 지역에 머물렀다. 이로써 시간을 치루고 베트남의 뿌리를 뽑았으며 무기와 장비를 찾아냈다.

은둔지역을 수색할 때는 시민들을 모아 인솔하여 안전한 중앙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즉각적인 전술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캐냈다. 시민들은 나이와 성별로 나뉘었다. 여성과 어린이는 2집단으로 나뉘어 심문

받았다. 남자는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았다. 한국군은 정보를 캐내기 위해 정기적으로 보상했다. 한국인에게 정보를 얻게 해준 사람에게 음식과 의료품을 지급했다. 여성과 어린이들에게는 음식, 돈, 사탕 및 담배로 꼬드겼다.

억류자는 좋은 정보 출처였다. 이들은 한국군이 적절한 정보를 캐낼 때까지 중앙지역에 억류되었다. 만약 오래도록 억류시키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론으로 이들을 급히 석방시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베트남 거주지와 무기위치 및 부비트랩과 적의 장비를 가리키기 위해 스스로 참여했다.



맹호사단 장병에게 미국 동성훈장을 수여하는 에이브람스 장군

매복

Ambushes

통상적인 매복군은 소대였다. 소대는 1~2개의 기관총으로 증강되었다. 일선대형(On-line formation)을 유지하고 옆구리에 자동화 화기를 장착하고 선정된 소로로부터 약 20m 떨어진 곳에 매복했다. 이 지역은 어둠이 오기 전에 완전하게 정찰되어 빛이 사라질 때 혹은 어두울 때 점령되었다. 불필요한 모든 장비는 중대기지에 남겨두었다. 얼굴은 검게 위장되었고 모든 장비는 테이프로 고정시켰다.



베트남 원주민 소년을 치료하는 맹호사단 의료팀

매복 지점은 땅을 파헤치거나 나뭇가지를 자르는 등으로 전과 달라졌다는 표시가 나지 않도록 유지되었다. 접촉이 되기 전까지 소대원들 간의 의사소통은 양 지점 사이의 실끈 혹은 로프 줄을 당기는 방법과 무전기를 이용하였다. 적이 사격권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격이 금지되었다. 매복부대는 하루 종일 혹은 밤새도록 소리 없이 정적을 유지했으며 항상 깨어 있었다. 모든 병사들은 졸지 않았고 소대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지도 않았다. 요약하면 한국군의 성공 요체는 다음과 같았다. 군기, 과감성, 훈련, 인내, 병사들의 체력, 탁월한 지도력, 미국 군사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미군 교범에 쓰인 전술 교리와 동일한 교리의 고수, 완벽한 훈련, 진입 전에 선정된 지역의 차단, 중대급 제대에서의 통역자 활용이 성공의 요체였다.

이러한 성공요체는 한국군이 모든 면에서 탁월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한국군은 비효율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비효율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은 전술적 기본을 지켰으며, 군기와 인내와 목표 집중성 및 체력을 입증했으며 존경받을 만 하였다.

평화 노력

Pacification Efforts

한국군의 평화노력은 수년에 걸쳐 상당한 논란이 되어온 주제였다. 파병 초기 모든 지휘관들이 내놓은 평화노력에 대한 논평은 매우 좋게 나왔다. 그러나 후반기 한국군의 평화노력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성에 관한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1968년 7월 5일부터 8월 23일까지 민사작전개발지원단

(CORDS)의 평가단은 제2군단 전술지역의 평화 프로그램에 관한 한국군의 영향을 분석했다.

평가의 기초자료는 한국군 2개 사단의 평화노력과 2개의 전술작전에 관한 개인적 관찰과 한국군 책임지역 내의 지역대표자와의 인터뷰, 미국의 지역 수석 고문 및 이들의 보조자들, 한국 사단의 민사 참모 및 연대 대대의 민사참모들을 관찰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를 실시했다. 한국군의 평화노력에 대한 성과에 비평적인 이 보고서에서 언급하기를 한국군은 지역 안전에 탁월한 기여를 했지만 베트남의 지역군을 강화시키는 일과 정착촌지역이 다시 퇴화하는 것을 막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쏟지 않았다. 베트남에 대한 공격 노력은 헌신적이었지만 한국군의 중립화 활동은 비밀스럽게 눈가림으로 이루어졌다. 경찰 및 개발핵심 간부단 프로그램에 관한 한국군의 지원은 한국군의 민사활동과 심리전프로그램에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부적절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또 주장하기를 한국 장교 일부와 부대들이 부정을 저질렀다고 했다. 한국의 난민 프로그램과 민사작전 프로그램은 높이 평가되었다. 이 프로그램들은 베트남인이 한국인에 관해 가졌던 좋지 않았던 처음 이미지를 약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 보고서는 전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다른 평가자들은 한국군의 전투기술과 효율성을 강조했으며 작전지역 내의 전술적 성공을 인정했다. 한국군이 안전을 개선시켰다는 증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었다. CORDS의 후속 평가는 최초의 결론을 확정하는 성격이었다. 한국군은 탁월한 지역안전을 제공했으며 베트남에 대항하여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던 반면 한국군과 베트남군 사이의 협력과 관계개선은 평화노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분야인데 이 분야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성과였다.



태권도 연습장면을 참관하는 한국태권도 고관

한국 육군의 평화정착 테크닉은 이들의 전투 작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한국군이 지역을 점령하면 적을 몰아내고 민사활동팀이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주민들의 도움을 받기위해 의료지원을 실시했다.

한국 해병의 평화정착 프로그램은 혼합된 평가를 받았다. 베트남 주민과 관계가 불충분했으며 베트남 육군과 불완전한 협력관계를 가졌다.

한국군의 평화정착 프로그램의 공헌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는 이렇게 결론지어진다. 한국 전투부대는 소부대 민사활동 프로그램을 매우 성공적으로 시행했으며 전술 작전책임 지역 내에서 안전을 확보했다. 그러나 완전한 성공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은 불충분한 협력과 협동 때문이며 베트남인들과 관계를 형성할 때 남긴 나쁜 첫 인상 때문이었다.

제 7 장 남베트남에 대한 비군사지원 제공국가

Non military Aid to Vietnam

1964년 7월 14일 베트남 정부가 지원을 호소한 이후 여러 나라에서 군사 및 비군사 지원을 제공했다. 1969년까지 5개 아시아 국가와 태평양

지역	국가명
극동지역	1) 오스트레일리아, 2) 자유중국, 3) 일본, 4) 한국, 5) 라오스, 6) 말레이시아, 7) 뉴질랜드, 8) 파키스탄, 9) 필리핀, 10) 태일랜드
중동지역	11) 이란, 12) 이스라엘, 13) 터키
아프리카	14) 라이베리아, 15) 모로코, 16) 남아프리카, 17) 튀니지아
유럽지역	18) 벨지움, 19) 덴마크, 20) 독일, 21) 프랑스, 22) 그리스, 23) 아일랜드, 24) 이탈리아, 25) 룩셈부르크, 26) 네덜란드, 27) 노르웨이, 28) 스페인, 29) 스위스, 30) 영국
북미지역	31) 캐나다
남미지역	32) 아르헨티나, 33) 브라질, 34) 코스타리카, 35) 에콰도르, 36) 과테말라, 37) 온두라스, 38) 우루과이, 39) 베네수엘라

국가들이 지상군 약 68,000명을 파병했다. 이 나라들은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뉴질랜드, 필리핀, 태일랜드였다.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일본, 영국, 뉴질랜드 및 네덜란드는 경제지원, 인도주의지원, 기술 지원을 콜롬보계획(Columbo Plan) 혹은 양국가의 협정에 의해 제공했다. 1964년 이후 몇몇 다른 나라들도 소형 지속적인 지원을 했으며 반면 많은 나라들은 구호물품 원조를 여러 차례 제공했다. 자유세계지원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준 국가는 미국 외에 39개국이었다.

1)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는 콜롬보계획과 쌍방 직접지원으로 베트남에 광범위한 실질적 원조를 했으며 약 7,000명의 전투병을 파병했다.

2) 자유중국

자유중국은 40명 베트남 전력 기술자를 훈련시켰으며 타이완에서 약 200명 이상을 훈련시켜 주었다. 26채의 알루미늄 조립식 창고와, 농기구, 종자 및 비료, 시멘트, 의약품, 50만부의 수학교재, 그리고 발전소를 지원했다. 또한 백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5천톤의 쌀을 무상증여했다. 개인적으로 보낸 선물도 있었다.

3) 일 본

일본은 베트남 정부의 요청으로 주로 복구지원을 통해서 약 5천5백만 달러의 경제지원을 했다. 2개의 의료팀, 상당량의 의약품, 2만대의 트랜지스터 라디오, 25대의 구급차를 지원했다. 또한 다님강(Da Nhim River)에 거대 발전댐 건설을 위한 기술자와 자금, 전선, 학생과 기술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사이공에 정신병동을 건립했다.

4) 한 국

한국이 파병한 군사력은 미군을 제외하면 파병동맹국 중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한국군 의료요원은 주둔지역 주변의 주민에게 진료를 제공했다. 7명의 의료팀은 지역보건프로그램을 시행했으며 118명의 의사, 간호사 및 지원인력이 참여했다. 5만 달러 이상의 구호품을 증여했다.

5) 라오스

라오스는 1965년 수재구호금 4,167달러를 기부했으며 1966년 난민을 위한 소액을 기부했다. 1968년 5,000달러의 구호품을 제공했다.

6) 말레이시아

1964년 초 말레이시아는 약 2,900명의 베트남 군인과 경찰 간부를 훈련시켰다. 한 달에 30~60명이 말레이시아로 가서 대게릴라작전 훈련을 말레이시아 경찰특수요원과 함께 받았다. 또한 대게릴라작전 장비, 군경수송차량 및 의무 및 구호품을 제공했다.

1967년 초 말레이시아는 총 10.5백만 달러 이상의 경제 및 기술을 지원했다. 이들이 지원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개의 수술팀(42명), 수로와 도로건설을 위한 1개 기술단, 낙농 전문가 3명. 자국에서 130명의 베트남인을 훈련시켰다. 150만 부의 교재를 베트남 정착촌학교에 공급, 베트남 군인가족 주택 지붕개량 재료 3,300톤 공급, 대형 마을 제분소 6개, 연장 15,750개, 라디오 400개, 확성기 2,400개, 담요 16,000개, 압축우유 14,000상자, 반메투옷(Ban Me Thuot)에 출력 50kw 방송국을 공급했다. 아울러 약 65만 달러 가치의 비상지원을 1968년에 제공했다. 여기에는 건설자재, 식품 및 백신이 포함되었다.

7) 뉴질랜드(New Zealand)

뉴질랜드는 비군사지원 부문에서 평균 연간 347,500달러를 지원했다. 1969년 1년 동안 민간지원으로 48,000 뉴질랜드 달러를 사용했으며, 이는 뛰어난에서 활동하는 15명의 수술팀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비용과, 뉴질랜드에서 80명의 베트남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과, 기술학교 지원 장비와, 사이공대학에 과학관 건립 기부금에 사용된 경비였다. 1968년 초 뉴질랜드 정부는 식품과 기타 보급품으로 2만 달러를 기증했다.

8) 파키스탄(Pakistan)

파키스탄은 수해 희생자에게 자금지원과 의류를 공급했다.

9) 필리핀(Philippines)

필리핀 정부는 1,500명의 군 공병부대를 자체적인 안전 및 경비책임으로 파병했으며, 기지병원 1개, 정착촌 보건 및 민사활동팀을 파견했다. 이 팀들의 대부분은 1969년 철수했다. 12명으로 구성된 의무팀에 대한 자금, 의류, 식품, 의약품은 기부금으로 지원했다. 필리핀 정부는 28,000달러 가치의 보급품을 무상 증여했다.

10) 타일랜드(Thailand)

비군사지원으로서 타일랜드는 난민을 위한 쌀, 시멘트, 주택지붕용 자재를 공급했다. 1968년 초에 242,170달러 가치의 건축자재와 백신을 증여했다.

11) 이 란(Iran)

이란은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많이 확대했다. 존슨 대통령의 호소가

있을 직후, 이란은 석유제품과 1천 톤의 휘발유를 1965년 7월에 전했다. 1966년 1월 12일 이란은 베트남에 고급 의료팀을 유지시켰는데 여기는 20명의 의사와 의료기술자 및 간호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레드 크레센트(Red Crescent, 회교국의 적십자사) 혹은 세계적십자사와 동격에 해당하는 레드라이언(Red Lion)과 썬 서사이어티(SUN Society)의 조직으로부터 파견되어 왔다.

12) 이스라엘(Israel)

이스라엘은 수해민을 위해 의약품을 증여했으며 농업용수 관개기술자 3명을 훈련시켰다.

13) 터 키(Turkey)

터키는 의약품을 공급했다. 1968년 초에 백신을 상당량 지원했다. 또한 상당량의 시멘트를 제공했다.

14) 라이베리아(Liberia)

라이베리아는 의약품 구입과 의무장비 구입을 위해 50,000달러의 선물을 했다.

15) 모로코(Morocco)

모로코는 2,000달러 상당의 정어리를 기부했다.

16) 남아프리카(South Africa)

남아프리카는 약 14,000달러 가치의 의약품을 제공했다.

17) 튀니지아(Tunisia)

튀니지아는 베트남 학생 15~20명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제공했다.

18) 벨지움(Belgium)

벨지움은 의약품과 구급차 1대를 제공했으며 벨지움에서 공부하는 베트남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19) 덴마크(Denmark)

덴마크는 의품을 제공했으며 자국에서 베트남인 간호원 12명을 훈련시켰다.

20) 독일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Germany)

독일은 경제 및 인문원조를 했다. 1966년 시작하여 연간 평균 7.5백만 달러였으며, 200명 이상의 기술자와 의무요원들이 베트남에서 근무했다. 또한 민간인에게 의료지원을 하기 위해 3천톤 급의 병원선박 헬고랜드(S. S. Helgoland)함을 기증했다. 이 배는 8명의 의사, 30명의 의료요원, 130개의 병실을 갖추었으며 처음에는 사이공 근교에 정박했다. 여기서 21,000명 이상의 후송환자를 치료했으며, 1966년 9월부터 1967년 6월 30일까지 약 6,700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850건 이상의 수술을 시술했다. 1967년 10월 헬고랜드는 다낭 지역으로 교대되어 갔다.

1967년 3월 독일 정부의 맬티스원조단(Maltese Aid Service team)의 의사들을 25명에서 47명으로 늘렸으며 이 인원에는 의사 6명, 치과의사 2명, 간호원 39명, 직업교사들이 포함되었다. 안호아, 다낭 및 호이안(An Hoa, Da Nang, and Hoi An)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이 팀들은 정기적

보건관리 및 난민관리를 해 주었다. 다른 몇몇의 독일인들은 사이공 주변 투득(Thu Duc) 지방의 기술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5명의 독일인 교수들은 후에(Hue) 대학의 교수멤버로 활동했으며, 매년 베트남 학생 7명에게 독일학교에 지급하는 장학금을 지급했다.

독일 정부는 베트남의 자본프로젝트와 상품 수입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21.2백만 달러의 보증신용을 제공했다. 또한 후속신용으로 3.75백만 달러의 보증신용을 제공하여 기계공구와 비료를 구입할 수 있게 도왔으며, 호아농선(Hoa-Nong Son) 지방에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12.5백만 달러, 자본프로젝트를 위해 5백만 달러, 현대식 도살장 장비 구입과 기술지원을 위해 3.5백만 달러의 보증신용을 제공했다.

독일원조기금으로 사회봉사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훈련센터 겸 사회봉사센터(Social center)를 9개 설립하여 인력을 충원시켰으며, 투득(Thu Duc) 지방에 비행청소년 숙소 1개를 건립하여 필요 인원을 채워 주었다.

상당량의 의료품과 의약품 및 장비를 증여하여 시민병원과 산부인 병원에 분배했으며, 10만권의 건강 책자를 제공했다. 독일은 헬고랜드 병원선박을 대체시킬 수 있는 170개 병실을 갖춘 병원을 2.5백만 달러를 들여 다낭 지역에 건립했다.

21) 프랑스(France)

1956년 시작하여 약 155백만 달러를 베트남에 지원했다. 연간 평균 4.4백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대부분 문화부문에 지원했다.

베트남에 거주한 프랑스인 대부분은 문화활동 분야에 종사했다. 어떤 이는 중등학교 교사로, 어떤 이는 대학교 교수로 활동했다. 프랑스는 기술훈련 지원을 위해 54개의 협력단체(fellowship)를 보냈으며, 1965

년 프랑스 유학을 위한 대학협력단체 85개를 지원했으며, 이후로도 이 프로그램은 지속되었지만 규모는 약간 줄어들었다.

프랑스는 또한 20백만 달러의 저금리 보증신용을 제공하여 베트남 산업에 필요한 프랑스 장비를 수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10만 달러를 무상으로 증여하여 프랑스 예술 산업 장비를 구입하도록 해 주었다. 1960년 14백만 달러의 저금리 보증신용을 제공하여 다낭 남부의 호아농선(Hoa-Tong son)에 건설 중인 석탄 및 화학 산업단지의 건설을 지원했다. 12백만 달러를 저금리 5년 거치상환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하띠엔과 투득(Ha Tien and Thu Duc) 지방에 있는 공장과 베트남 최대 시멘트 생산단지 건설을 지원했다. 1964년에 프랑스는 18만6천 달러를 무상으로 증여하여 전자기술자 훈련센터의 건립을 지원했으며, 1965년에 25만 달러를 선물하여 교육장비의 구입을 지원했으며 이 장비는 주로 의료용이었다.

22) 그리스(greece)

그리스는 15,000달러 가치의 의무보급품을 제공했다.

23) 아일랜드(Ireland)

아일랜드는 2,800달러를 세계적십자를 통해 베트남을 지원했다.

24) 이탈리아(Italy)

이탈리아인은 10명으로 구성된 수술팀을 제공했으며, 자국에서 공부하는 베트남 학생 10명에게 과학 장학금을 제공했다. 또한 약 29천 달러의 구호품을 제공하였으며 여기는 개인 기부금도 포함되었다.

25) 룩셈부르크(Luxembourg)

이 국가는 의무장비인 혈장 및 혈액 이식 장비를 제공했다.

26) 네덜란드(netherlands)

네덜란드는 1965년 원조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베트남 의사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3개의 결핵치료센터 건설 및 장비 설치, 초론(Cho Lon) 지역의 병원설비 혁신 및 확장을 지원했다. 네덜란드는 베트남에 관한 유엔의 신탁기금 1백만 달러를 책정했다. 1968년 10월 베트남 구호 프로젝트를 위해 유니세프(UNICEF; 국제연합아동기구)에 무상지원 186백만 달러를 발표했다.

27) 노르웨이(Norway)

노르웨이는 1965년 수해민을 위해 국제 적십자사를 통해 원조했다. 노르웨이는 또한 1968년 베트남 무주택 난민을 위해 현금을 제공했다.

28) 스페인(Spain)

1965년 12월 스페인 정부는 베트남 정부의 요청으로 베트남에 10~14명의 의무 선교단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지원 협상은 국제개발기구를 위한 미국 에이전시와 베트남 보건성 장관 사이에 열렸다. 이 협상의 주안점은 스페인 정부가 이 팀의 요원들에게 봉급과 수당, 생계 수당으로 1인당 월 50달러를 지급하며 미국 정부는 모든 제외된 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 팀의 구성은 의사 4명, 병참보급원 1명, 팀장 1명, 간호사 7명으로 하여 제2군단 전술지역인 고콩(Go Cong) 지방에 위치시키기로 결정되었다. 이 팀은 9월 8일에 도착하여 9월 10일에 고통에 있는 지방병원에

서 근무하던 미국 군사지역 보건 지원 프로그램팀과 교체되었다.

29) 스위스(Switzerland)

스위스는 사이공 대학에 현미경을 제공하였으며 11명으로 구성된 의료팀을 지원했다. 이 의료팀은 1966년 4월 중앙고원지대의 지방병원에서 일하는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 지원되었다. 1967년 후반에 다른 팀이 다낭에 도착하였으며, 이 정부의 무상지원금으로 다낭 병원의 소아과 병동의 건설을 지원했다. 또한 스위스는 200,000달러의 비상물품을 공급했다.

30) 영국(United Kingdom)

1963년과 1964년에 영국이 제공한 식량과 물자는 다음과 같다: 사이공 대학에 실험장비, 정부인쇄소에 인쇄기계, 국립 암 센터에 코발트 심광선 치료 기구 1조, 사이공 대학에 교수용 장비, 즉 약품 실험 제약 장비를 제공했다. 사이공에 있는 기상 및 농업학교에 약품을 공급했으며, 델타(Delta)에 원자연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후에(Hue) 지역에 교수를 지원했다. 5명의 의사와 6명의 간호사로 된 소아과팀은 1966년 8월에 사이공에 도착하여 5년 동안 봉사했다. 이 팀은 후에 26명으로 늘었다. 1968~1971년 동안 영국은 2.4백만 달러 가치의 경제 원조를 했다. 휴 대학에 영어교사를 제공했으며, 경찰 고문단, 교사 및 기술 전문가들을 제공했다.

31) 캐나다(Canada)

1964년부터 캐나다는 3.9백만 달러 이상을 제공하여 베트남 개발을 지원했다. 광응아이(Quang Ngai)에 소형 결핵클리닉 치료소를 건립하

여 의사 2명과 간호사 4명을 두었다. 캐나다 교수 1명은 쪄레이 병원(Cho Ray)에서 근무했으며, 또 다른 한 캐나다 교수는 2년 동안 휴 대학에서 가르쳤다. 콜롬보 계획으로 380명의 훈련생이 캐나다에서, 모든 프로그램으로 총 483명의 훈련생들이 캐나다에서 기술훈련을 받았다.

베트남은 캐나다로부터 최대의 의무지원을 받았다. 캐나다는 약 560,000회 용량의 소아마비 백신을 전달하여 학생들에게 면역주사를 맞았으며 더 많은 소아마비와 결핵과 천연두 예방백신을 제공했다.

1958년 시작하여 850,000달러 상당의 식량 공급을 제공했다. 식량 판매 대금은 베트남의 자본 형성 프로젝트에 사용되었다. 캐나다인은 330,000달러가 소요되는 후에 대학교 의과대학 건물을 지어 주었으며 이 대학의 강당 설립을 위해 약 125,000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200개 병실을 갖춘 병원 건립을 위해 의무지원금 1백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 두 병원은 사이공 근교에 있다.

1968년 정부는 20만 달러 상당의 비상물품을 보내었으며, 의사 8명으로 하여금 단기 봉사하도록 하였으며, 공격으로 노숙자가 된 베트남인들을 위해 225,000달러를 기부했다. 캐나다는 또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사회과학 교재 50만 부를 인쇄했다.

32)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5천통의 밀가루와 2만회 용량의 콜레라 백신을 기부했다.

33) 브라질(Brazil)

브라질은 5천 자루의 커피와 상당량의 의무품을 제공했다.

34) 코스타리카(Costa Rica)

코스타리카는 베트남 보건성 전용 구급차 1대를 제공했다.

35) 에콰도르(Ecuador)

의약품 선물을 보냈다.

36) 과테말라(Guatemala)

약 15,000회 분량의 장티푸스-파라티푸스 혈청을 기증했다.

37) 온두라스(Honduras)

온두라스는 베트남 난민을 위해 의약품과 3,100파운드의 새 옷을 공급했다. 이것은 1966년 10월 캠페인 기간동안 모금하여 온두라스 적십자사를 통해 지원되었다. 1967년 이전까지 온두라스 공군기가 온두라스인 승무원으로 태평양을 횡단한 적이 없었지만 이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이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38) 우루과이(Uruguay)

21,500달러 상당의 구호품과 의약품을 기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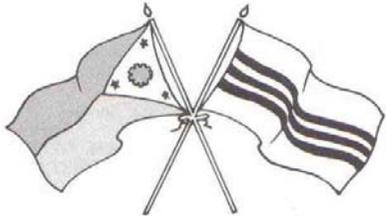
39) 베네수엘라(Venezuela)

민간인 의사 2명이 베트남에 지원되었으며 500톤의 쌀을 지원했다.

부 록

Appendix

[필리핀이 남베트남에서 사용한 전단지]



베트남 국민에게 :

필리핀 국민은 베트남 정부가 요청한 민사활동지원에 부응하여 정중하고 겸손한 태도로 제1필리핀 민사활동단(Philippine Civic Action Group, Vietnam(1st PHILCAGV))을 파견했습니다.

우리는 필리핀 민사활동단으로서 최선의 노력과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임무를 수행할 것을 선서했습니다. 우리는 베트남 국민이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건설하러 온 것이지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베트남 국민의 행복을 위해 온 것이지 슬픔을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선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미움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베트남 국민이 우리가 민사활동을 수행함에 도

움이 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라도 협력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최소한의 방해와 간섭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베트남 국민의 행복과 베트남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개인 혹은 집단을 배척시키도록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 전단지 안에 있는 것은 우리 필리핀 의회에서 통과시켜 마르코스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을 베트남 언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법은 필리핀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며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필리핀 민사활동단 창시자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랍니다까?”라고 물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당신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지 망설이지 말고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우리와 함께 한다면 큰 성취를 이룰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의회 제6차 회의 제2특별회기

1966년 5월 13일 금요일 필리핀 시 개최

(공화국 법률 제4664호)

베트남에 경제 및 기술지원 확대를 승인하는 법률

전문. 1964년 7월 21일자로, 베트남 정부의 요청으로 1964년 4월 13~15일 개최된 제9회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 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회의에서 취한 필리핀 대표단의 입장에서, 필리핀 의회는 “베트남에 경제 및 기술지원 확대를 승인하는 법률”을 공화국 법률 제 4664호를 통과시켰으며 필리핀 대통령의 제가를 요청했습니다.

전문. 베트남 정부는 필리핀 정부에 요청하기를 더 많은 지원을, 그리고 이 지원은 사회·경제적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공산통제에서 벗어난 지역의 주민의 삶의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전문. 필리핀 정부는 위의 요청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더 많은 지원을 하기로 작정하고 있으며, 1965년 5월 3~5일 개최된 제10회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 회의에서 취한 필리핀 대표단의 입장을 지키고자 하며, 필리핀 정부의 능력 범위 내에서 베트남에 대한 경제 및 기술지원을 계속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리핀 상원과 하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조항 1. 이 법안에 의거 필리핀 대통령은 베트남에 필리핀 경제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할 것을 승인하며, 이에 관련하여 민사활동단을 파견하며, 파견단은 공병건설팀 의무팀 지역마을개발팀으로 구성하여 양국 정부 간 상호 합의된 사회경제적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언급된 민사활동단은 자체 경호책임 하에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법에 의거 파견되는 모든 인력은 자원자들 중에서 선발되며 필리핀의 지휘를 받게 된다. 민사활동단과 경호지원팀에 자원하는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여기에 합류할 수 없다.

조항 2. 위 조항 1에 의거 자원서에 본인 서명이 없는 사람을 베트남으로 가도록 강요, 유혹, 혹은 허락하는 자는 위법자이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감옥 형을 받는다.

조항 3. 이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3천5백만 페소 혹은 그 이상의 예산을 국가재무기금에서 전용한다.

조항 4. 이 법안은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휘한다.

승인함

토렌티노 상원의장(Arturo M. Toletino, President of the Senate)

비라릴 하원 대변인(Corenelio T. Villareal,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이 법안은 법률 제H. No. 3411호와 제S. No. 391호를 대체하며, 1966년 6월 상원과 하원에 의해 최종 통과되었음.

유스타키오 상원 비서관(Reginos Eustaquio, Secretary of the Senate)

페리자 하원 비서관(Inocencio B. Pareja, Secretary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승인일자: 1966년 6월 18일

마르코스 필리핀대통령(Ferdinand E. Marcos, President of the Philippines)

이 전단지지의 사본은 베트남 언어로 번역되어 항공기와 사람의 손을 거쳐 베트남에 살포되었다.

작성일자: 2002년 12월 18일

[용어해설]

Admin	Administrative
ANZAC	Australian-New Zealand Army Coprs
APC's	Aromored Personnel Carriers
Comd	Command
CORDS	Civil Operations Revolutionary Development Support
CTZ	Corps Tactical Zone
DMZ	Demilitarized Zone
DS	Direct Support
GVN	Government of South Vietnam
JUSPAO	Joint U.S. Public Affairs Office
KANZUS	Korean, Australian, New Zealand, and U.S. (troops)
KIA	Killed in Action
LRRP	Long-Range Reconnaissance Patrol
LSM's	Landing Ships, Mechanized
LST's	Landing Ships, Tank
MAP	Military Assistance Program
MOS	Military Occupational Specialty
NVA	North Vietnamese Army
NZ SAS	New Zealand Special Air Services
PGM107	Motor Gunboat
PHILCAG	Philippine Civic Action Group
PHILCAGV	Philippine Civic Action Group, Vietnam
POL	Petroleum, Oil, and Lubricants
RCT	Regimental Combat Team
Repl	Replacement
RNZIR	Royal New Zealand Infantry Regiment
ROK	Republic of Korea
RVN	Republic of Vietnam
RVNAF	Republic of Vietnam Armed Forces
SEATO	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Svcs	Services
TAOR	Tactical Area of Responsibility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SAID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MACV	U.S. 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

- 사업 주간 및 편집
최용호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 2팀장)
- 번역
이주만 :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졸업 (국제경영학 박사)
예비역 육군 중령
- 원고 심의
원태재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장)
김종숙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부 책임연구원)
정해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사부 선임연구원)
조성훈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 선임연구원)
서상문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 선임연구원)

베트남 참전 동맹군

2008年 6月 5日 印刷

2008年 6月 11日 發行

發行人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發行人 金 洪 榮

印刷處 한진종합인쇄

<非賣品>